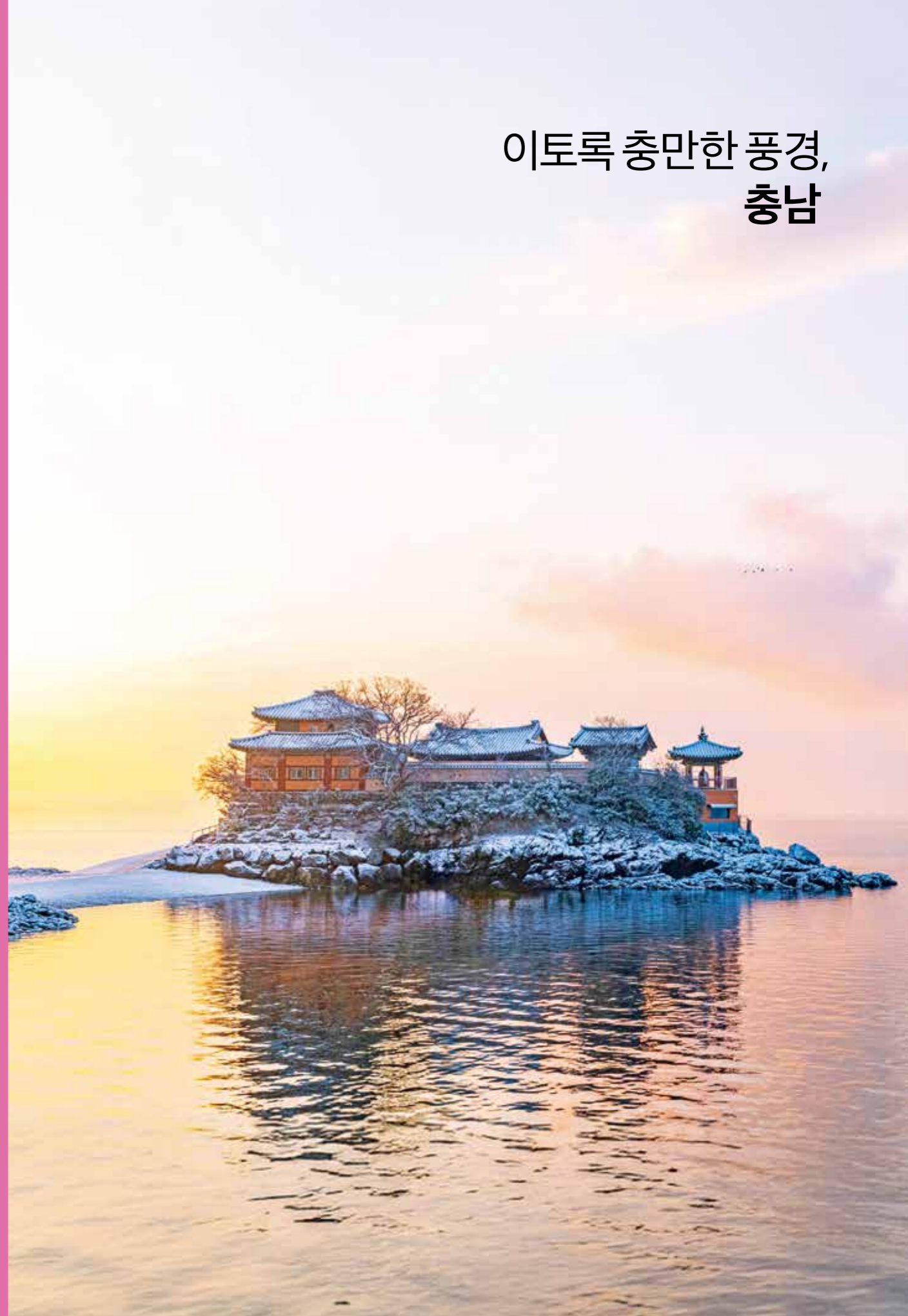


광고문의 02-2276-1190

이토록 충만한 풍경,
충남



CHASE DREAM
DESCENTS



ARC'TERYX



034 이달의 여행

이토록 충만한 풍경, 충남

서쪽 바다의 너그럽고 온화한 품에 몸을 맡긴다.
충남 서해안권 여섯 도시를 잇는 느슨한 여정.



표지 이야기

충남 서산 간월암

낙조가 아름다운 충남에서 유독 눈부신 일출을 마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서산 간월도에 자리한 그림 같은 절집, 간월암이다. 밀물의 시간, 간월암의 실루엣은 거울 같은 수면에 어른거리며 묘연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떠오르는 말간 해를 마주했다. 극락정도가 현현한 듯한 초현실적 풍광이 모든 번뇌를 씻어 주었다. 아침은 또 한 번 밝아 오고, 삶은 오늘도 나아간다.

와우!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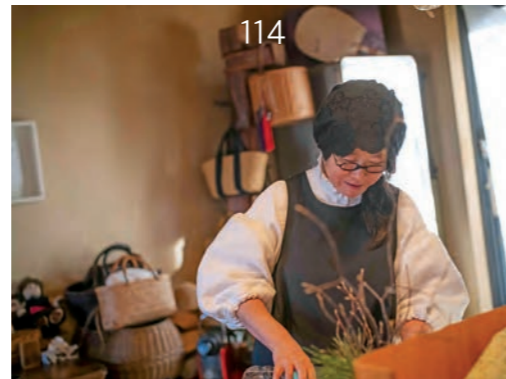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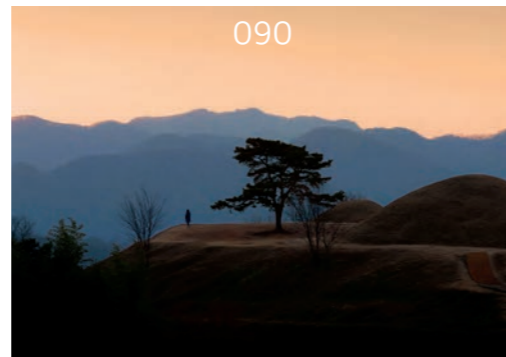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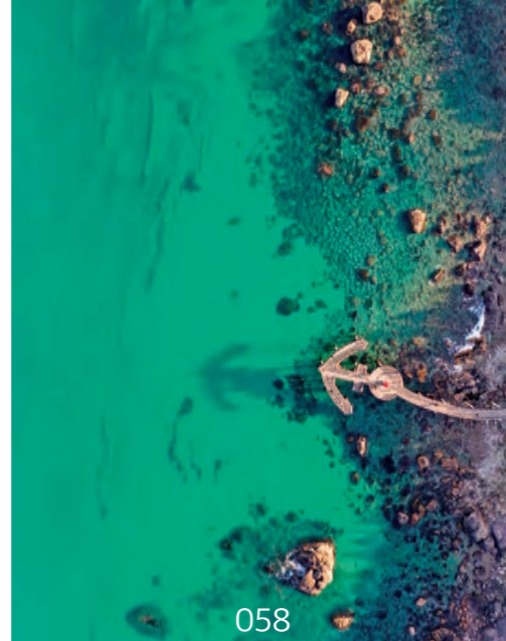
대둔산

Chungnam

바람결에 느껴지는 충남의 여유
낭만과 여유가 느껴지는 그곳 '충남'



- 018 촬영지 여행
복을 올리는 진심
드라마 <조명가게> 속 장면에서 인천 강화 전등사를 발견하다.
- 020 여행자의 물건
출장자의 옷장 & 촉촉한 겨울나기
비즈니스 여행자를 위해 멋스러운 패션, 건강한 뷰티 아이템을 골랐다.
- 024 전국 행사달력
2월의 축제·공연·전시·행사 소식
시린 계절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전국 곳곳의 행사를 모았다.
- 028 시절, 풍경
산에 오르니 설국이였다
하얀 꽃이 소복이 내려앉은 숲속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 058 여행의 발견
겨울 포항, 다섯 가지 여행법
유난히 푸른 겨울 바다를 즐기러 경북 포항으로 떠났다.
- 074 세계 기차여행
두 도시 이야기
중국 양쯔강 이남의 도시 상하이와 쑤저우를 고속철로 여행했다.
- 082 함께 여행
숲이라는 집
숲 해설가 이서영에게 겨울 숲과 친해지는 법을 물었다.
- 090 시간여행
아라가야 600년의 숨결
함안 말이산고분군
아침 해가 서서히 번지는 농선을 보며 찬란한 가야 역사를 엿보았다.
- 114 인터뷰
쉬지 않는 손, 바지런한 마음
자연주의 살림을 짓는 아티스트 효재에게서 삶의 방식을 배웠다.



**BOOK
in
BOOK**

made in GWANGJU
**광주를 이루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광주에서
특별한 공간과 사람을 발견하다.



TASAKI

- 122 전시 보러 갑니다
삶과 자연을 아우르는 푸른빛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의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전에서 예술이 된 자연을 만나다.
- 134 지역 생산자들
초루, 무르익는 시간의 거처
전남 보성 삼나무 숲 한편에서 흑초를 빚는 부부를 만났다.
- 142 테마가 있는 골목 탐험
취향의 탐색, 완성의 기쁨
나만의 특별한 작품을 만드는 서울 성수동의 이색 공간을 살살이 찾았다.
- 150 에디터의 눈
지금 입장할게요
모든 관객을 환대하는 극장 '무비랜드'와 다양한 취향을 모은 북 카페 '그래픽 바이 대신'으로 안내한다.
- 154 KTX타기 1시간 전
대전역 원도심 산책
여행을 마무리하기 1시간 전, 대전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찍을 곳으로 향했다.
- 160 지식 더하기
고유한 감각의 세계, 한국수어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수어의 개념부터 농문화를 담은 창작물까지 살폈다.
- 162 트렌드 읽기
무대로 향하는 별들
올해 연극 무대를 뜨겁게 달굴 배우들의 소식을 모았다.
- 164 이달의 선택
에디터가 추천하는 2월의 콘텐츠
몸이 움츠러드는 계절, 마음에 풍요로움을 더할 2월의 콘텐츠를 소개한다.
- 176 플레이리스트
한로로와 떠나는 음악 여행
싱어송라이터 한로로가 머지않은 봄에 듣기 좋은 노래를 추천한다.
-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 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122



134



150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006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들려주고, 60여 개 언어로 자동 번역을 지원합니다.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2025.
2.14. FRI
—
2.16. Sun

금 19:30
토, 일 14:00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국립발레단
**러
난
설
현**
수월경화
水 月 鏡 花



2025년 2월호

KTX MAGAZINE

제22권 제2호 통권 제248호
2025년 2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박정인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부편집장 강은주 unddu@bandicom.com

기자 신승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류현경 엄하연 정예지

교열 한정아 오미경 정원경 김혜란 양재연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전재호 김은주 안홍범 고승욱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마케팅 사업부 본부장 강태선 kenkkang@naver.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와 ITX-청춘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함안 구경

9景

좋은 사람과
함께 떠나는
아름다운 여행



무진정

함강정과 반구정

연꽃테마파크

약양노을

함안말이산고분군

입곡군립공원

대평늪

장춘사

강나루 생태공원

귀하게 놀러 담은 2월의 이야기

<KTX매거진> 1월호가 나온 후 주변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생했다, 애썼다는 말과 함께 표지가 달라졌다, 책이 두꺼워졌다, 읽을거리가 많아졌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자, 디자이너, 포토그래퍼의 진지한 평가와 선후배, 친구, 지인, 가족의 조언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쁘게 긴장하며 귀를 쫓긋 세웠던 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좋은 사진 덕분에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한 느낌으로 정동진 여행길에 올랐다, 국내에도 멋진 곳이 참 많다는 걸 깨달았다, 신입 사원 연수를 받으러 천안아산역으로 향하는 길에 <KTX매거진>을 보며 긴장을 풀었다 등 SNS와 이메일을 통해 보내 주신 글은 하나하나 정성과 애정이 담겨 달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간직하고 싶을 만큼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2월호는 더욱 다채롭고 짜임새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달 <KTX매거진>은 충남에서 시작합니다. 충남의 지질, 건축, 섬, 맛을 테마로 서해안 여섯 도시 서천·보령·태안·서산·홍성·당진을 찾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바닷바람이 거센 경북 포항에선 이른 아침 수산물 경매장의 열기와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의 신비로움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KTX타기 1시간 전, 가볍게 들르기 좋은 곳으로 대전역 부근에 70년 된 만듯집과 추억의 LP바, 트래블라운지 등을 찾았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3월 3일까지 열리는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전을 미술칼럼니스트의 정교한 눈으로 조명했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녹여 줄 난로 같은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충북 괴산에 거처를 마련한 아티스트 효재 선생은 나와 잘 지내는 지혜를 보여 주었고, 전남 보성에서 천연 발효 식초를 빚는 최진섭·한상미 부부는 자연과 시간의 합작품인 '초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숲 해설가 이서영은 느리고 섬세한 시선으로 겨울 산과 친구 되는 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알차게 시간을 보낼 공간으로 북 카페 그래픽 바이 대신과 프라이빗 소극장 무비랜드를 취재했고, 키크-러그도자기 그릇 등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성수동 체험 공간도 찾았습니다. 연극 무대로 향하는 스타들의 2025년 기대작을 살펴봤고,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수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강렬한 예술 언어임을 일깨워 준 수어문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귀하게 놀러 담은 2월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기분 좋은 떨림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 하나쯤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집장 최현주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2025년 신규회원모집

SONOROUS	NOBLIAN BLACK
대한민국 18개의 호텔&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멤버십 '소노러스'	실버, 골드, 로얄, 프레지덴셜 객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VIP 멤버십 '노블리안 블랙'

I. 창립혜택

4가지 유형의혜택 중 하나의 회원이 택하실 수 있으며, 유형별로 '객실형' 6년간 30%, '종합형' 골프 2년간 최대 50%,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남부형'은 워터파크&조식이 무료 제공됩니다.

II. 추가할인

사용가능 입회금 추가할인은 회원이 객실, 골프, 워터파크, 식음 등 전국의 주요시설 이용료를 '사용가능 입회금'으로 결제하시면 최대 30%(A상품 기준)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III. 계속되는 비전

쏟아져넘어오는 2025년 7월 그랜드오픈 예정이며, 오는 10월 '경주도 리뉴얼 오픈' 예정입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멤버십은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를 통해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 쏠비치 남해 2025년 7월 그랜드오픈 (예정)



SONO
HOTELS & RES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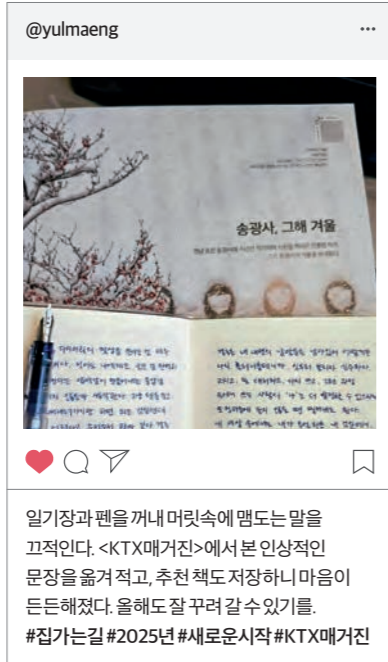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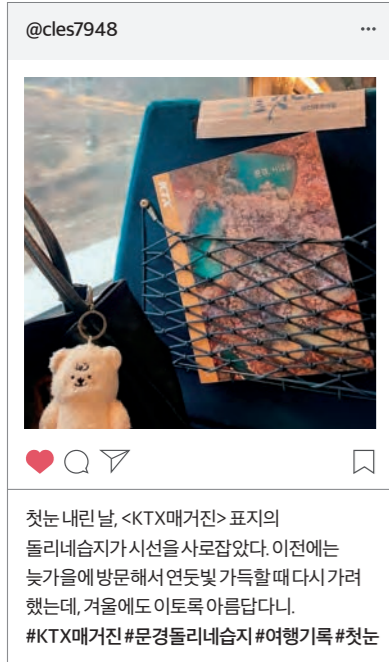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쏠비치 양양 | 삼척 | 진도 | 소노캄 고양 | 여수 | 거제 | 제주 | 경주(예정) | 소노벨 천안 | 청송 | 변산 | 제주 | 소노문 단양 | 해운대 | 소노휴 양평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수민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KTX를 타고 가다 눈길에 닿은 <KTX매거진>. 잡지 표지에 등장한 경북 문경 기사를 집중해 읽었다. 문경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진 봉명산 출렁다리부터 침샘을 자극하는 오미자와 인인까지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득했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2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KTX@bandicom.com 기간 2월 1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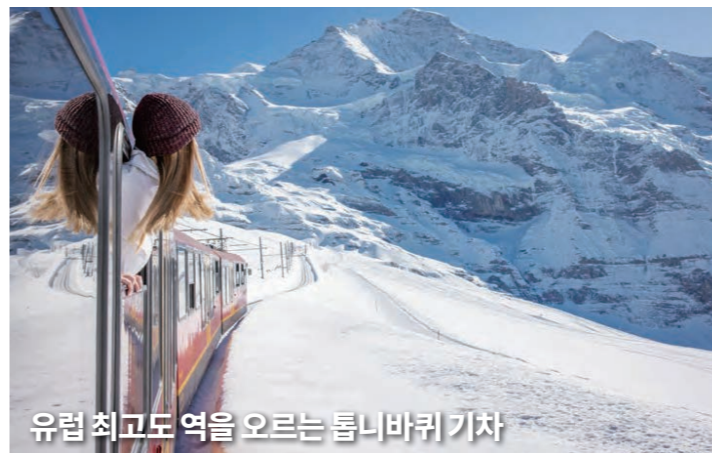


배은진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기차안에서도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는 마법의 잡지에 마음이 절로 간다. 1월호에 실린 스위스 마을 풍경을 보니 2년 전 엄마와 함께 여행한 워렌 마을이 떠오른다. 새하얀 눈이 근심과 걱정을 덜어 준다. <KTX매거진> 덕에 추억 여행을 떠났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이클로의 '데일리 반지갑'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한 손에 잡히는 크기가 휴대하기 편하고 내구성이 강한 제품입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몽돌에 부서지는 흰 파도 소리

힘차게 물러온 흰파도가 몽돌을 하나하나 쓰다듬습니다.

이내 미끄러지듯 저만치달아나는 겨울 바다의 리듬. 동해 바다의 파도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QR코드를 찍으면 포항 몽돌해변의
파도 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전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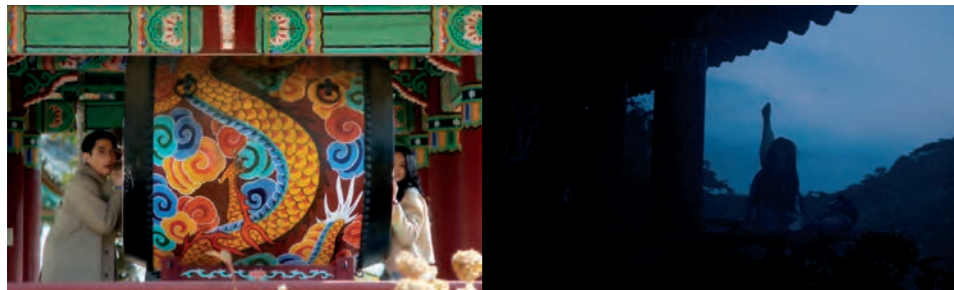
북을 울리는 진심

절에서 사랑을 고백하던 연인을 사후 세계에서 다시 만난다.
여자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 다시 절로 향한다.

드라마 <조명가게>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과 이를 살리기 위해 어두운 골목 끝에 위치한 조명가게로 유인하는 사람이 나온다. 가장 먼저 화면에 등장하는 건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늘어뜨린 채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지영이다. 버스에서 내린 현민은 연인이었던 지영을 알아보지 못하고 몇 걸음 가다 쓰러지기를 반복한다. 지영은 다친 현민을 캐리어에 넣고 장소를 이동하며 상처 부위를 치료한다. 생전에 둘은 북을 사이에 두고 현민은 "사랑해"라고 외치고, 청각장애인 지영은 손가락으로 북을 쳐서 응답했다. 이제 지영은 같은 공간에서 홀로 바느질을 이어간다. 인물의 표정과 상황 모두 대비되는 두 장면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전등사에서 촬영을 마쳤다. 원래는 '진종사'라고 불렀다가 고려 충렬왕의 비정화궁주가옥으로 만든 등잔을 기증하면서 '전등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등불을 켜는 데 사용하는 '등잔'과 이승으로 돌아가기 위해 찾아야 하는 '조명'. 환한 빛을 연상시키는 두 단어에서 지영의 간절한 표정이 어른거린다. 각자의 방식으로 고백했던 전등사의 북에 귀를 대면 그 울림이 전해질까.



강풀의 웹툰 <조명가게>를 원작으로 한 8부작 드라마. 사후 세계를 배경으로 하며 배우 김희원이 감독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 디자인플러스

제53회 강진 청자 축제

흙, 사람 그리고 불

2025.
2. 22. - 3. 3.
10일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GANGJIN
CELADON
FESTIVAL

주최·주관
강진군·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MAN

그레이 컬러 롱 코트는
에드호크 이너웨어로
레이어드한 네이비 컬러
니트, 드라이빙 슈즈는
모두 맨온더분.
아이보리 컬러 코트
팬츠는 예일.



출장자의 옷장

단정함과 편안함을 챙긴 비즈니스 여행자의 선택.

WOMAN

오버사이즈 핏의 롱
코트, 이너웨어로
레이어드한 폴오버
니트는 모두 올세인츠.
데님 소재 스트레이트 핏
팬츠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청키한 블랙 컬러
슈즈는 아쉬.



문의 에드호크 02-2157-5455 맨온더분 1644-4490 예일 070-7424-9393
올세인츠 080-801-7070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02-2143-7725 아쉬 02-3479-1884

촉촉한 겨울나기

살을 에는 듯한 바람에도 우리를 녹녹하게 지켜 주기를.

1 예민한 피부에 효과 있는 판테놀 4000ppm과 극한 환경에서 미생물을 보호하는 엑토인 1000ppm을 배합해 충분한 보습을 돕는 마녀공장 판테토인 에센스 토너. 2 피부 장벽을 개선하고, 본연의 방어력을 높이는 이중장벽 개선 효과는 물론 유·수분 밸런스까지 조율하는 피지오겔 DMT 리제너러티브 크림. 3 독보적인 파이토솜 특허 공법으로 모공을 관리하는 파이코어 디퍼런스 포어세럼 1989 스피큐 샷. 4 피부 톤을 환하게 개선하고 잡티 흔적을 관리하는 메디힐 워터마이드 속보습 패드.



문의 마녀공장 02-6013-0855 피지오겔 080-023-7007 파이코어 1566-5830 메디힐 080-860-8400

설명절, 즐기세포로 부모님 건강챙기세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건강을 살피게 되는 명절, 부모님에게 즐기세포를 선물해 본다.

언제나 마음 쓰이는 사람, 부모님. 설 명절을 맞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건강을 선물해 보면 어떨까. 즐기세포는 근육의 질을 높여 노화로 인한 체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 주효하다. 특정 질환이나 통증이 없어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반나절 만에 즐기세포 채취 후 시술까지 한 번에 가능해 장년층에게도 큰 부담이 없다.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즐기세포 치료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다.

즐기세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가 복제 능력으로 적절한 신호에 따라 특정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를 말합니다. 다분화능, 즉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무한히 동일한 즐기세포를 재생산하는 것이 자가 복제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손상된 세포가 즐기세포를 이용해 재생할 수 있습니다. 즐기세포의 이러한 특성은 당뇨병, 척수 손상, 뇌·심장 질환 등 난치성 질환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즐기세포 연구가 발전하면서 치료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졌지요. 피부 재생, 탈모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즐기세포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즐기세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즐기세포의 유형과 치료가 필요한 곳의 상태에 따라 사용 양상이 달라집니다. 심장병, 신경 장애,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적 치료법으로 활용하죠. 즐기세포는 병이 없는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의 재생 능력 전반을 높으려면 정맥주사를 활용합니다. 행한 두피나 잔주름이 늘어난 피부, 통증 부위, 성기능 저하 등에 국소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즐기세포는 항염증 분자를 분비해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조절해 면역 반응을 완화하고 자가면역 반응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손상된 조직의 혈류를 개선해 치유와 조직을 복구하는 겁니다. 세포가 어떻게 필요한 곳으로 가는지 궁금해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즐기세포는 '호밍 효과'를 일으킵니다. 정맥으로 투여한 즐기세포가 스스로 손상된 부위를 찾아가는 능력을 뜻하지요.

시술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즐기세포는 다양한 상태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술이든 부작용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잠재적 부작용 중 하나는 종양 발생인데, 즐기세포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배아 즐기세포와 역분화 즐기세포의 경우 치료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체 즐기세포는 종양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치료에 활발히 적용합니다. 면역원성 문제도 짚

어 봐야 합니다. 환자의 면역 체계가 즐기세포를 이물질로 인식해 염증 반응이나 조직 손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환자 본인의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관건은 어떤 의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치료받느냐일 겁니다. 즐기세포 치료는 여전히 저렴하지 않으므로 치료비가 저렴한 곳을 우선순위에 두는 환자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저렴한 치료비가 아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찾아야 만족도 높고 안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즐기세포 치료 후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까요? 치료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 시술 후 2주 내외에 치료 반응이 나타납니다. 효과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즐기세포 시술 후에는 금주, 금연은 물론 소염제 사용을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환자의 즐기세포를 보관하는 은행 '셀 बैं킹(cell banking)'은 즐기세포를 영하 200도의 액체질소 탱크에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해동해 시술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담셀의원은 즐기세포 연구소도 운영 중입니다. 환자에게 최적화된 즐기세포 이식 방법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즐기세포는 환자의 혈액, 골수, 지방에서 추출해 병변 부위에 이식합니다. 청담셀의원 즐기세포 연구소는 양질의 세포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조찬호 | 명예원장 이시형 | 수석원장 박영석

청담셀의원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청담셀의원은 즐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된 의료 기관이다. 한국에서는 드물게 골수지방 즐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기술로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 즐기세포 치료 부문에서 6년 연속 수상했다. 청담셀의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항노화의학 전문가로, 즐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항노화 분야를 공부했고 현재는 대한즐기세포치료학회 부회장으로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2-514-2225





김은정, '천상의 숨결(수취)'

EXHIBITION

〈희망 대신 욕망〉

광주 2024.12.17~2025.03.02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살아갈 순 없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립미술관이 전시를 기획했다. 제목은 장애인은 욕망이 없는 존재라는 편견에 당당히 맞서는 김원영의 책 <희망 대신 욕망>에서 이름을 빌려 왔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을 매개로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각자의 욕망과 내면세계를 강렬하게 표출한 작품을, 2부에서는 신체적 결핍을 제약으로 여기기보다 예술적 감각으로 승화시킨 작품을 보여 준다. 후천적 청각장애를 지닌 김은정 작가는 눈과 손으로 느낀 소리를 천으로 표현해 관람객에게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끝으로 돌봄에 대한 고민을 작품에 녹여 내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존하고 연대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총 33점의 작품은 단순히 주변부를 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위계와 시선을 전복한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살아갈 세계를 상상할 차례다.

장소 광주시립미술관
문의 062-613-7100



EXHIBITION

〈My Dear 피노키오〉

울산 2024.12.12~2025.05.11

100년 넘게 사랑받은 고전 소설 <피노키오의 모험>을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국내외 유수의 작가가 모였다. 다시 보는 오리지널 이야기부터 알레산드로 산나, 앤서니 브라운 등 일러스트레이터 거장들이 재해석한 작품까지 망라한다. 회화, 영상, 그림책, 팸아트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피노키오를 만날 기회다.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공간도 구성해 흥미를 자극한다.

장소 울산 현대미술관 미술관
문의 052-209-7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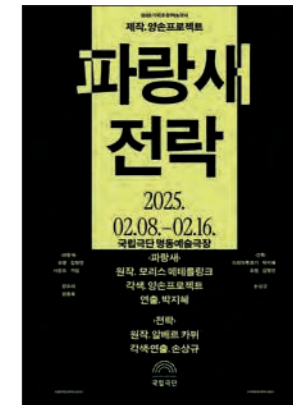
SHOW

〈파랑새〉 & 〈전략〉

서울 <파랑새> 02.08~16, <전략> 02.13~15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극장에서 만난다. 모리스 메테르링크의 희곡을 무대로 옮긴 <파랑새>는 배우 양조아와 양종욱이 원작에서 그려 낸 미지의 세계를 다채로운 움직임과 음악적 언어로 표현한다. 알베르 카뮈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전략>에서는 배우 손상규가 홀로 고해를 쏟아내는 연기로 몰입도를 높인다. 창작 공동체 양손프로젝트가 제작을 맡았다.

장소 서울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문의 1644-2003



허영민 ©



SHOW

〈라파치니의 정원〉

서울 01.30~04.20

<주홍 글씨>로 잘 알려진 미국 소설가 너새니얼 호손의 단편소설 <라파치니의 딸>을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 무대 위에 오른다. 사랑의 아름다움과 운명적 비극이 교차하며 벌어지는 인간성 회복의 여정을 그려 낸다. 서정적인 음악과 함께 운명에 맞서는 인물의 강렬한 서사를 전개한다.

장소 서울 플러스씨어터
문의 02-6954-0772



EXHIBITION

〈Echo: 관계의 울림〉

파주 02.12~04.27

잔잔하면서 묵직한 울림을 전할 무채색 드로잉전이 열린다. 오랜 시간 무채색 회화와 드로잉에 매진해 온 중견 작가 다섯 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고유의 파장을 가진 각 작품이 한 점 한 점 모여 울림을 자아낸다. 무채색 드로잉이 선사하는 크고 작은 파동에 귀 기울일 시간이다.

장소 경기도 파주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문의 031-992-4400



EXHIBITION

〈언제나 미래였던 우주유영〉

서울 2024.12.13~2025.04.06

언제나 미래의 일이라 여겼던 우주여행을 가깝게 느껴 보는 전시로 안내한다. 총 5개 주제로 구성된 전시는 국내외 예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설치미술 작가와 미디어 아티스트 등 다섯 작가가 해석한 우주 세계를 펼친다. 아쓰드 작가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며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는 우주 세계를, 박근호 작가는 빛의 속도로 먼 우주로 갈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는 신비로운 세상을 보여 준다.

장소 서울시립과학관
문의 02-970-4500



© 서울시립과학관



SHOW

〈DCH 앙상블 페스티벌〉

대구 02.06~03.28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를 대표하는 공연장, 대구콘서트하우스가 새로운 음악 축제로 관객을 만난다. 국내외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앙상블이 모여 10개의 공연을 펼친다. 이번 축제의 모든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작품을 연주한다. 하노버 앙상블과 대구 연주자가 만나 대구 작곡가의 창작곡을 연주하는 공연은 묘한 재미를 전한다.

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문의 053-430-7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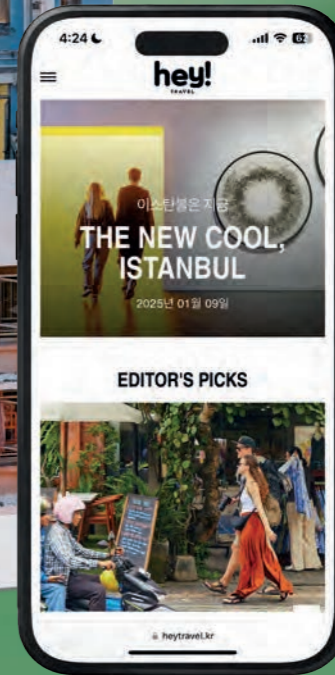
FESTIVAL

쌍쌍 신나는 영월의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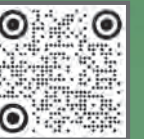
영월 01.15~02.13

겨울 정취를 만끽할 얼음 썰매장이 영월에 개장했다. 얼음 썰매, 열기구 체험 등 가족 단위로 즐기기에 좋은 놀이 시설은 물론 연날리기, 팽이치기 등 전통 놀이 체험도 마련했다. 겨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군고구마, 구운 감자 등 다양한 먹거리까지 있어 시린 계절에 낭만을 더한다.

장소 강원도 영월 동강둔치 일원
문의 033-375-6372



여행 전문가와 로컬이 큐레이션한 여행 &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heytravelmag
INSTAGRAM



@heytravel_edit
INSTAGRAM



heytravel.kr
WEBSITE

최신 여행 트렌드를 담아낼 새로운 미디어 〈hey! TRAVEL〉

Inspiration is Everywhere

산에 오르니 설국이었다

맹렬한 추위 속에 하얗게 꽃을 피우는 겨울의 선물. 안홍범 작가가 눈의 마술을 카메라에 담았다.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면 가장 높은 산은 가장 깊은 바다가 된다.
순백의 산호를 닮은 겨울 나무들.

2024년 2월 광주 무등산



겨울 숲에 눈이 내리면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싸리비로 마당 쓰는 것 같기도 한 소리가 들린다. 적요한 계절의 소란한 아우성.

2023년 1월 전남 순천 조계산

하얀눈과 하얀나무. 하얀길과 하얀하늘.
하얗게 숨어든 한겨울의 자작나무 숲.
2020년 2월 강원도 인제 원대리

이토록 충만한 풍경,

충남

서쪽 바다의 너그럽고 온화한 품에 몸을 맡겼다.
충남 서해안권 여섯 도시가 안긴 충만한 기쁨을 여기 펼친다.

바다의 시간을 걷다

서천·보령·태안·서산·홍성·당진

시간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서해로 떠났다. 끝없이 밀려오고 쓸려가는 바다, 저바다의

넉넉한 어깨에 깃들여 살아온 무수한 생명을 생각하는 여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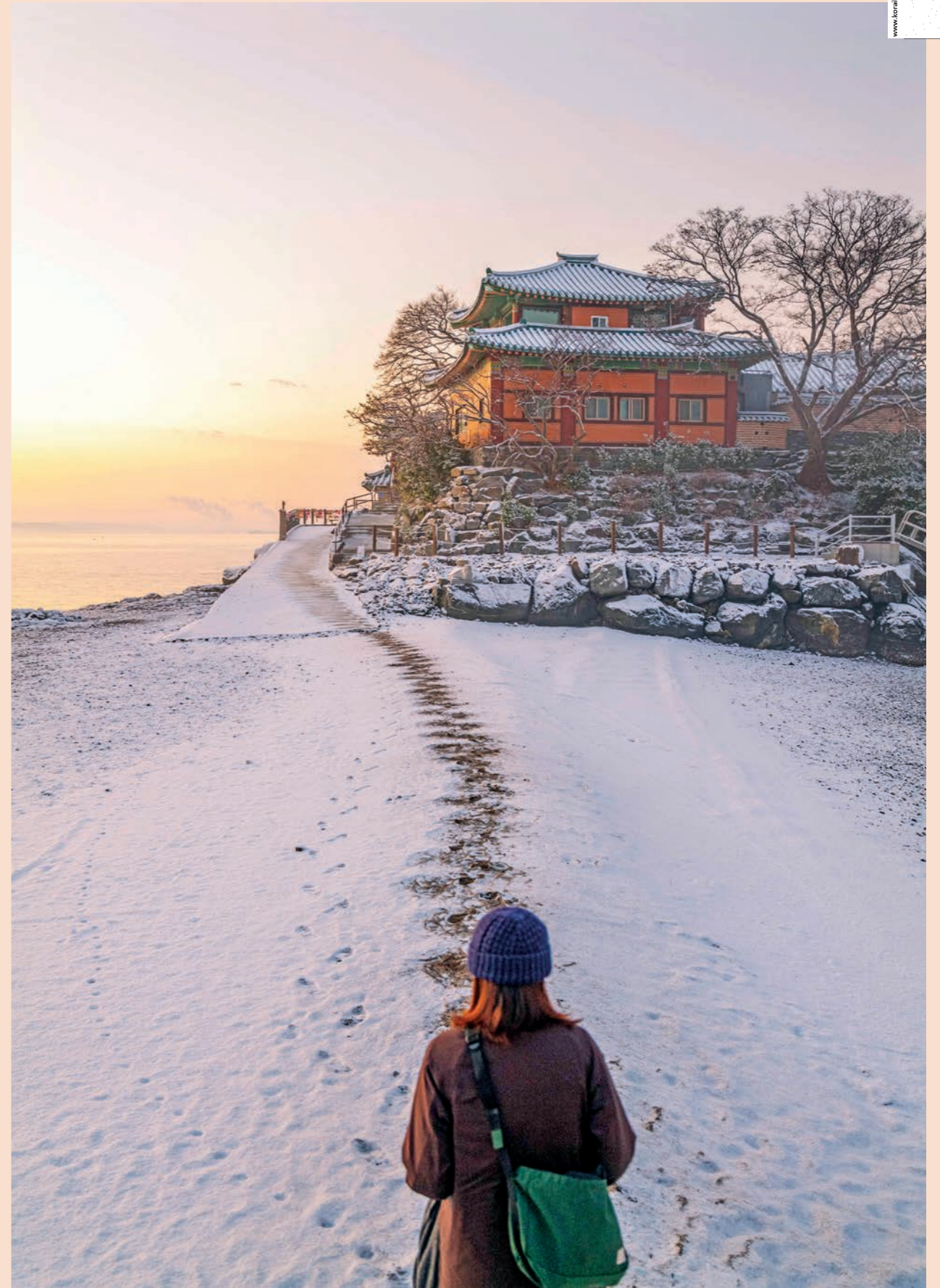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주무대 갯벌, 꽃망울 같은 섬들이 피어난 해변,
파도와 바람의 손길에 부서진 기암괴석과 드넓은 모래언덕, 바닷길을 따라 내포에 흘러든 문물과 고유한 문화.

이 모든 풍경에 흐르는 온기 어린 이야기를 따라 천천히 걸어나갔다.

충남 서해안권에 늘어선 여섯 도시, 서천·보령·태안·서산·홍성·당진을 잇는 느슨한 길이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를 가만가만 위로해주었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서천역까지
3시간 정도 걸린다.



연흔을 따라서

바람이 만든 물결 모양의 흔적, 연흔을 따라 서천갯벌과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를 걷는다.
천변만화하는 눈구름이 이 여정에 동행했다.



서천갯벌과 장항스카이워크

울창한 장항송림이 바다와 땅을 가로지른다. 늦어지면 이곳에 보랏빛 맥문동이 피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숲속과 서천갯벌을 굽어보는 장항스카이워크가 이 고장의 능률한 이정표다.

주소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산58-48
문의 041-956-5505

지극히 서해다운 풍경, 서천갯벌

눈, 눈, 눈 하며 천천히 훑날리던 씨락눈이 눈 깜짝할 새 함박눈으로 쏟아진다. 회청색 갯벌과 질푸른 솔숲의 경계를 지우는 흰 눈을 바라보며 장항스카이워크에 발을 디뎠다. 15미터 높이의 아찔한 전망대로 이루어진 장항스카이워크 한복판에 이르자 완만한 전망산 능선 위에 불쑥 솟아오른 장항제련소 굴뚝, 유부도와 대죽도의 연한 실루엣이 아른거린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드넓은 장항송림엔 눈이 소금처럼 내려앉아 있다. 비로소 서쪽 바다에 다다랐음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눈이 연흔을 따라 고요히 쌓였으니, 반복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추상회화가 눈앞에 펼쳐진다. 캔버스는 한국의 열세 번째 람사르습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 필과 모래가 섞여 풍부한 종다양성을 간직한 이곳은 무수한 생명의 집이며 놀이터다. 고요하기만 한 갯벌 안쪽엔 농게, 칠게, 방게, 바지락, 동죽, 맛조개가 몸을 웅크리고 있다. 갑오징어와 주꾸미, 대하, 갯가재도 저 바다 어디쯤 몸을 기대어 산다. 흰뺨검둥오리와 청둥오리, 저어새와 도요물떼새 또한 울거울 어김없이 날아왔을 테다.





신두리사구센터

해안사구의 지형적 특징과 풍부한 생태계를 인체적인 전시물로 만난다. 모래를 손으로 쥐고 감각할 수 있는 체험 공간에서 사구의 신비로움을 몸으로 느낀다.

주소 태안군 원북면 신두해변길 201-54
문의 041-672-0499



낮선 바다에서,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슬로모션으로 내리던 눈은 태안반도 북부 해안에 펼쳐진 신두리 해안사구에 닿아 흑독한 눈보라로 변모했다. 모래언덕에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얇게 쌓인 눈송이가 드라이아이스의 부연연 기처럼 피어올랐다. 사막에 눈이 온다면 이런 모습일까. 낮설어서 아름다운 풍경이란 신두리의 겨울을 두고 하는 말 같다. 길이 약 3.4킬로미터, 광막한 사구가 펼쳐 내는 극적인 움직임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 선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모래알이 1만 5000년의 가나긴 세월 동안 쌓이면 이처럼 거대한 언덕이 된다. 빙하기 이후, 바닷물에 잠겨 있던 모래가 썰물 때 바람을 타고 해변에 밀려오면서 지금의 신두리 해안사구를 형성했다. 강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드넓게 펼쳐진 사구는 자연 스펀지바다와 땅 사이의 울타리가 되어 마을과 농토를 보호해 왔다. 도마뱀 같은 파충류와 해당화·통보리사초 등 염생식물, 2023년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방사한 멸종위기종 소똥구리까지 넉넉히 품었음은 물론이다. 황량하고 쓸쓸한 계절의 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생명 활동을 상상한다.

② 흥성 & 당진 건축 산책



이응노의 집

격동의 세월을 통과한 이응노의 삶을 다양한 자료로 만난다. 육필 편지와 각종 기사가 당대 상황을 실감하게 하고, 그의 수록화를 입체로 구현한 조형물이 자연을 손끝으로 느끼게 한다.

주소 흥성군 흥복읍 이응노로 61-7
문의 041-630-9232



공간과 공간 사이

육지 안에 발달한 포구를 뜻하는 '내포'란 지명은 오늘날 충청도 서북부권을 아우른다. 내포 지역에 자리한 두 건축물, 흥성 이응노의 집과 당진 신리성지를 살펴본다.

풍경의 건축, 흥성 이응노의 집

완만한 산기슭에서 너른 깎벌로 이어지며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충남 땅은 예부터 걸출한 예술가를 배출해 왔다. 예산의 김정희, 서산의 안견, 공주의 이상범, 연기의 장육진, 그리고 흥성의 이응노. 흥성이 아직 홍주였던 1904년, 홍천면 쌍바위골의 조출한 초가에서 고암 이응노가 탄생한다.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는 역사의 격랑 속에서도 또렷하고 아름다운 족적을 남겼다. 문자 추상과 '군상' 연작으로 독보적 조형 세계를 구축했으며, 투옥 당시에는 밥풀을 모아 조각을 하거나 휴지에 그림을 그리며 예술혼을 살렸다.

이응노의 집,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은 고암의 예술적 생애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공간이다. 대지의 지형을 탁월하게 이용하는 건축가 조성룡의 설계로 지은 황톳빛 건물은 마치 땅에서 솟아오른 것처럼 온화하고 자연스러워 고암의 고단했던 삶을 어루만지는 듯하다. 주요 작품과 자료가 여백을 두고 늘어선 로비엔 적절한 빛과 어둠이 드리우며 관객을 깊은 사색으로 이끈다. 복원한 생가터, 아늑한 북카페, 성성한 대숲을 차례로 거닐고 나면 덧없는 상념과 번뇌가 고요히 가라앉는다.





이 땅을 위한 기도, 당진 신리성지

내포(內浦)는 서해의 바닷물이 유입되는 하천과 습지, 논 등지를 뜻하다가 충청도 서북부를 가리키는 지명이 됐다. 조선 후기, 육로와 수로가 동시에 발달한 이 지역에 새로운 사상이 흘러들기 시작한다. 하늘 아래 반상이 따로 없음을 설파한 급진주의, 천주교다. 1845년 10월 한국 최초의 가톨릭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와 함께 이 땅에 첫발을 디딘 다블뤼안토니오 주교는 1866년 순교하기 전까지 21년간 조선의 낮은 자들에게 임하며 선교의 사명을 다했다.

다블뤼안토니오 주교는 당시 가장 큰 규모로 교우촌을 이룬 당진의 신리 일대에 머물렀다. 신리는 '조선의 카타콤'이라는 수식어처럼 선교사들의 은신처이자 비밀 기지로 기능하며 한반도와 세계를 연결한 장소다. 숭고한 역사를 간직한 신리성지에 2017년 건축가 김원의 설계로 내포 갯벌의 색깔을 닮은 순교미술관이 올라섰다. 이중상 작가의 순교 기록화 13점을 전시한 6층 건물로, 꼭대기층 전망대에 오르면 나지막한 둔덕과 들판에 드문드문 자리한 성당, 경당, 주교관을 복원한 초가가 한눈에 들어온다. 양곡 창고를 개조한 갤러리 카페 '치타 누오바'는 이 짧고도 농밀한 여정의 근사한 마침표가 되어 준다.



신리성지

숭고한 정신이 느껴지는 성지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며 몸과 마음을 씻는다. 성 다블뤼 주교관과 순교자기념관, 순교미술관 등을 한붓그리기 하듯 둘러볼 수 있다.

주소 당진시 합덕읍 평야6로 135
문의 041-363-1359



점과 점을 잇다

섬 너머 섬을 찾아 드라이브 여행을 떠난다. 보령 원산도에서 태안 안면도를 지나 서산 간월도까지 다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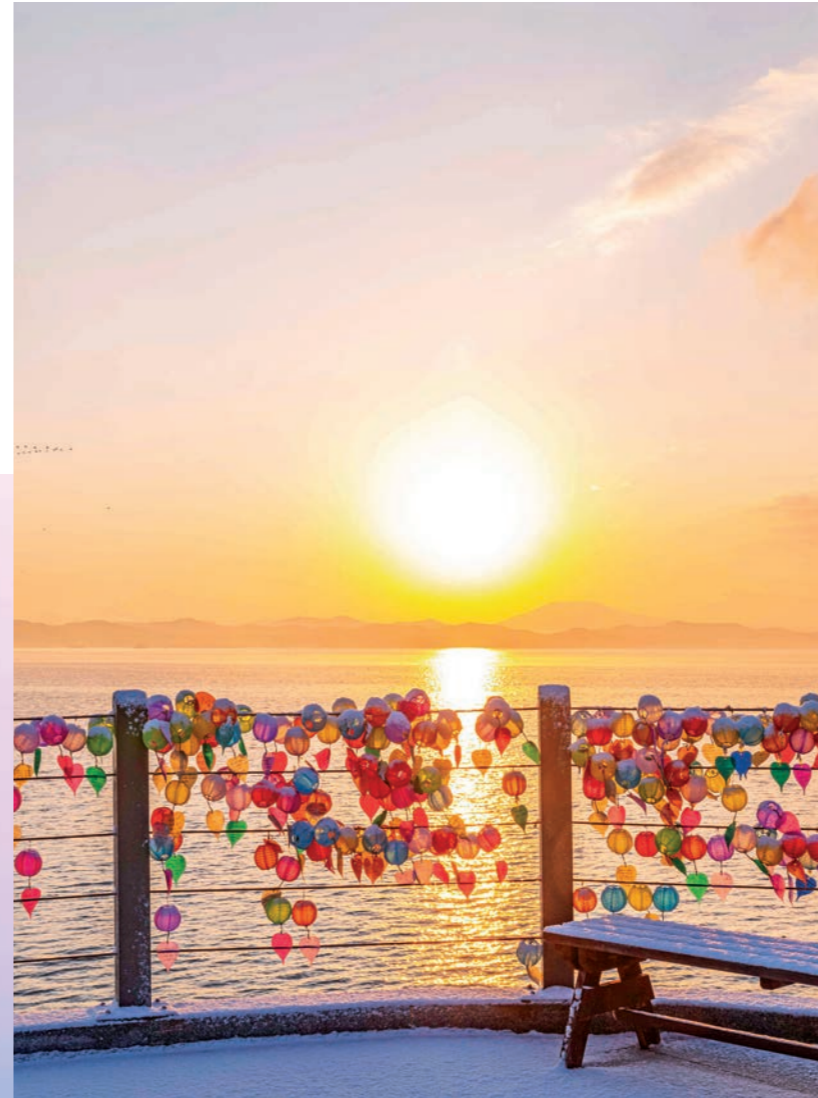


보령해저터널 너머, 원산도 한 바퀴

새로운 도로, 다리, 터널의 개통은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된 지리 감각에 기분 좋은 혼란을 가져온다. 2019년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 영목항을 잇는 원산안면대교 준공, 2021년 보령 대천항에서 원산도까지 닿는 길이 6927미터 보령해저터널 준공은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구간의 완전한 개통을 의미했다. 이는 무려 90분 거리를 단 10분으로 단축한 미술적 사건이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닿을 수 있었던 원산도 선촌항은 순식간에 낚시꾼들의 참새 방앗간이 됐고, 원산안면대교를 마주한 초전항 주변엔 전망 좋은 카페와 식당이 속속 생겨났다. 그래도 섬은 여전히 섬다운 풍광을 숨겨 둔 채다. 최고봉인 오로봉에 올라 이웃 섬 고대도·삼시도·장고도·효자도와 무수한 섬들을 굽어볼 때면 가슴이 열리고 눈이 환해진다.

원산안면대교 건너, 안면도 해변 트레일

태안 안면도는 빼어난 해변의 각축장이다. 파도와 바람이 만든 기묘묘한 해안 지형이 거대한 대지 미술을 완성했다. 이름은 또 얼마나 고운지. 셋별, 밧개, 두여, 바람아래... 자연물을 가리키는 어휘로 이루어진 데다 어감 또한 사랑스럽다. 장삼포와 황포항 사이에 펼쳐진 운여해변도 예쁜 지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구름운, 돌이름여.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자아내는 포말이 구름 같다는 뜻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해변 남쪽, 소나무를 죽심어 놓은 방파제가 이곳만의 고유한 풍광을 이룬다. 꽃지해변은 어떤가. 해당화가 지천으로 피어나 꽃지라는 이름을 얻은 이 해변엔 다정한 연인처럼 마주 선 할매바위, 할배바위가 있다. 밀물 때 헤어졌다가 썰물 때 한 몸처럼 이어지는 한 쌍의 바위. 발그레한 뺨처럼 물드는 노을빛이 낭만을 증폭한다.



서산방조제 따라, 간월도 해맞이

낙조는 서해안의 특산물이지만 일출도 그 못지않게 황홀하다. 이른 아침, 태안 당암포구와 서산 창리포구를 연결하는 서산방조제를 건너 간월도에 다다른 이유다. 자그마한 돌섬에 올라선 절집 간월암까지 들어가려면 바다가 가장 높이 차오르는 만조 시간을 피해야 하는데, 이런 수고로움이 이곳을 한층 신비롭게 한다. 간월암은 조선 초기 무학대사가 창건하고 1941년 만공 스님이 중건한 절로, 1980년대 천수만 간척사업 이전에는 배를 타야만 닿을 수 있었다. 간월도와 간월암의 옛 이름은 사바세계 저편 깨달음의 정토를 의미하는 불교 용어 피안에서 온 '피안도' '피안사'다. 세상과 단절된 듯 홀연한 간월암의 모습은 과연 피안의 아름다움이다. 해가 떠오르자 짙은 해무가 물러가고, 수백 마리 물새 떼가 하늘을 가로지르기 시작한다. 또한 번 새 아침이 밝아 온다.



④ 서해 미식회



겨울 굴맛

잘고 부드러운 서해 굴은 겨울 바다의 맛을 응축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이미 16세기부터 보령 천북 굴의 명성은 전국에 자자했고, 서산 간월도에서 유래한 어리굴젓은 한양에 바쳤던 진상품으로 이름 높았다. 간월암 인근에 자리한 부석면 '큰마을영양굴밥'은 해수로 세척하고 손질한 굴과 은행·잣·대추 등을 듬뿍 넣어 지은 굴밥, 바삭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굴전, 적당히 짭조름한 어리굴젓과 예닐곱 가지 밑반찬을 한 상 차림으로 선보인다.

주소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1길 65(큰마을영양굴밥) 문의 041-662-2706



간재미무침과 바지락칼국수

서해안 일대에서 '갱개미'라 부르는 간재미는 보령 9미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빼어난 풍미를 자랑한다. 혀에 착 감기는 차진 간재미는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데, 오이와 양파 등 채소와 갖은양념을 섞어 무침으로 즐기기도 좋다. 보령 원산도 초전항에 자리한 '바다내음식당'에 가면 먹음직스러운 간재미무침은 물론, 각종 해산물을 투하해 시원하게 맛을 낸 바지락칼국수를 즐길 수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자그마한 고깃배가 늘어난 풍경이 맛과 정취를 더한다.

주소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5길 89-19 (바다내음식당) 문의 041-936-6137

차오르는 서해안의 맛

비옥한 땅과 풍요로운 바다를 거느린 충남. 이 계절에 건져 올린 건강한 감칠맛을 소개한다.

한산소곡주와 한산소곡화주

백제 유민이 왕실의 비법으로 빚어 마셨던 한산소곡주는 1500년 역사를 간직한 서천의 명주다. 부드러운 보디감과 은은한 단맛 때문에 꿀꺽 꿀꺽 마셔도 취하는 줄 모른다. 오늘날 한산면에는 70여 개 양조장이 저마다 다른 맛과 개성을 지닌 한산소곡주를 생산하는데, 소곡주 갤러리를 운영하며 다양한 시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삼화양조장'의 존재감이 우뚝하다. 한산소곡주와 이를 증류한 한산소곡화주를 서천 특산물과 함께 맛볼 수 있다.



꽃게탕과 게국지

속이 짝 찬 태안 꽃게는 찜으로, 장으로, 탕으로 즐긴다. 최근엔 칼국수나 라면에 넣어 먹기도 하지만 재료가 하도 싱싱하니 어찌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게국지는 태안과 서산 일대에서 탄생한 향토 음식인데, 무·배추·고추 등 김장을 하고 남은 채소에 게장 국물을 넣어 숙성하는 것이 정석이다.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를 걷다가 몸을 녹이기 좋은 '어촌집'에서 꽃게탕을, 서산의 '진국집'에서 내주는 진짜배기 게국지 백반을 먹으며 녹진한 게 맛을 제대로 느껴 본다.

주소 태안군 원북면 신두로 727(어촌집), 서산시 관아문길 19-10(진국집) 문의 041-672-3392(어촌집), 041-665-7091(진국집)



계절의 낭만을 찾아서, 충남

보령에서 나고 자란 충남 사람, 김태홍 충남도지사가 겨울 충남에서 놓치면 안 될 즐거움을 귀띔해 주었다.
 충남 방문의 해, 바로 지금이 충남으로 떠날 기회다.



온화한 풍광을 지닌 충남은 겨울이면 유독 생각나는 지역입니다. 2월에 가면 더 좋은 충남 여행지, 어디일까요?

이 계절, 충남의 아름다움으로 가장 먼저 꼽고 싶은 것은 1200킬로미터 가량 펼쳐진 리아스식 해안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풍경이 특히 아름다운데, 만조 때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서산 간월암의 풍경은 언제 봐도 신비롭습니다.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는 잔잔한 겨울 호수의 정취를 한눈에 감상하게 해 줍니다. 소중한 이와 손을 맞잡고 다리를 거닐며 짜릿한 순간을 즐겨 보세요. 겨울 축제를 열어 눈썰매장과 얼음 분수를 운영하는 청양 알프스마을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순백의 설경을 감상하면서 이 계절의 감각을 오래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보령의 오섬 아일랜드(고대도, 삼시도, 장고도, 원산도, 효자도)를 비롯해 서해안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여행 문화 콘텐츠를 구성하고 계신데, 충남 바다의 자랑거리를 소개해 주세요.

충남 서해안 권역은 독특한 풍광과 황홀한 낙조, 신비로운 자연환경, 그리고 이색적인 즐길 거리로 여행자의 발길을 끌어 왔습니다. 오섬 아일랜드는 해양 스포츠와 액티비티 허브로 진화를 꾀하고 있어요. 2027년에는 '섬 비엔날레'를 개최해 예술적 감수성도 더할 계획이지요. 물안개가 드리운 신비의 섬 보령 외연도, 해돋이와 해넘이가 모두 아름다운 서천 마량포구 등 서해안이 지닌 매력적인 자원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충남은 독특한 환경과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자연을 보다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가 궁금합니다.

올해 개관 12주년을 맞은 서천국립생태원의 모토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테마별로 동식물을 만날 수 있도록, 충남의 대표적 생태 콘텐츠이지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장항스카이워크도 함께 들르면 좋습니다. 높이 15미터 전망대의 데크를 걸으면 싱그러운 숲과 환한 갯벌 풍경이 한눈에 담기거든요. 참, 이즈음 태안 천수만에 가 보셨나요? 주변 농지의 곡식을 먹으러 찾아오는 철새 떼의 군무가 황홀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최근 서해선 복선 전철 서화성역~홍성역 구간이 개통해 충남으로 가는 길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기차 여행자를 위한 코스를 제안해 주세요.

서해선 개통과 ITX-마음 운행으로 충남이 더 가까워졌지요. 기차역 근

방에 자리한 아산 외암민속마을은 돌담을 따라 들어선 고택들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마냥 건다 보면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어요. 유럽 소도시의 정취가 물씬한 아산지중해마을도 함께 둘러보면 좋습니다. 여정의 마지막은 예산 덕산온천에서 장식해야 합니다. 신라 시대부터 명맥을 이어 온 명소로, 따끈한 물에 몸을 녹이며 여독을 풀기에 제격입니다. 곧 할인 혜택과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강한 철도 여행 코스를 선보일 계획이니 기대해 주세요.

최근에는 축제를 즐기러 각 지역을 찾는 여행자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올 상반기, 어떤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상에 즐거움과 활기를 불어넣을 각양각색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는 고대 인류의 생활을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합니다. 즐길 거리, 체험 활동을 풍성하게 마련해 어린이 동반 여행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제철 딸기를 수확해 맛보고 딸기로 만든 여러 가지 먹거리를 즐기는 '논산딸기축제'도 충남을 대표하는 행사이지요. 꽃밭이 형형색색으로 화려해지는 때, '태안 세계튤립꽃박람회'가 열립니다. 계절과 자연의 색깔이 선명한 충남의 축제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충남은 바다와 산, 비옥한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 충남에서 꼭 맛봐야 할 특산물을 추천해 주세요.

충남 여행의 특별한 즐거움은 먹거리에 있습니다. 겨울 간식으로 널리 사랑받아 온 예산 사과와 달콤하고 아삭한 과육을 자랑합니다. 논산 딸기의 풍부한 과즙과 새콤달콤한 품미는 이 계절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고요. 서천의 별미는 한산 모시 갈국수와 모시떡인데, 고유의 향이 독특하고 매력적입니다. 천안을 넘어 전국적 인기를 누리는 병천 순대는 매콤한 양념장과 어우러져 감칠맛을 냅니다. 제 고향 보령을 찾는다면 신선한 해산물은 물론 고소하고 향긋한 대천 김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식 경험이 한층 풍부해질 거예요.



Chungnam: A Land of Boundless Beauty

I surrendered myself to the generous and gentle embrace of the western sea. Here unfolds the fullness of joy offered by six coastal cities along Chungnam's western seashore.

Walking Along Ripple Marks

Seocheon & Taeon Geological Journey

Follow the ripple-shaped marks carved by the wind as you walk through the Seocheon Getbol and Sinduri Coastal Sand Dunes in Taeon. Ever-changing snow clouds accompany this tranquil journey.

Snow has gently accumulated along the ripple marks, forming a vast abstract painting of endless curves. The canvas is none other than Seocheon Getbol, Korea's 13th Ramsar wetland and a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site. A mixture of mud and sand sustains a rich biodiversity, making it a haven and playground for countless forms of life. Hidden within the quiet mudflats are fiddler crabs, sentinel crabs, estuarine grapsid crabs, short neck clams, surf clams, and Gould's razor shells. The familiar presence of spot-billed ducks, mallards, spoonbills, and sandpipers undoubtedly graces these shores once again this winter.

The softly falling snow transforms into a fierce blizzard as it reaches the Sinduri Coastal Sand Dunes along the northern coast of Taeon Peninsula. Over 15,000 years, countless grains of sand have amassed to form towering hills. These expansive dunes naturally act as a barrier between the sea and land, protecting nearby villages and farmland. They also provide shelter for reptiles such as lizards and salamanders, along with halophyte plants like beach roses and Asiatic sand sedge. Even in this seemingly barren season, there is vibrant life unfolding beneath the surface.

Seocheon Getbol and Janghang Pine Forest Address San 58-48, Songnim-ri, Janghang-eup, Seocheon-gun, Chungnam

Contact 041-956-5505

Sinduri Sagu Center Address 201-54, Sinduhaebyeon-gil, Wonbuk-myeon, Taeon-gun, Chungnam Contact 041-672-0499

Between Sp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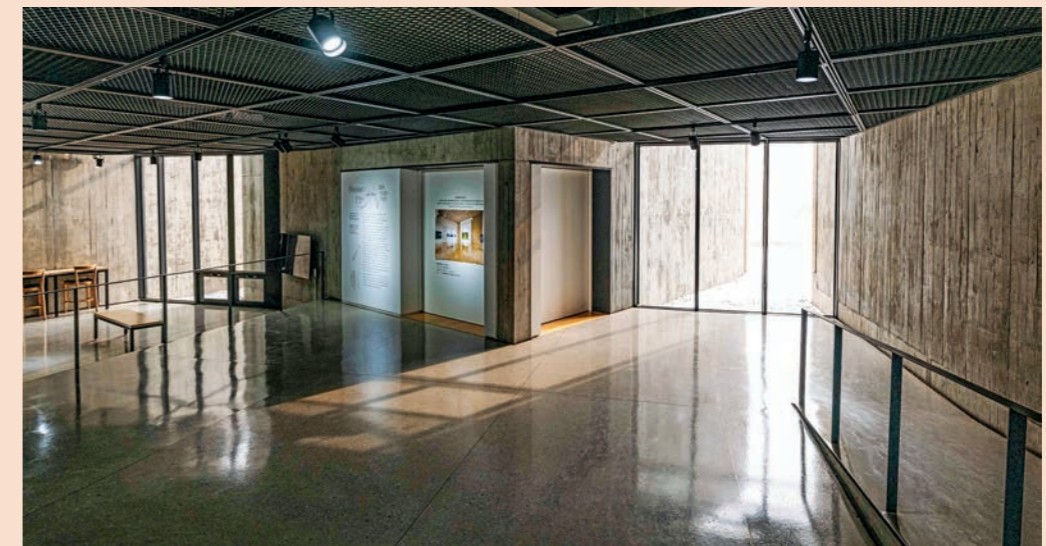
Architectural Walk in Hongseong & Dangjin

The term "Naepo," meaning an inland harbor, now encompasses the northwestern region of Chungcheong-do Province. This journey explores two architectural landmarks in the Naepo area: House of Lee Ungno in Hongseong and Sinri Shrine in Dangjin.

Amid the tumult of history, artist Lee Ungno left a lasting legacy with his distinctive series *Character Abstraction* and *People*. The House of Lee Ungno, a memorial built on his birthplace, offers a comprehensive look at his artistic journey. Designed by architect Cho Seong-ryong, the ochre-hued building harmoniously integrates with the land, appearing as if it naturally emerged from the earth—a reflection of Lee's challenging life. The exhibition hall, displaying key works and archival materials, invites visitors into quiet contemplation through its skillful interplay of light and shadow. In October 1845, Bishop Daveluy Antonio, who accompanied Korea's first Catholic priest Andrea Kim Dae-geon, set foot in this land and stayed in the Sinri area of Dangjin—then one of the largest Catholic communities. Often referred to as the Catacombs of Joseon, this location functioned as a secret missionary base, connecting Korea to the global Catholic network. In 2017, the Martyrdom Art Museum, designed by architect Kim Won, was erected here. The museum displays 13 martyrdom paintings by artist Lee Jong-sang. From the observation deck on the top floor, visitors can view restored structures, including a low-lying chapel, prayer hall, and the bishop's thatched house.

House of Lee Ungno Address 61-7, leungno-ro, Hongbuk-eup, Hongseong-gun, Chungnam Contact 041-630-9232

Dangjin Sinri Shrine Address 135, Pyeongya 6-ro, Hapdeok-eup, Dangjin-si, Chungnam Contact 041-363-1359



Connecting Dots

Island Journey through Boryeong, Taean & Seosan

Embark on a scenic drive to explore islands beyond islands, traveling from Wonsando Island in Boryeong through Anmyeondo Island in Taean to Ganwoldo Island in Seosan.

Since the completion of the Boryeong Undersea Tunnel in 2021—stretching 6,927 meters between Daecheon Port and Wonsando Island—the previously ferry-accessible Seonchon Port on Wonsando Island has become a favorite spot for avid anglers. Around Chojeon Port near the Wonsan-Anmyeon Bridge, cafes and restaurants with scenic views have sprung up. Yet, the island retains its untouched charm. From its highest peak, Orobong, you can gaze over neighboring islands like Janggodo, Godaedo, Sapsido, and Hyojado, alongside countless others, opening up your heart and eyes. Anmyeondo Island boasts a stunning array of beaches. Among them is Unyeo Beach, named for the cloud-like foam created as waves crash against the rocks. The southern section features a breakwater lined with pine trees, creating a distinctive landscape. Meanwhile, Kkotji Beach, famous for its profusion of blooming beach roses that inspired its name, is home to the iconic Grandma and Grandpa Rocks, standing together like a devoted elderly couple. The beach's glowing sunset further amplifies its romantic allure.

Though famed for its sunsets, the West Coast's sunrises are equally mesmerizing. This is why an early morning drive leads to Ganwoldo Island, connected by the Seosan Seawall between Dangam-ri in Taean and Chang-ri in Seosan. Perched atop this small rocky isle is Ganworam Hermitage, founded by the Great Monk Muhak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and rebuilt by Monk Mangong in 1941. Before the 1980s reclamation project of Cheonsuman Bay, the hermitage could only be accessed by boat. As dawn breaks, thick sea fog recedes, and hundreds of waterfowl begin crossing the sky, heralding the arrival of a brand-new day.



Rising Flavors of Chungnam

West Sea Gastronomy

Experience the fresh, briny flavors pulled from the waters off Chungnam, renowned for dishes such as eoriguljeot (spicy salted oysters), gegukji (blue crab and kimchi stew), and ganjaemi muchim (spicy raw skate salad).

The delicate and tender oysters of the West Sea capture the essence of winter seas. Historical records, including the *Sinjeung Donggukyeojiseungram*, reveal that Boryeong's Cheonbuk oysters gained nationwide fame as early as the 16th century, with eoriguljeot originating from Seosan's Ganwoldo Island listed as a tribute delicacy during the Joseon Dynasty. At Keunmaeul Yeongyang Gulbap in Buseok-myeon near Ganworam Hermitage, visitors can savor oyster rice cooked with meticulously washed oysters, ginkgo nuts, pine nuts, and jujubes. The meal is served alongside crispy yet tender guljeon (pan-fried battered oysters) and flavorful eoriguljeot, accompanied by a variety of side dishes. Taean's plump blue crabs are a treat enjoyed steamed, marinated in soy sauce, or served in soups and stews. The traditional local dish gegukji—born in the Taean-Seosan region—combines aged napa cabbage and radish with fermented crab broth for a unique, hearty flavor. Warm up after a walk along Taean's Sinduri Coastal Sand Dunes at Eochonjip with a bowl of kkotgetang (spicy blue crab stew), or enjoy a gegukji combination meal at Jinguksip in Seosan for a true taste of the sea. Another West Coast specialty, ganjaemi (deep-sea skate), is one of Boryeong's top delicacies. Its chewy texture and nutty, savory flavor deepen with each bite. Typically served as a salad mixed with cucumber, onions, and various seasonings, it is a refreshing dish perfect for seafood lovers. Badanaeum Restaurant at Chojeon Port on Wonsando Island offers not only delicious ganjaemi muchim but also bajirakkalguksu (noodle soup with clams) and bajiraktang (clam soup). No meal along the West Coast is complete without a sip of traditional liquor. Hansan Sogokju, a refined rice wine with a history spanning 1,500 years, was originally crafted by Baekje royals. Its smooth body and subtle sweetness have earned it the nickname "the sit-down drink." Hansan-myeon boasts around 70 breweries, including Samhwa Brewery, known for its Sogokju Gallery and tasting programs. Visitors can sample both Hansan Sogokju and its distilled counterpart, Hansan Sogokhwaju, paired with local specialties for a rich cultural experience.

Keunmaeul Yeongyang Gulbap Address 65, Ganwoldo 1-gil, Buseok-myeon, Seosan-si, Chungnam Contact 041-662-2706

Eochonjip Address 727, Sindu-ro, Wonbuk-myeon, Taean-gun, Chungnam Contact 041-672-3392

Jinguksip Address 19-10, Gwanamun-gil, Seosan-si, Chungnam Contact 041-665-7091

Badanaeum Restaurant Address 89-19, Wonsando 5-gil, Ocheon-myeon, Boryeong-si, Chungnam Contact 041-936-6137

Samhwa Brewery Address 21, Galsup-gil, Hansan-myeon, Seocheon-gun, Chungnam Contact 041-951-1894



겨울 포항, 다섯 가지 여행법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안둘레길을 걷고, 바다 전망 카페에서
오징어 모양 빵을 먹고, 옥색 바다 위에서 인생 사진을 찍는 시간.
경북 포항을 특별하게 여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작 지원 포항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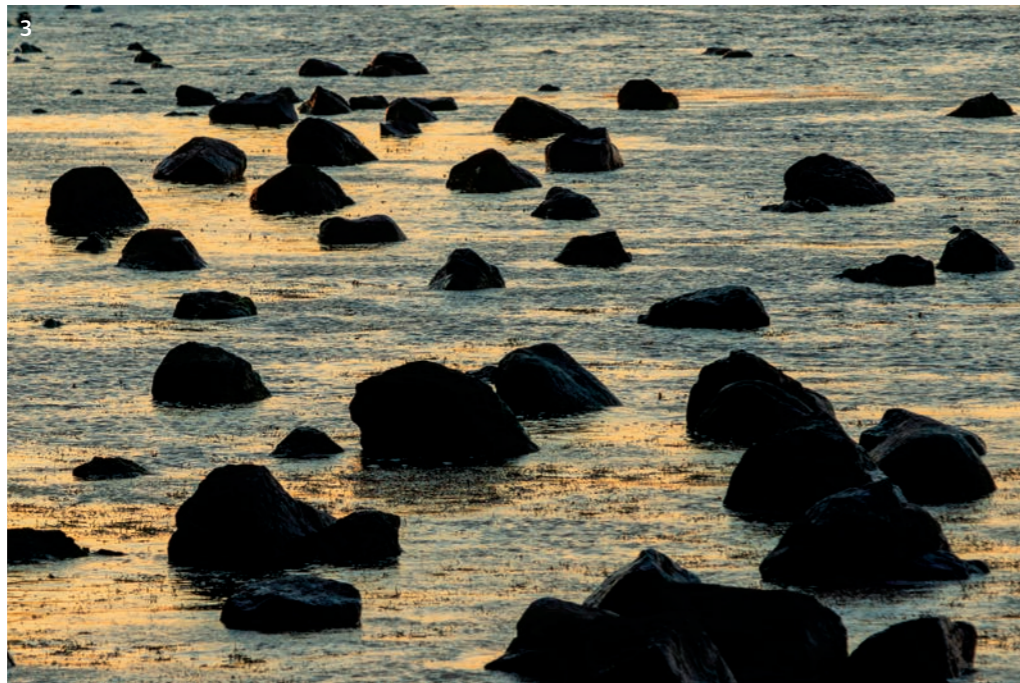
1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2코스 선바우길.
2 겨울바다가 길러 낸 파래. 3 선바우길 나무
덱에서 내려다본 해 질 녘 바다 풍경.
4 2코스 선바우길의 포토 존



1 |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

포항의 겨울 바다를 가장 생생하게 감상하는 방법은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을 걷는 것이다.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은 동해면과 구룡포, 호미곶, 장기면까지 해안선을 연결하는 트레킹 로드. 1코스 연오랑세오녀길, 2코스 선바우길, 3코스 구룡소길, 4코스 호미길로 이루어졌다.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을 걷다 보면 도구해수욕장과 하선대, 구룡소, 독수리 바위, 그리고 거대한 상생의 손이 동해의 아침을 맞는 호미곶을 차례로 만나게 된다.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2코스 선바우길이다. 동해면 해안가에 우뚝 선 높이 6미터의 선바우에서 시작하는 이 길은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드는 나무 덱을 따라 힌디기, 하선대, 흥환간이해수욕장으로 이어진다. 한편엔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다른 한편엔 폭포 바위, 아기발 바위 등 기묘묘한 바위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바위가 흰색을 띠는 것도 재미있다. 호미반도는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독특한 지형으로, 화산 성분인 백토가 굳어서 흰색을 띠는 바위가 되었다. 흰 언덕, 흰덕을 거쳐 지금은 힌디기로 불린다. 힌디기 안내판 근처에는 동굴이 하나 숨어 있다.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바다를 향해 난 커다란 타원형 입구 너머로 나무 덱과 해변이 한 장면에 잡혀 선바우길의 포토 존으로 사랑받는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 2790번길 20-18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포항역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1



3



4



5

1 포항수협활어위판장의 아침 경매 모습. 2 공치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말린 통과메기. 3 볼락, 가지미, 가오리 등 반건조 생선. 4 신선하고 맛있는 문어숙회. 5 속살이 통통하게 오른 홍게. 6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치는 죽도어시장.

2 죽도어시장 구경하고 제철 별미 맛보기

겨울 포항의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보고 싶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 죽도어시장으로 향하자. 영일만과 형산강이 만나는 곳, 포항운하를 따라 안으로 깊숙이 자리한 포항수협활어위판장에 가면 매일 아침 일찌감치 열리는 수산물 경매의 진풍경을 구경할 수 있다. 투명한 갈색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오징어와 주둥이가 뾰족한 은빛 학꽂치, 통통하게 살이 오른 삼치와 참치까지, 평상시 보기 어려운 광경에 눈이 번쩍 뜨인다. 위판장 어디선가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린다면 이제 곧 경매가 시작된다. 트럭에 실려 온 오징어와 참치가 보기 좋게 진열되면 번호가 적힌 모자를 쓴 중매인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순식간에 경매가 마감된다. 여기까진 경매사와 중매인의 무대. 경매가 끝난 수산물은 죽도어시장 소매상들의 손에 넘어간다. 제철 맛은 동해 수산물의 신선도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출출해진 배를 채우고 싶다면 죽도어시장 안쪽에 자리한 죽도시장으로 발길을 옮기자. 죽도시장은 점포 수가 1500여 개에 달하는 동해안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횡집만 무려 200곳이 넘는 먹거리 천국이다. 대게찜과 문어숙회, 과메기, 전복죽은 물론, 단돈 몇천 원에 속을 든든히 채울 수 있는 보리밥 백반과 수제비도 있다. 겨울철에 꼭 먹어야 하는 과메기는 죽도 시장 대표 메뉴다. 먹기 좋게 손질한 과메기에 채소와 초고추장을 곁들인 과메기 세트 하나면 포항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된다. 죽도시장에선 공치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말린 통과메기도 쉽게 볼 수 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길 13-3



2



6



3 | 롤러코스터보다 짜릿한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 걷기

영일대해수욕장 끝 뒷동산에 자리한 환호공원은 포항 시민의 쉼터이자 놀이터다. 포항시립미술관과 야외 공연장, 어린이 도서관 등이 들어서 있다. 평범했던 환호공원이 포항을 넘어 전국구 명소로 떠오른 것은 롤러코스터를 닮은 예술 작품, 스페이스워크가 들어선 후다. 2021년 포스코가 기획·제작·설치해 포항 시민에게 기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조형물이다.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는 환경과 테크놀로지, 인간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 독일 예술가 하이케 무터와 올리히 겐츠의 작품이다. 높이 24.5미터, 트랙 길이 333미터, 계단 수 717개인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두 다리로 계단을 올라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 관람객이 작품의 일부로 녹아들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빛과 철의 예술품이다. 줄이 길게 늘어선 입구를 지나 몇 걸음만 가면 두 갈래 길이 나오고, 이내 아슬아슬한 떨림을 안겨 주는 가파른 계단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진다.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의 별칭은 클라우드(Cloud). 말 그대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에 순간순간 아찔해진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페이스워크를 한 발 두 발 걸다 보면 드넓은 모래사장과 윤슬이 반짝이는 영일대해수욕장이 한눈에 담긴다. 참고로 스페이스워크의 정중앙을 차지한 360도 회전 구간은 조형미를 극대화한 작품의 일부일 뿐 실제로 사람이 오를 수는 없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 30



4 바다 전망 카페에서 유유자적하기

창밖으로 펼쳐진 동해 바다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싶다면 바다 전망 카페로 향하자. 호미곶면과 영일만, 이가리항으로 이어지는 해안 도로를 따라 개성 넘치는 카페가 늘어서 있다. 바다 전망 카페를 테마로 포항 여행을 해도 2박 3일이 모자랄 정도. 그중 가장 박력 넘치는 겨울 바다를 보고 싶다면 '오딘'을 추천한다. 화진해수욕장에서 영덕으로 향하는 동해대로에 자리한 오딘 앞에는 검은색 몽돌해변이 비밀스럽게 자리해 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포효하는 듯한 호랑이 바위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촬영 장소. 호랑이 바위 아래에 서면 빨간색 등대가 한 화면에 들어와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된다. 바다를 향해 계단식으로 난 좌석도 매력적이다. 대형 스크린이 걸린 극장에 온 기분으로 무한히 상영하는 '바다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몽돌을 꼭 닮은 '몽돌 흑임자'와 버터의 풍미가 일품인 '잠봉볶르'가 인기 메뉴다. 여기서 도보 1분 거리에는 일출 명소이자 인기 베이커리 카페인 '리블랑'이 있다. 통유리창 밖으로 동해의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수심 중의 빵과 케이크가 식욕을 자극한다. 그중 소시지빵 '동해 오징어 한마리'와 큐브 모양 페이스트리 '큐블랑'은 꼭 먹어야 하는 시그너처 메뉴다. 구룡포에 있는 오이아 카페도 추천한다. 그리스 산토리니를 연상케 하는 이곳에는 테라스, 계단, 구름다리 등 이색적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장소가 숨어 있다. 에이드, 스무디, 라테 등 음료는 물론 파스타, 피자 등 식사 메뉴도 훌륭하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 3320(오딘),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266(오이아 카페)



1 몽돌해변에서 바라본 오딘. 2 호랑이 바위 아래서 사진을 찍으면 빨간 등대가 한 화면에 담긴다. 3 오딘의 실내 풍경. 4 리블랑에서 바라본 동해 바다. 5 리블랑의 인기 메뉴 '동해 오징어 한마리'. 6 그리스 산토리니를 닮은 오이아 카페. 7 오이아 카페의 인기 메뉴 '몽돌 흑임자'. 8 오딘의 인기 메뉴 '몽돌 흑임자'.



1



2

1 하늘에서 바라본 이가리 닻 전망대. 닻 모양의 나무 데크가 인상적이다. 2 국내에서 가장 긴 포항 해상 스카이워크. 총 길이 463미터에 달한다.

5 | 해상 전망대에서 인생 사진 찍기

겨울철 동해 바다는 유독 색이 짙푸르다. 또 바람이 거셀수록 파도는 더 드라마틱한 장면을 만들어 낸다. 시간대에 따라 바다가 영롱한 옥색을 띠기도 하고, 검은색에 가까운 코발트블루를 띠기도 한다. 신비롭게 변주되는 바다 색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상하는 방법은 해상 전망대로 가는 것이다. 그중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은 이가리 닻 전망대. 포항에서 영덕으로 가는 해안길, 이가리간이해변 옆에 높이 10미터, 길이 102미터 규모의 이가리 닻 전망대가 자리해 있다. 바다를 향해 놓인 나무 데크를 따라 걸어가면 빨간색의 등대 모양 설치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전망대 난간 아래로는 바닷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투명한 바닷물이 일렁일렁 춤을 춘다. 이가리 닻 전망대가 유명해진 건 배의 닻을 꼭 닮은 모양 때문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닻 하나를 톡 던져 놓은 모습이다. 전망대에서 이어지는 계단을 따라 해변으로 내려가면 나무 데크 받치고 있는 흰색 기둥과 함께 하얗게 포말을 일으키며 바위에 부딪쳐 부서지는 파도를 볼 수 있다. 환호공원에서 해안 도로를 따라 여남동 방향으로 가면 바다를 향해 구불구불 이어진 포항 해상 스카이워크가 나온다. 높이 7미터에 길이 463미터로 전국에서 가장 길다. 스카이워크 중앙에는 인공 암석으로 조성한 깊이 1.2미터의 해수풀이 있는데, 여름철 해수욕장이 개장하면 수영장으로 이용한다. 스카이워크 전망대에 서면 건너편으로 죽도시장과 포스코, 호미곶해맞이공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산67-3(이가리 닻 전망대),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 518 (포항 해상 스카이워크)

Five Ways to Enjoy Pohang in Winter

The colder the winter winds blow, the more vibrant and enchanting Pohang becomes. Here are five travel experiences unique to this beautiful coastal city.

1 Walk the Homibando Peninsula Coastal Trail

The best way to immerse yourself in Pohang's winter seas is to walk the Homibando Peninsula Coastal Trail. This scenic trekking route connects the coastal areas of Donghae-myeon, Guryongpo, Homigot Cape, and Janggi-myeon. The trail is divided into four courses: Yeonorang Seonyeo-gil (Course 1), Seonbau-gil (Course 2), Guryongso-gil (Course 3), and Homigil (Course 4). As you walk along the trail, you'll encounter breathtaking sights such as Dogu Beach, Haseondae, Guryongso, Eagle Rock, and the iconic Sangsaeng's Hand sculpture welcoming the sunrise at Homigot Cape. Among the four, Seonbau-gil (Course 2) is the most popular. Beginning at Seonbau, a towering 6-meter-high rock formation on the Donghae-myeon coast, this route offers a surreal experience as you stroll along wooden decks that seem to float over the sea. The path continues past Hindigi, Haseondae, and the small yet charming Heunghwan B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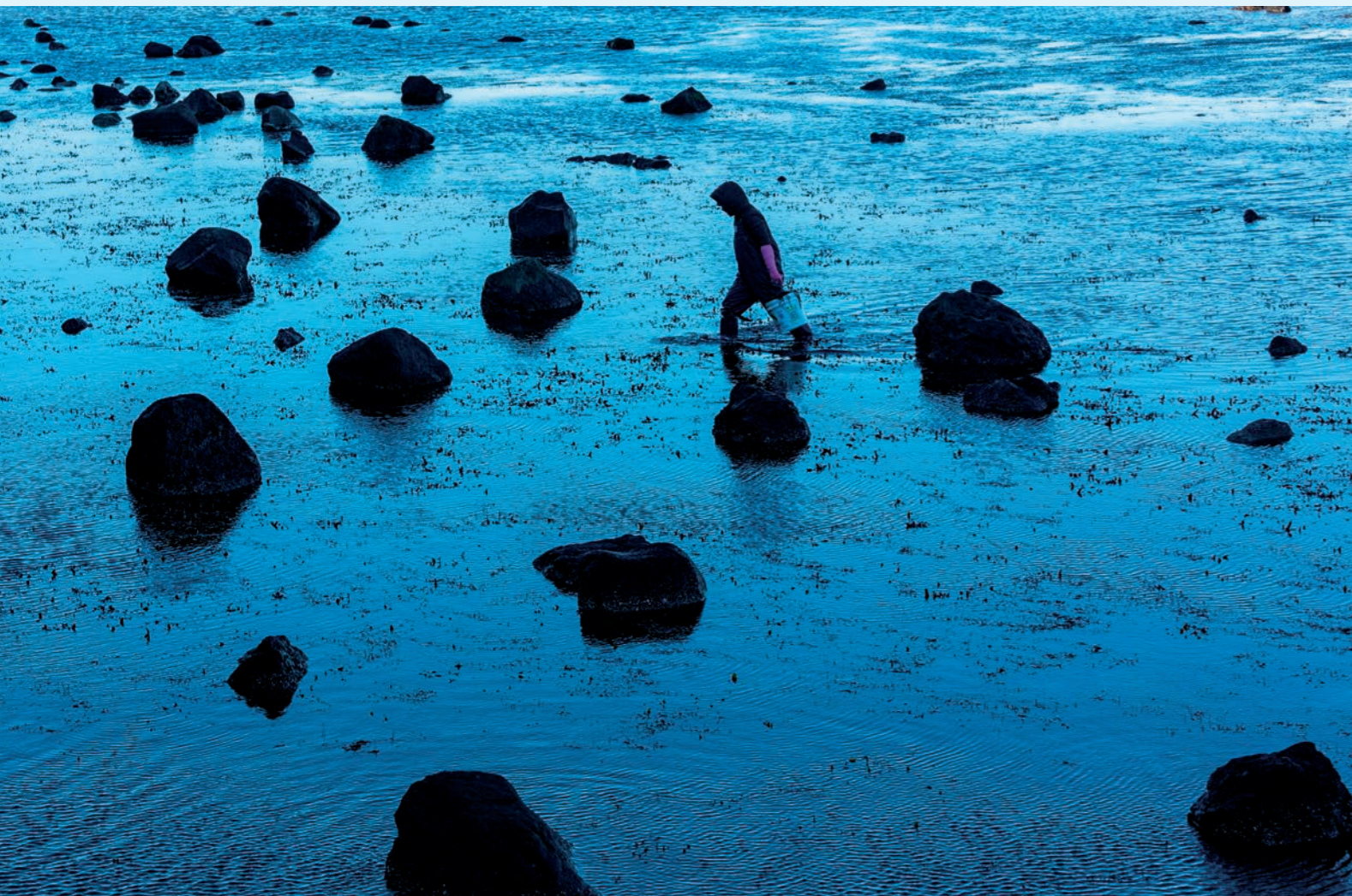


2 Savor Seasonal Delicacies at Jukdo Fish Market

For a taste of Pohang's vibrant winter scene, start your day early at Jukdo Fish Market. Nestled at the meeting point of Yeongilman Bay and Hyeongsangang River along the Pohang Canal, the Pohang Suhyup Auction Hall comes alive every morning with bustling seafood auctions. Here, you'll see glistening squid in translucent brown hues, silver halfbeaks, plump spotted mackerel, and fresh tuna—all a rare sight for everyday visitors. The ringing of a bell signals the start of the auction, and soon auctioneers wearing numbered caps swarm around neatly displayed seafood fresh off delivery trucks. Within moments, the bidding frenzy concludes. After watching the excitement, satisfy your appetite by heading inside Jukdo Market. You'll find an array of delicious offerings, from steamed snow crab and parboiled octopus to abalone porridge and gwamegi (half-dried saury). Affordable yet hearty options like boribap (steamed barley rice) sets and sujebi (hand-torn dough soup) are available for just a few thousand won. Don't miss out on gwamegi, the market's signature winter specialty. Paired with fresh vegetables and a tangy chogochujang (sweet and sour chili paste), a platter of this delicacy will elevate your Pohang travel experience to the next level.

3 Walk the Space Walk at Hwanho Park

Hwanho Park became a nationally renowned destination with the addition of its roller coaster-like artwork, Space Walk. Designed and donated by POSCO in 2021, this interactive sculpture is the largest of its kind in Korea. Created by German artists Heike Mutter and Ulrich Genth, who explore themes of environment, technology, and humanity, the structure stands at a height of 24.5 meters, spans 333 meters in track length, and includes 717 steps. Entering the artwork requires courage, as visitors must ascend the stairs and step directly into the structure to experience its full artistic vision. Known by the nickname "Cloud," the Space Walk offers a thrilling sensation akin to walking on air. With each step, you'll be captivated by sweeping views of Yeongilman Beach, where shimmering waves meet expansive sandscapes—a breathtaking reward for your bravery.





4 Enjoy Ocean Views at Scenic Cafés

If you want to relax while gazing at the East Sea, head to an ocean-view café. For a truly dynamic view of the winter sea, Odin comes highly recommended. Located along Donghae-daero on the route from Hwajin Beach to Yeongdeok, the café boasts a hidden black pebble beach right in front. The Tiger Rock, resembling a roaring tiger, is the most popular photo spot here. Stand beneath the rock, and a red lighthouse naturally frames the scene, creating a captivating photo opportunity. The café's terraced seating faces the sea, giving visitors the feeling of watching a movie on a grand screen, with the ocean as the ever-changing film. For a café with a more exotic ambiance, visit OIA Café near Boritdolgyo Bridge in Guryongpo. Painted in white and blue, it evokes the charm of Santorini, Greece. In addition to beverages like ades, smoothies, and lattes, the café also serves excellent meals, including pasta and pizza.

5 Capture Stunning Photos from Ocean Observatories

In winter, the East Sea becomes a deep, rich blue, offering mesmerizing hues that shift like a natural symphony. The best way to enjoy these captivating colors up close is by visiting an ocean observatory. Start with the Igari Anchor Observatory Standing 10 meters tall and extending 102 meters out to sea, it features a charming red-roofed lighthouse and a wooden deck that stretches toward the horizon. The crystal-clear water below offers a dazzling view of the underwater world as waves lap against the shore. The observatory is famously shaped like an anchor, making it look from above as though a giant anchor has been casually tossed into the emerald sea. Another must-visit is the Hwanho Park Coastal Skywalk, which snakes along the coastline toward Yeonam-dong. At 7 meters high and 463 meters long, it holds the record as the longest coastal skywalk in Korea. At its center lies a 1.2-meter-deep natural seawater pool built with artificial rocks, doubling as a swimming pool during the summer beach season.





두 도시 이야기 상하이·쑤저우 하루 여행

중국 양쯔강 이남의 강남 지역을 대표하는 두 도시, 상하이와 쑤저우를 고속철로 여행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에서 온 제비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강남'은 서울 강남이 아닌 중국 양쯔강 이남 지역을 뜻한다. 강남은 예부터 굽이굽이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융성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두 도시, 상하이와 쑤저우는 선명한 개성과 고유한 매력으로 여행자를 불러 모은다. 도시 간 거리는 100킬로미터가량이지만 고속철로 25분이면 주파할 수 있어 당일치기로 둘러보기에 더할 나위 없다. 상하이의 웅장한 기차역에서 북적거리는 인파의 일부가 되어 열차에 오른 뒤, 상하이에서 쑤저우로 변해 가는 풍경을 낚 놓고 바라보는 여행. 대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단숨에 통과하는 시간이다.





1 유럽풍 건축물이 늘어난 와이탄의 이국적인 거리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다.
 2 겨울이면 와이탄위안·록번드의 예배당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난다.
 3 상하이 와이탄위안·록번드의 시작이었던 YWCA 건물에 대한 안내문.
 4 거미줄처럼 이어진 상하이의 거리는 자전거로 여행하기에도 제격이다.



상하이의 아름다움은 혼재에 있다. 이 도시를 대표하는 거리인 와이탄(外滩), 신텐디(新天地), 루자쭈이(陆家嘴), 판룽톈디(蟠龙天地)에 가면 동서양이 뒤섞인 기묘한 경관을 맛닥뜨린다. 뿌리가 다른 문물이 얽혀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것이다.

혼재의 미, 와이탄위안·록번드

아름다움의 시작은 아픔이었다. 1842년 난징조약 이후 상업 거래를 위한 다섯 개 개항장에 속한 상하이에는 사람, 자본, 문화가 순식간에 흘러들었다. 식민지 확장에 혈안이 된 열강은 땅을 조각조각 나눠 조계지를 설정하고 각자의 양식으로 건물을 세워 올렸다. 새로운 드림랜드에 다다른 서양인, 먹고살기 위해 일거리를 찾는 청나라 사람들, 더 나은 조국의 미래를 꿈꾼 신중국 지식인들이 와이탄과 난징동루에 모였으니 아편과 성경, 금과 달러, 인력거와 자동차, 바이올린과 비파, 바오쯔와 빵, 커피와 차, 포커와 마작 등 이질적인 것들이 공존하기 시작했다. 이 만남은 격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새로운 문화를 일구어 냈고, 오늘날 국제 도시 상하이의 특색과 전통으로 자리매김했다.

상하이는 이러한 상흔을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확실하고 공고한 자산으로 만들었다. 역사의 현장을 유지·보수하고, 인문학적 요소로 활용하며, 이곳에 인기 브랜드를 입점시켜 시대정신을 반영한 '핫 플레이스'로 꾸몄다. 대표적인 곳이 와이탄위안(外滩源)·록번드(洛克)다. 화려한 네온사인과의 인과가 넘쳐나는 난징동루에서 잠시 옆길로 새면 우아한 기품이 흐르는 이 거리에 다르다. 상하이에서 가장 인기 좋은 브랜드와 카페가 빼곡히 들어섰기에 어딜 들어가도 만족스러운 지역이다.

영국 대사관저를 중심으로 출판사와 극장, 예배당 등이 자리하던 곳을 록번드라 명명하고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 끝에 건축 박람회, 크리스마스 마켓, 전시와 공연 등이 열리는 문화·상업 공간이 탄생했다. 중국 문화 루쉰이 흑백의 미키마우스 영화를 관람하던 극장은 오늘날 전 세계 예술가들의 전시장이 됐다. 다양각색 공연이 펼쳐지고, 겨울이 되면 마당에선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 온 건물들은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적 브랜드의 공간으로 현대인의 삶에 취향과 가치를 선사한다. 천천히 구석구석 돌아보며 혼재의 미를 만끽한 뒤엔, 예배당에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강변으로 걸어가 아치형 다리에 오를 차례. 뒤편엔 웅장한 우체국 박물관이, 전면엔 황푸강 너머로 화려한 고층 건물이 펼쳐진다. 동서양이 뒤섞인 문화에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 개념까지 포개지는 순간이다.

와이탄위안·록번드를 여행한다면

- 루너스(Luneurs)**
중국대륙 곳곳에 지점을 확장하고 있는 카페로, 맛있는 프랑스식 브런치를 낸다. 프랑스 화교 주인장이 남다른 솜씨를 자랑한다.
- 탕췌(塘所)**
베이징에서 출발해 상하이로 진출한 디지털 상점이다. 중국 전통과 문학을 콘셉트로 디지털트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든다.
- 나이프 커피 바 (Naive Coffee Bar)**
커피와 술과 책으로 이루어진 작은 은신처. 동굴같은 책장이

-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곳곳에 인생 철학이 담긴 글귀가 새겨져 있으니 번역 앱을 활용해 볼 것.
- 바사오 티(Basao Tea)**
감도 높은 차기와 엄선한 차를 경험하는 공간. 따로 마련된 티테이블에서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차를 음미하는 느긋한 시간을 보낸다.
- 오토 에 메초 봄바나 (Otto e Mezzo Bombana)**
12년간 미쉐린 스타를 유지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음식은 물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치마저 아름답다. 상호는 '8과 2분의 1'이라는 뜻.



© VTT Studio / Shutterstock.com

과야경의 운치가 남다르니 오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상하이 길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다. 가로수가 이어지는 시내의 모든 길이 카페 골목이자 먹자 골목, 걷고 싶은 거리다. 가로수길 곳곳마다 동서양의 장점을 취해 자신의 것으로 영리하게 소화한 상하이 청년들의 충천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상하이 여행의 최신 키워드가 '시티 워크(city walk)', 도시 산책인 이유다. 세련되고 개성 있는 상점가와 아무렇지 않게 빨래를 널어 놓은 주택가의 기막힌 조화가 궁금하다면 다음 목록을 기억해야겠다. 조용하고 운치 있는 난창루(南昌路), 허름함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용강루(永康路)와 자산루(嘉善路), 상하이 현지 젊은이들의 취향과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옌칭루(延庆路)·푸민루(富民路)·산시난루(陕西南路)··· 저마다 자신만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길이 여럿이다. 커피 애호가라면 골목 골목에 숨어든 작은 카페를, 유행에 민감한 힙스터라면 굿바이(Goodbai)와 룩온(Look On)으로 대표되는 멋스러운 편집숍을 탐방하는 것이다. 두 다리가 허락하는 한, 거미줄처럼 교차하는 가로수길을 종횡무진 누벼 보기를.

도시 재생 구역과 가로수길을 여행한다면

매너 커피 Manner Coffee
웨스트 번드 시안에 있는 카페. 전망 좋은 자리에 독채로 들어서 여유롭게 즐기길 좋다.

메탈 핸드스 Metal Hands
달걀 프라이처럼 생긴, 고소한 시그너처 라테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난창루에 간다면 놓쳐선 안 될 곳으로, 규모는 작지만

루이비통 같은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는 인기 로컬 카페다.

테킬라 에스프레소 Tequila Espresso
용강루와 자산루의 교차점, 철물점과 과일 가게 사이에 아담한 카페가 남다른 존재감을 내뿜는다. 찬우유에 에스프레소를 더한 '더티'가 베스트셀러다.

오늘과 맞닿은 도시 재생의 풍경

동양과 서양, 어제와 오늘이 교차하는 상하이의 도심 풍경은 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마칩 도심 곳곳에는 지난 10년간 진행된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중이다. 미래적인 스카이라인과 19세기 유럽 건축물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베이와이탄(北外滩)도 그중 하나. 제2차 세계대전 때 학살을 피해 이곳으로 온 유대인 난민이 첫발을 디딘 곳이며, 대륙 정복의 야망을 품고 상하이를 침공한 일본군의 진입 경로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베이와이탄 일대에서는 두 거사의 흔적 위에 쌓아 올린 지금의 상하이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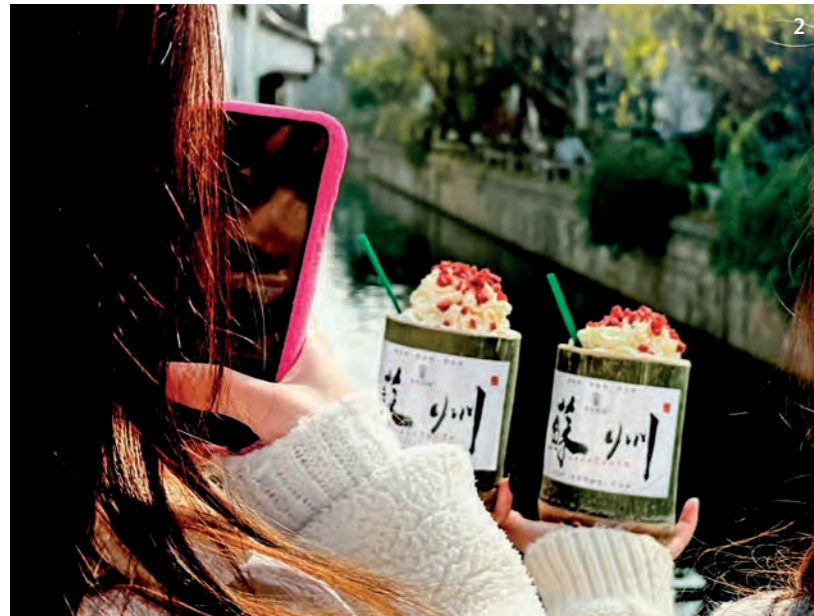
황푸강 서남쪽에는 풍피두 센터부터 탱크 상하이까지 거느린 예술적 밀도가 높은 동네, 웨스트 번드 시안(西岸)이 있다. 기차역과 부두로 쓰던 이곳은 공원으로 거듭나면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처가 됐다. 변화가 난징시루(南京西路)의 초대형 스타벅스 리저브드 근처에 가면 상하이 전통 가옥인 스쿠먼 단지를 개조한 장위안(张园)이 나온다. 과거 거주지였던 장위안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번듯한 상업 공간이자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 세계적 브랜드의 매장이 들어서고 있다. 자동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수향마을에 자리한 신개념 쇼룸이자 문화 공간인 판룽텐디(蟠龙天地)도 주목할 만하다. 오랜 역사를 지닌 이곳은 노을



1 오랜 역사를 간직한 수향마을 판룽텐디. 물길을 따라 산책을 즐기길 좋다. 2 매력적인 커피 문화를 발견하는 시간. 입맛에 맞는 카페를 찾는 즐거움을 누리보자. 3 상하이 건축의 전통을 보여주는 스쿠먼 단지에 최근 글로벌 브랜드가 속속 입점하고 있다.



1 도시의 랜드마크, 쑤저우 박물관 외벽을 그림으로 장식했다. 하얀 벽과 검은 기와가 쑤저우 특유의 경관을 완성한다.
2 대나무 통에 담아 구수 지역의 전통적 특색을 잘 드러낸 디저트. 3 아기자기한 전통 가옥이 늘어선 구수 거리의 상징.
4 향미가 흐드러지는 에스프레소 카페 '딩'의 외관. 붉은 벽돌의 질감을 잘 살렸다.



장쑤성의 고도 쑤저우의 별칭은 '물의 도시'다. 제주도가 통째로 들어갈 만큼 거대한 타이후를 비롯, 크고 작은 호수와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넉넉한 수자원은 풍요와 부, 융성한 문화를 일궜다. 송대에 발전하기 시작해 명·청 시대에 꽃을 피운 정원 문화의 정수가 쥐정위안(拙政園)에 남아 있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부르는 쑤저우 오페라와 비파 연주가 평장루(平江路)와 산탕제(山塘街) 같은 옛 동네 곳곳에서 울려 퍼진다.

유장한 역사의 물길 따라, 쑤저우 한나절 산책

근현대사 위에 새로운 풍경이 중첩된 상하이와 달리, 쑤저우는 옛것과 새것의 경계가 엄연하다. 전통과 역사의 장인 구수가 구수(姑苏), 도회적인 마천루로 이루어진 신시가지 진지후(金鸡湖) 일대에서 그대조적인 모습이 발견된다.

강남의 고아한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구수로 간다. 700년 역사를 간직한 변화가 관취안제(观前街)에는 도교 사원 쉬안묘오관(玄妙观), 명나라 때부터 450년 업력을 이어 온 쏘가리튀김 전문점 더웨이우(得月楼) 등 100년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 유서 깊은 명소가 가득하다. 남송 시대 문화를 간직한 평장루(平江路)는 초록빛이 선연한 작은 강을 따라 이어진다. 하얀 벽과 검은 기와가 특징인 쑤저우의 전통 가옥 거리에 닿자 탐스러운 먹거리와 볼거리가 끊임없이 발길을 유혹하는데, 빛바랜 벽 너머로 들려오는 비파 연주 소리가 잠시나마 마음을 가라앉힌다.

평장루 근처엔 쑤저우 박물관(苏州博物馆)이 있다.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를 설계한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이오밍 페이가 디자인했다. 쑤저우를 대표하는 색인 흰색과 검은색으로 모던한 외관을 구현하고, 곳곳에 쑤저우의 정원과 전통적 요소를 담았다. 전통시장을 쾌적하게 정비한 쌍타시장(双塔市集)에서 팔죽과 텀게 등 쑤저우의 다양한 향토 음식을 맛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커피나 디저트가 궁극한 이에겐 스취안제(十全街)의 옛 건물에 입점한 감각적인 레스토랑과 카페를 추천한다.

진지후(金鸡湖) 주변은 쑤저우의 수많은 호수 중 개발 구역으로 선정되어 신도시로 거듭났다. 바지를 닦아 '바지 건물'이라 부르는 쑤저우의 랜드마크 동광즈먼(东方之门)을 주축으로 호숫가를 따라 늘어선 최고급 호텔, 대형 쇼핑몰과 서점, 공연장 등 문화 시설을 찬찬히 둘러본다. 작은 호사를 누리고 싶다면 진지후 주변 호텔에서 하루밤 묵어도 좋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호수를 따라 공유 자전거를 타고, 타는 듯한 노을과 반짝이는 빌딩 불빛을 발아래로 굽어보는 것이다. 삶의 기쁨이 멀리 있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구수와 진지후를 여행한다면

이츠화위안(一尺花园)
쑤저우 전통 가옥의 골조를 그대로 간직해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카페로 평장루에 자리한다.

홍루우(红楼)
스취안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간식은 시원하고 달콤한 젤라토.

남다른 감각으로 상하이까지 진출한 젤라테리아를 만나 본다.

대형 체인 호텔
진지후 주변 포시즌스, 더블유, 상그릴라 등 유명 브랜드 호텔은 상하이보다 숙박비가 20퍼센트 가량 저렴하다.

알아 두세요

가는 방법

한국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직항 노선이 운항한다. 인천국제공항과 푸둥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과 홍차오국제공항이 연결되며 비행 시간은 약 2시간이다.

교통편

상하이와 쑤저우 간 거리는 약 100킬로미터다. 고속철로 약 25분, 자동차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소요된다.

철도 이용법

① 상하이 출발 기준으로 시내에서 가까운 것은 상하이역이다. 홍차오역은 홍차오 국제공항과 연결되어 있다. ② 기차명 앞에 'G'라고 표시한 것이 고속철이며, 좌석 등급마다 가격이 다르다. ③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여행 앱을 이용하면 한국어로도 예약 가능하다.

즐길 거리

① 일몰 무렵 상하이 타워 전망대에 올라 도시 전체가 노을빛에 물든 모습을 감상한다. ② 상하이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해 명소를 편안하게 둘러본다. 조명이 화려한 저녁 시간에 버스를 탑승해 2층 높이에서 한층 가까이 야경을 즐긴다. ③ 쑤저우 옛 거리 산탕제나 평장루에서 송나라 복식을 체험해 본다.

떠나기 전에

현지 문화와 트렌드, 역사와 전통을 아우르는 여행 에세이 <상하이, 너를 위해 준비했어>를 일독하고, 저자 농호 상하이의 인스타그램(@nongho_shanghai)에서 여행의 영감을 얻는다.



숲이라는 집

겨울은 숲이 한 해를 치열하게 버틴 흔적이 드러나는 계절이다. 숲 해설가 이서영이 서울 성미산의 나무가 지나온 시간을 들려주었다.



1



2

1가지에 코르크질의 날개가 달린 화살나무.
2 질감이 뽀뽀한 갈참나무 잎. 3 '하늘 보기 거울'에 나무를 비춰 색다르게 관찰한다.
4 숲 해설 프로그램 참여자는 관찰 일지를 쓴다. 나무 이름을 붙이고 발견한 특징을 나열한다. 5 향나무를 소개하는 이서영 숲 해설가.



3



4

숲에 들어서면 집에 온 것 같다는 사람이 있다. 숲에서 해설하면 집에 손님을 초대할 기분이 든다고 말하는 이가 가방에 짐을 한가득 담아 왔다. 손님이 눈앞 풍경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도록 관찰 도구를 하나씩 꺼낸 뒤 차례대로 나무를 소개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숲 해설가 이서영을 만났다.

성미산으로 향하는 마음

숲 해설가는 자연과 사람을 이어 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숲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지 설명하는 사람이다. 어릴 적부터 생태 관련 책을 좋아한 이서영은 도시 곳곳에서 마주하는 나무를 다룬 책 <서울 사는 나무>를 통해 숲 해설가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다. 정갈하게 다듬어 실내에서 기르는 식물보다 야생에서 일관성 없이 자라는 식물에 더 흥미를 느낀 그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 2021년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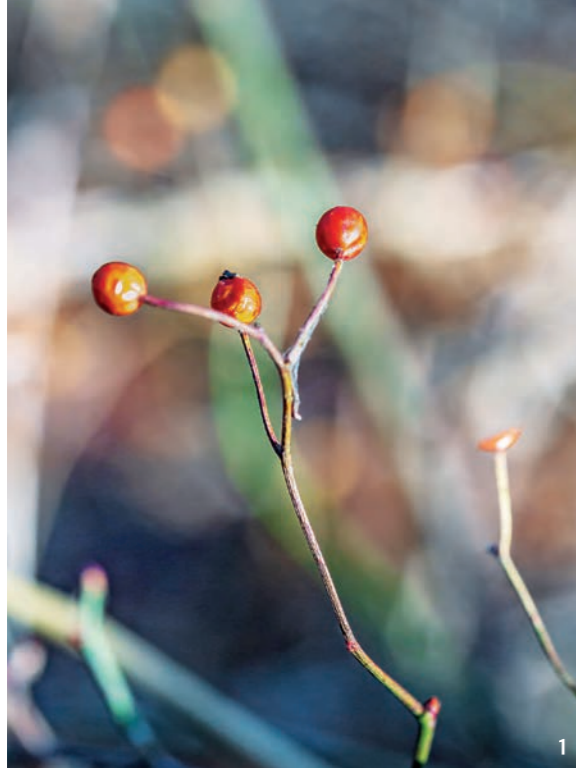
과천의 마타리숲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 숲의 매력을 알렸다. 현재 성인 대상 해설 프로그램을 열어 숲은 온 몸으로 느낄 방법을 전하고, 자연 재료를 이용한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이서영 숲 해설가에게 산을 오르다는 건 정상을 향해 가는 여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몇 걸음 가서 나무를 들여다보고 기록하기를 반복하며 숲과 친해지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 꼭 크고 높은 산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가 집과 가까워 즐겨 찾는다는 단작 같은 산, 성미산을 함께 오르기로 했다.

성미산은 서울 마포구에 자리한 해발고도 66미터의 작고 낮은 산이다. 원래 이름은 성산인데, 배수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할 때 성미산이라 불렀고 이후 지역 행사나 언론 보도에 같은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미산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성미산의 '미'는 피산(山)의 '피'가 변한 발음이라 뜻이 중복된 표현이지만 마을 공



5



1 붉은빛을 띠는 짚레나무 열매. 2 주목은 매우 천천히 자라고 오래 산다. 사계절 내내 초록빛을 띠는 침엽수다. 3 이서영 숲해설가가 사용하는 압화 도구. 표본지에 식물을 올리고 골판지로 덮어 층층이 쌓는다.

동체인 성미산마을이 생겨난 지 벌써 30년이 넘은 데다 성미산학교, 성미산마을극장 등 성미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단체가 많아 마포구 주민에게는 성미산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다.

저마다의 생존 방식

길지않은 계단을 오른 후 화살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자연 상태에서 최대 3미터까지 자라는 이 나무는 가지에 코르크질의 날개가 있다. “화살나무는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지에 떨어진맛이 나는 날개를 띄워요. 초식동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죠.” 자극이 많을수록 날개가 발달한다는 특성을 지녀 도시에 심은 화살나무는 숲에서 자라는 것보다 날개가 더 울퉁불퉁하다. 같은 종이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 외형이 달라지는 것이다.

상수리나무와 갈참나무에는 시든 잎이 무성하게 매달려 있다. 만지면 바스라질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뽀뽀한 질감에 광택까지 난다. 두 나무는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여태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그 옆 초록빛을 띠는 잣나무에서도 이 나무만의 특징이 드러난다. 나무는 낮의 길이로 계절을 구분하고 광합성을 이어 갈지 말지 선택하는데, 잣나무는 겨울에도 광합성을 해 양분을 만들겠다 결정한 것이다. 잣나무를 포함한 침엽수는 햇빛을 독점하기 위해 일정한 화학물질을 내뿜어 다른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한다. 고요해 보이는 숲속에서도 끝없는 성장과 우위를 잡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

크리스마스트리와 닮은 향나무는 바늘 같은 잎과 비늘처럼 생긴 잎이 함께 자란다. 어릴 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뾰족한 바늘잎이 먼저 나고 7~8년 정도 지나면 부드러운 비늘잎이 달리기 시작한다. “잎을 게 많을수록 가시가 많아요.” 짚레나무 앞에서 숲해설가가 한 말이 떠오른다. “어린 나무일수록 가시가 많고 시간



2



3



이 지나면 점차 줄어들어요.” 이 변화에는 더 이상 공격에 쓰러지지 않을 만큼 스스로 단단해졌다는 믿음이 서려 있다. 상처받더라도 회복할 요령이 생긴 게 아닐까. 사람과 나무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터줏대감처럼 이곳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나무예요. 사실 이걸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발길이 닿은 곳으로 시선을 옮기니 일본목련 아래 작은 침엽수의 형체가 나타난다. 마치 큰나무가 아기 나무를 보호해주는 듯도 하고, 아기 나무가 큰 나무 아래 숨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옆에 놓인 돌이 신비로움을 더한다. 산에서 가장 큰 나무, 그 아래 자세히 봐야 보이는 작은 나무, 그 옆에 소원이라 적힌 돌. 이 세 조합이 누군가 꾸며 놓은 장면 같다. 돌을 놓은 이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음 한편에 어린 나무가 오래도록 잘 자라길 바라는 진심 어린 응원이 있었을 테다. “건강한 숲이라면 어린 나무가 있고, 죽은 나무가 있고, 높이와 크기가 다양한 나무가 함께 있어요.” 성미산이 건강한 숲을 품었다는 말이다.

1



2

- 1 수집한 잎사귀 뒷면을 원하는 색 스탬프로 문지른다. 나뭇잎이 수분을 머금은 상태여야 액상이 잘 묻는다.
- 2 성미산에서 가장 큰 나무 아래 몸을 숨긴 작은 나무. 그 옆에 '소원'이라 적힌 돌이 놓여 있다.
- 3 숲 탐방 기록하기. 색을 입힌 나뭇잎을 하얀 종이에 새긴다.
- 4 싱어송라이터 이서영의 작곡 노트.

겨울 숲이 전하는 용기

이서영 숲 해설가가 가방에서 작은 확대경 루페를 꺼내 건넨다. “세상에 똑같은 겨울눈은 없더라고요.” 눈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까. 루페를 굽혀 전달 내린 눈을 살펴보는 찰나, 이서영 숲 해설가의 손이 나뭇가지를 가리킨다. 하늘에서 내리는 흰 얼음 결정이 아니라 잎, 꽃 또는 가지가 될 나무의 조직을 의미했던 거다. 겨울눈은 낙엽이 지고 나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 털이나 부드러운 막이 안쪽을 감싸고, 미끈하거나 튼튼한 비늘이 겉면을 덮는다. 잎자루 안에 겨울눈을 숨기기도 한다. 루페에 눈을 갖다 대고 관찰하자 겨울눈이 결코 작게 느껴지지 않는다. 울분, 활짝 피어날 겨울눈의 미래를 상상한다.

이서영 숲 해설가의 또 다른 정체성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다. 때론 숲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라 생각했던 겨울, 저마다 다른 생을 계획하는 숲의 풍경이 그에게 큰 감동을 준다. 꾸준하게 자신을 가꾸고 각자 자리에서 버티는 존재를 보며 동력을 얻는다. 숲은 쌓아온 세월을 증명하면서 음악가 이서영에게 더 나아가라고 자극했다. ‘달리는 마음’이라는 곡이 그렇게 탄생했다. “마른 몸 끝에 달린/ 겨울눈이 터지고/ 봄을 맞는 나무에서/ 그대가 보여요.” 음악가 이서영은 곡을 쓰는 중에 자신도 계속 겨울눈을 만들어 왔다는 걸 깨닫는다. 달리는 마음의 주인공은 그 자신이었다.

눈이 오고 나면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부러져 땅에 떨어진다. 이서영 숲 해설가는 그다음을 기대한다. 나뭇가지가 잘리면 그 각도로 햇빛이 들어오고, 땅 아래 씨앗은 햇빛을 받아 자라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숲은 더욱 건강해질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꺾이고 부러지더라도 예기치 못한 기회의 싹을 틔울지 모른다. 작은 숲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마주한 후, 부푼 마음으로 숲을 나선다.



3



이서영 숲 해설가가 알려 주는 겨울 숲과 친해지는 방법

- 조금씩 흥미를 붙여야 하니 작고 가파르지 않은 산부터 시작하세요. 서울 성미산과 개운산, 그다음 경기도 소리산을 차례대로 올라도 좋아요.
- 루페, 노트와 따뜻한 차를 담은 물병을 챙기세요. 루페 하나만 있어도 숲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가시나 겨울눈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 나무 이름을 여러 개 듣다 보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나무를 감상하는 동안 떠오른 키워드를 바탕으로 직접 이름을 붙여 보세요.
- 가지에서 나무의 노력을 떠올리는 과정도 재밌어요. 가지가 어떤 이유로 직선 또는 곡선 형태로 변했는지 상상하는 거죠.



4

아라가야 600년의 숨결 함안 말이산고분군

한국의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남 함안 말이산고분군에는 아라가야 600년의 찬란했던 시간이 잠들어 있다.

제작 지원 함안군청





함안말이산고분군은 아라가야 왕과 귀족의 묘역이다.
해발 고도 40~70미터의 나지막한 구릉. 남북으로 길게 뻗은 2킬로미터
중심 능선과 서쪽으로 이어진 가지 능선을 따라 200여 기의 봉분이 곡선을 그린다.
2000년 시간 너머 산자를 압도하는 죽은자의 위엄.



함안 말이산고분군 출토 유물 3

함안 말이산고분군 시작점에 자리한 함안박물관에는 말이산고분군에서 출토된 방대한 규모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그중 주요 유물 세 가지를 소개한다.

1 사슴 모양 빨잔

말이산고분군 45호분에서 출토된 사슴모양 빨잔. 아라가야시대 조형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사슴이 머리를 돌려 U자형의 술잔을 바라보는 모습이 신비롭다. 몸통을 떠받친 굽다리에는 아라가야 고유의 불꽃문양이 새겨져 있다.

2 별자리 덮개석

말이산고분군 13호분에서 별자리가 새겨진 덮개석이 발견되었다. 무덤방 천장 덮개석에서 확인된 별자리는 남두육성과 청룡 별자리 등 고대 동양의 별자리를 비롯한 134개 별로 이루어진 은하수다. 이를 통해 고대 아라가야의 뛰어난 천문 관측 기술과 항해술을 엿볼 수 있다.

3 연꽃무늬 청자

말이산고분군 75호분에서는 가야문화권 최초로 5세기 중국 남조에서 제작한 연꽃무늬 청자가 출토되었다. 중국 장시성 흥주요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청자는 아라가야가 5세기 후반에 중국 남조와 교류했음을 시사한다.

함안박물관

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고분길 153-31



1



2



3



함안박물관

made in

광주를 이룬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GWANGJU

no.02



1



3



4



5



6

1 아시아 예술계와 교류하는 '두들락' 프로젝트를 통해 타이 치앙마이 공예 상품을 선보인다. 2 'ACC 미래상 2024' 수상자인 김아영 작가의 작품을 유리 문진에 담았다. 3 광주를 조망하는 키트 북 <어떤 땅(ATN TTNG)>. 4 정갈한 숍 내부. 5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첫 앨범인 <예언> 바이닐. 6 자체 매거진 <버브(Verb)>는 현재 3호를 준비 중이다.

순환하는 문화의 여성
네트워크 DLAC

옛 전남도청 자리에 들어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5.18민주화운동의 터전에서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로 승화하고자 2015년 문을 연 이후 무수한 활동을 거치며 성장해 온 '아시아 문화의 창'. 그런 ACC가 최근에는 전국의 문구 '덕후'들이 광주에 오면 꼭 들르는 여행 코스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2023년 론칭한 자체 브랜드 '들락 DLAC(이하 들락)' 덕분이다. 언뜻 평범한 편집숍처럼 보이지만, 들락의 진열장은 모던한 디자인 너머 다채로운 이야기거리로 가득하다. 1960~1970년대 한국 대중음악과 신민요, 전통 장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LP 음반부터 도시 기록자를 위한 키트, 매호 다른 단어로 아시아 문화를 조명하는 매거진까지, 어느 하나 그저 '예쁘다'라는 감탄사로 후루룩 넘길 만한 것이 없다. 사실 이곳에서 내놓는 상품은 단순히 아름답고 유니크한 '완성품'이라기보다 브랜드가 문화를 순환하는 '과정'에 가깝다. ACC가 아시아 문화 예술의 가치를 전시, 공연, 교육 등의 콘텐츠로 선보인다면 들락은 이를 상품화해 그 경험을 일상으로 확장시키는 데 비전을 둔다. 전시 연계 및 협력 프로젝트 제품, 도서 등 굵직한 라인업에 따라 상품 발굴 및 개발을 지속하는 이유다. 사람과 지역, 문화와 예술, 선물 같은 이야기까지 살뜰히 담아낸, 소장 가치 높은 물건을 만나볼 때다.

- ☉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 🕒 10:00~18:00(수·토요일 20:00, 월요일 휴무)



2



interview

권성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문화사업개발팀 팀장

'들락 DLAC'이란 이름의 유래가 궁금합니다.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재단의 정체성을 드러낼 표현을 찾다가 'Dots and Lines to Asian Culture(독자적이며 연결된 아시아 문화)'의 이니셜로 'DLAC'이라 명명했어요. 점은 저마다의 고유한 주체, 선은 점들을 연결하는 활동이라 생각했죠. 물론 '들락'날락하다' 할 때의 우리말 '들락'의 의미도 있고요. ACC의 콘텐츠는 물론 로컬 브랜드로서 정체성을 담아내려는 노력도 엿보여요. 광주의 지역성이나 정체성을 논할 때, 저는 ACC가 자리한 부지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18민주화운동의 근거지에 건립한 ACC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바로 들락이 이어 가야 할 지역성이라고 보고 있죠. 대표적 예가 지난해 전시 연계 상품으로 개발한 <어떤 땅> 키트 북입니다. ACC 건립 전 이 땅에 존재했던 도로와 골목·문화제·삶의 터전 등을 조명하는 체험 북으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무대가 된 곳곳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담았어요. 올해 들락은 또 어떤 여정을 이어 갈까요? 일단 기본적인 플랫폼과 체계는 갖췄으니, 그 기반 위에서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게 올해의 목표예요. 특히 2025년은 ACC가 개관 10주년을 맞는 해인데, 누구나 'ACC의 문화 상품' 하면 들락이 떠오르게 할 거예요.



1



2

☉ 광주시 동구 의재로 9
🕒 12:00~22:00(월·화요일 휴무)

3



4

티 에디트
차와 예술이 맞닿은 자리

5



예부터 의재로를 터전으로 삼은 이들에게 '차'란 예술의 또 다른 이름이다. 차와 예술이 맞닿은 길, 과거 무등산 자락에서 그림을 그리고 춘설차를 재배하며 남종화의 화맥과 호남의 다맥을 이어 온 의재 허백련 선생의 정신이 깃든 까닭이다. 오늘날 차 관련업 종사자만 100여 명에 이르는 의재로 초입에서 '티 에디트'의 팽주 남수연 대표가 춘설차를 내놓는 이유도 이와 같다. "만든 이의 역사가 담긴 차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맛도 맛있지만, 허백련 선생이 직접 채엽하고 제다한 차로 춘설차가 상징하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했어요." 의재로에서 나고 자란 그는 1960년대 한옥을 개조한 티 하우스에서 춘설차를 비롯한 광주·전남 차를 선별해 소개하고, 지역 재료를 차에 가미하거나 다식으로 구성해 선보인다. 고객이 직접 우려서 즐기는 싱글 오리진 티와 블렌디드 티 외에도 지역 특산물을 조합한 베리레이션 티, 허브와 술을 더한 칵테일 티 등 좀 더 가볍게 차를 경험하는 메뉴도 꾸준히 개발 중이다. 이곳의 특별한 매력은 오래된 한옥의 멋을 재해석한 공간 자체에 있다. 의재 선생을 포함한 옛 광주 예술가들의 작품과 모던한 그래픽 디자인이 어우러진 내부는 물론 무등산 풍경을 본떠 돌과 식물로 꾸민 정원 역시 눈길을 끈다. 이 그윽한 차의 공간은 삶과 예술이 경쟁하지 않는다는, 그리하여 예술은 늘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의재 선생의 정신을 일깨운다.

1 오방색과 오간색을 주조색으로 꾸민 메인 공간. 2, 5 1962년에 지은 한옥 건물은 본래 향토사학자 강동원 선생이 운영하던 한약방이었다. 3 블렌디드 티의 재료인 각종 허브와 잎차. 4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다식 플래터. 6 싱글 오리진 티 춘설녹차, 목련꽃·캐머마일·박하 등을 섞어 만든 '바람채 산목련'.

6





1



3



2



1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엮여있는 건물 외관.
2 여전히 손으로 그리는 영화 간판. 3, 5 곳곳에 공간의 90년 역사를 다양한 형태로 담아냈다.
4 단 하나뿐인 상영관.
6 광주극장의 명물인 간판실. 시민을 대상으로 영화 간판 학교도 운영한다.

4



5



6

오래된 극장의 미래

광주극장

오늘날 광주 여행의 거점으로 많은 이들이 금남로와 충장로를 꼽는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리는 금남로가 근현대사의 핵심 무대라면, 충장로는 구도심의 유서 깊은 문화 예술 거리다. 1910년대 이후 오랜 시간 부흥했던 흔적이 골목마다 질게 밴 광주 레트로 투어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수십 년 세월을 머금은 장인들의 상점, 빈티지한 다방이며 음악 감상실 등 멋스러운 공간이 많지만,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장소를 고른다면 올해로 90주년을 맞은 광주극장일 것이다. 1935년 조선인 자본으로 설립한 호남 지역 최초의 극장이자 현존하는 한국 최고령 단판 극장으로, 광주극장이 지닌 상징성은 단순한 랜드마크 이상이다. 예술 영화 전용관으로 운영하는 지금도 꾸준히 상영작을 검색하는 단골층이 탄탄한데, 근래에는 극장 자체를 구경하러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졌다. 그간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거나, 유해 시설로 지정돼 폐쇄 명령을 받거나, 멀티플렉스에 밀려 설 자리를 잃는 부침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버티며 존재해 온 덕분이다. 물론 시대와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동시대적 감성으로 쉽게 독립 예술 영화를 발굴하는 한편, 해마다 영화제를 기획하고 굿즈를 제작하거나 영화 간판 학교를 여는 등 극장의 유산을 콘텐츠로 계승하려는 움직임 역시 견고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충장로에 속속 들어선 지역 청년들의 문화 예술 공간이 이 오래된 극장의 여정에 새로운 활기를 더하고 있다.



1



3

1 예스러운 한옥과 모던한 외벽의 조화. 2, 5 광주의 프리미엄 전통주를 비롯해 로컬 메이커의 상품을 폭넓게 소개한다. 3 고택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내부. 4 문경 오미자 에이드와 완도 비파 에이드를 곁들인 육회 타르타르.



5



4

미식의 성지로 꼽히는 광주·전남 일대의 식문화를 논할 때 식재료만큼 흔들림 없는 지표도 드물다. 비옥한 땅과 바다가 가꿔 넉넉하게 내준 식재료는 지역 역사와 전통, 현지인의 삶과 뒤엉켜 들쭉날쭉한 맛의 지도를 일궈 왔으니까. '풍부한 특산물과 함께 입안을 돌며 혀끝까지 남는 진한 맛'은 로컬 크리에이터 김이린 대표가 주목한 광주·전남 식문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전남의 소멸 위기 지역에 집중하며 광주로 향한 그는 지역 식문화를 보존하고 오감으로 전달하기 위해 동명동의 90년 된 한옥을 재건해 '아우르'를 열었다. 우리말 '아우르다'와 영어 '부엉이(owl)'에서 따온 이름 그대로, 지역과 미식을 아우르며 낮과 밤의 정취를 두루 향유하는 로컬 다이닝 공간이다. 지역에 대한 기획자의 진심은 메뉴판에서부터 고스란히 전해진다. 나주 뿌리 파 장아찌를 곁들인 살치살 스테이크와 영암 한우 설깃살로 만든 육회 타르타르, 완도 감태로 맛을 낸 감태 파스타 등 재료의 원산지까지 메뉴 이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다. 저녁에는 미디어 아트와 더불어 각종 요리에 현지 주류를 페어링하거나 아예 하나의 지역을 선정해 코스로 선보일 때도 있다. 아우르의 가장 큰 특징은 끊임없는 변화다. 계절마다 메뉴 구성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대표가 소개하는 주류와 로컬 상품 리스트 역시 수시로 바뀐다. 언제든 아우르를 찾는다면 당장 눈앞에 놓인 요리나 술도, 그림처럼 통창을 파고드는 원도심의 풍경도 바로 이 계절, 이 순간 가장 눈부신 것이란 의미다.

📍 광주시 동구 동명로14번길 45-21
🕒 11:30~22:00

지역과 미식을 아우르다
아우르



2

interview

김이린 아우르 대표

소멸 위기 지역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식문화를 선택했네요. 전남은 한국 최대의 농산물 원산지인 데다, 워낙 품질 좋은 식재료가 많잖아요. 그렇기에 오랜 시간 맛으로 유명했죠. 결국 이 지역을 알리기 위해선 맛이 중요한 요소라 판단했죠. 사람들이 지역 식문화를 즐기며 '이런 곳에 이런 특산물이 있구나' 하고 인식하게 된다면 저희가 진행하는 비즈니스의 의미도 조금씩 쌓여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픈한 지 1년 반쯤 됐죠. 기획 의도와 방향성이 잘 유지됐나요?** 그간 우려곡절도 많았고, 그러면서 바뀐 부분도 많았는데, 신기하게도 거리를 두고 정리해 보니 처음 기획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주요 재료 산지라 할 수 있는 전남 소도시 사이에 놓인 광주의 역할이 궁금해요.** 광주는 '아우르는 곳'이에요. 여러 지역의 식재료와 식문화를 아울러 사람들에게 잘 보여 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앞으로 아우르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까요?** '아우르만의 다이닝'을 명확하게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 첫 단계로 지역 식재료를 활용했다면, 이제는 다른 문화적 요소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에요. 기획 다이닝과 팝업 스토어 같은 프로젝트 역시 더 자주, 다양하게 진행하려고 해요.



245 Bullet Marks
245个弹痕 | 245处

이곳은 전일빌딩에서 총탄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장소이다. 특히 정면에 보이는 기둥과 천장 텍스트의 탄흔은 10층이나 그 이상의 높이에서 쏘았을 때 만 가능한 위치이다. 1980년에는 이곳보다 높은 건물도 없었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헬기에 의한 사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This is the location of the most numerous bullet marks in the Jeonil Building. Notably, the spots of the bullet marks on the at the front and on the ceiling panels are only possible if firing was position as high as or higher than the 10th floor of the building.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maintains that these marks were from aerial platform such as a helicopter since there was no building higher than this building from which the shots could have been fired.

1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전일빌딩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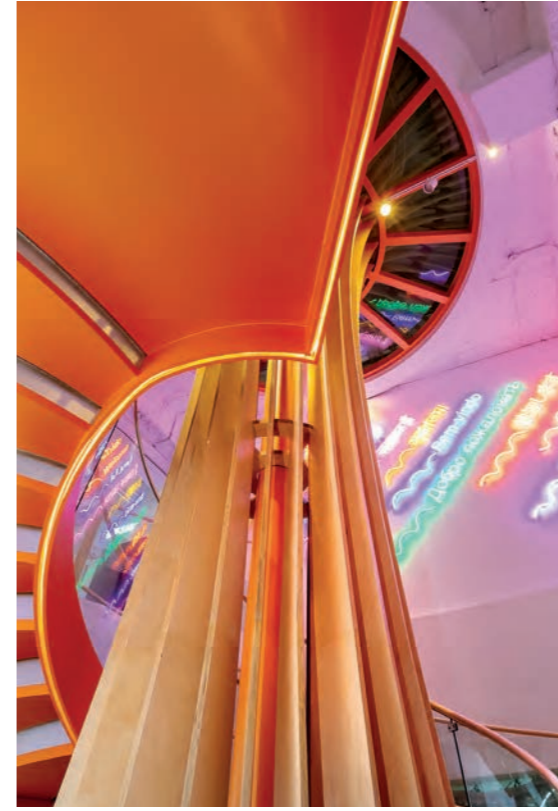
공간이 품은 역사는 그 공간이 실재하는 한 결코 감춰지거나 지워지지 않는다. 도시의 매일 매 순간을 켜켜이 쌓아, 잊고 있던 사람들의 눈앞에 느닷없이 선연한 과거를 꺼내 보인다. 이를테면 뜨겁고도 서늘했던 1980년 5월의 광주. 동구 금남로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곳곳에는 아직도 그때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중 유독 치열하게 역사의 산증인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전일빌딩이다. 당시 금남로에서 가장 높이 올라선 랜드마크로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 저항했던 건물, 무엇보다 245개 총탄 흔적으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입증한 대표적 5.18 사적지다. 그간 언론사와 증권사, 은행, 학원 등이 들어섰던 이곳은 2020년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역사 문화 공간 '전일빌딩245'로 다시 태어났다. 건축 형태와 공간을 '245'라는 숫자로 상징화해 건물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담는 것이 새로운 브랜딩의 핵심이었다. 현재 9층과 10층에 자리한 멀티미디어 전시관 '19800518'은 리모델링의 가장 혁혁한 결과물이다. 1980년 5월 27일 새벽의 헬기 사격 사건을 영상과 설치미술, VR을 비롯한 각종 시각 자료로 조명한다. 차분히 관람을 마친 뒤 옥상 공간인 전일마루에 오르면 일제강점기의 만세 운동과 5.18민주화운동 등 굵직한 현대사의 현장인 금남로 일대 전경이 한눈에 담긴다. 시대의 비극과 영광을 온몸에 새기며 50여년간 한자리를 지켜 낸 이 10층 빌딩은 과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도시의 이정표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45 🕒 전일마루 09:00~22:00(동절기 21:00), 전시관 10:00~19:00

3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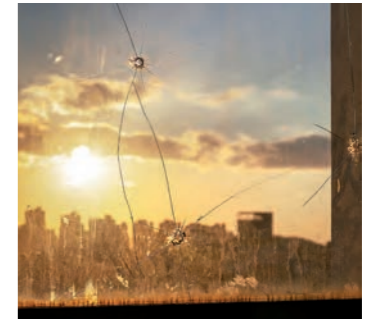
5

1, 3, 6 건물에서 발견된 245개의 탄흔이 역사를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2, 5, 7 '19800518'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시가 마련돼 있다.
4 꽃의 형태를 재해석한 '피어라 상징 계단'.
8 과거의 총격 상황을 모형으로 연출한 유리창.

6



7



8



1



2



3



5

1 여러 건축양식이 혼재한 고택 외관.
2 방문객이 쉬어 갈 수 있는 추억의 만화방.
3 각종 도서로 가득한 인문관. 4, 5 전시관과 다실로 이뤄진 본체. 구석구석 자리한 생활 친화적 작품은 공공 미술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6 엽서와 스탬프를 활용해 누구나 공간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



6

모두의 권이래
네가 기억하면



4

예향으로 이름 높은 광주에서도 동구는 유독 인문학적 자존감이 강한 동네다. 예부터 무등산 자락에 뿌리내린 문화 예술 자산과 굵직한 역사 현장, 번성했던 상점가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데다, 이를 기록하고 개방해 주민과 나누려는 시도도 활발하다. 2022년에 문을 연 동구 인문학당은 이러한 문화 도시 정책의 새로운 거점이자 동구가 비교적 최근에 발굴한 또 하나의 인문 자산이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여러 건축양식을 절충한 본체 외관. 삼각 지붕의 서양식 2층 건물과 일본식 복도가 있는 단층 한옥 건물이 하나로 연결된 형태다. 1954년에 지은 이 기묘한 근대 가옥은 2020년 동구가 공영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며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해방 직후 과도기의 건축 특성과 생활상을 잘 보여 준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결국 지자체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옥을 남기기로 결정했고, 지역 예술인 38명이 참여한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모두를 위한 인문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현재 동구 인문학당은 전시 및 휴식 공간을 품은 본체 맞은편에 신축 건물 두 동을 더해 각각 인문관과 공유 부역으로 활용한다. 각종 강연이며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열리는 인문관에서는 시대별 만화책 3000여 권을 총망라한 기획 도서전 <만화책의 향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대와 삶이 교차하는 이색적인 정취 너머, 누구나 보고 읽고 사유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그득하다.

📍 광주시 동구 동계천로 168-5
🕒 10:00~18:00 (월요일 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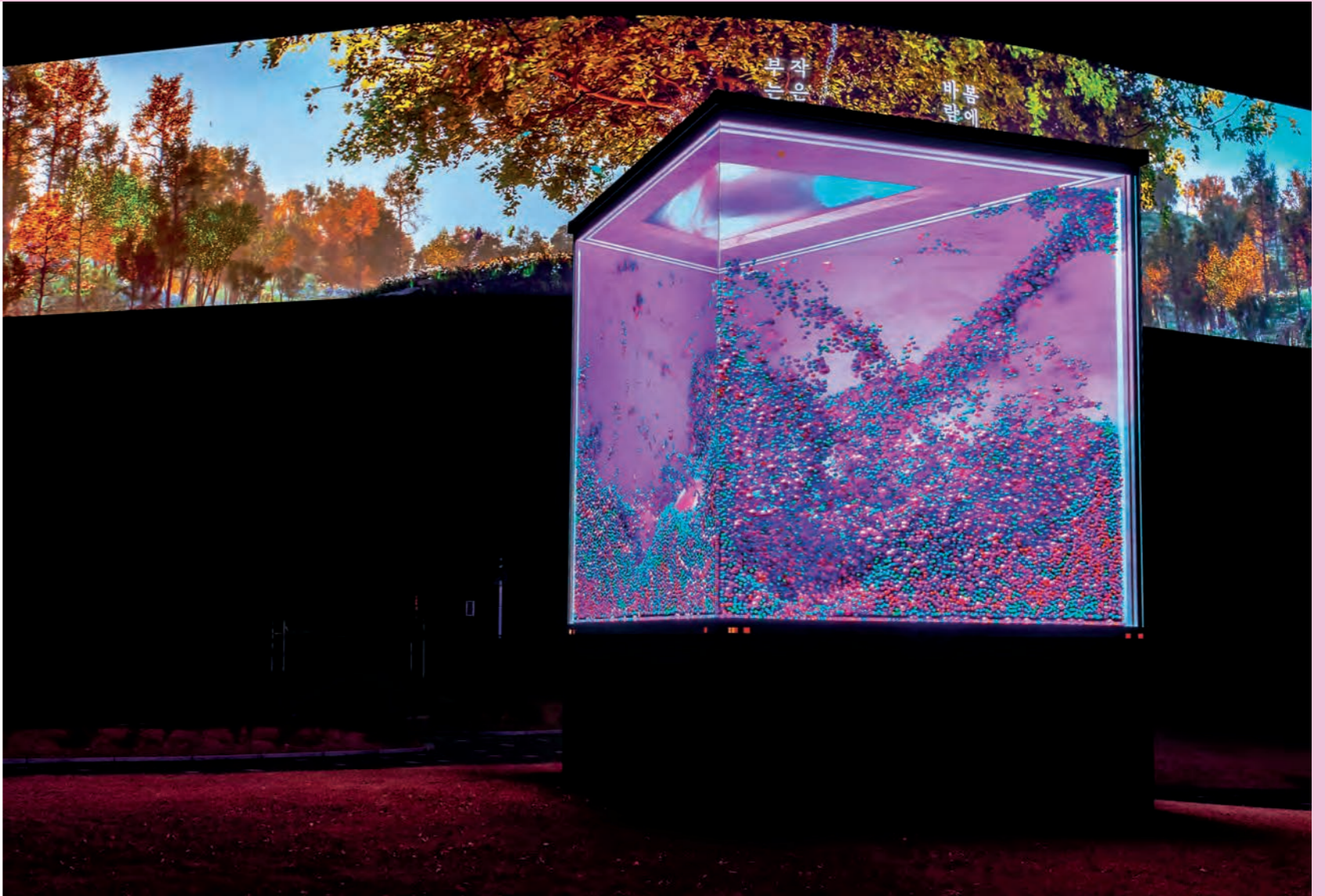


1

- 1 밤마다 영상과 빔 조명으로 화려하게 물드는 광주 사직공원 전망타워.
- 2 빛과 나비를 테마로 조성한 금남나비정원.
- 3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앞 'G-CUBE'는 이이남, 윤상하 등 여러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보여준다.

빛이로 그린 도시의 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3



2

- 1권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
- 2권역 금남로 일대, G.MAP 일원
- 3권역 사직공원 권역
- 4권역 양림동 일원 권역
- 5권역 도시철도 광주송정역 5번 출구

여행자가 감각하는 도시는 한낮의 들끓는 색깔이나 감촉, 소리, 냄새만이 아니다. 때로 세상의 속도가 잦아들고, 사위가 고요해지고,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뒤에야 비로소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다. 빛을 매개하는 예술, 미디어 아트가 그렇다. '빛고을' 광주와 미디어 아트의 만남은 백남준을 비롯해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특별전을 선보인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시는 이이남, 진시영, 박상화 등 1세대 미디어 아트 작가를 낳았고, 이후 예향이란 수식어에 걸맞은 실험적 융복합 작품이 쏟아져 나오며 국내외 예술계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미디어 아트 특화 도시 광주의 여정은 2014년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마다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열고, 거점 역할을 할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을 개관했으며,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벨트'란 이름의 공공 미술 작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6년에 걸쳐 완성한 총 다섯 권역의 창의벨트는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 일대, 사직공원과 양림동 일원, 도시철도 광주송정역 등 도심 구석구석을 아우른다. 지난 11년간 광주가 이 분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온 빛의 궤적인 셈이다. 운영 시간대는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건, 이 도시의 밤이 낮만큼이나 아름답다는 것. 미술관이 아닌 거리에서, 일상에서, 빛과 어둠이 명멸하는 도심부의 야경 한가운데서, 미디어 아트는 지금 광주의 예술을 이야기하고 있다.

no.02

GWANGJU



KTX MAGAZINE

들락 DLAC

티 에디트

광주극장

아우르

전일빌딩245

동구 인문학당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벨트

WRITER 류현경(여행 칼럼니스트) · PHOTOGRAPHER 김은주

지금 여기

충북 괴산에서 만난 아티스트 호재 |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상형청자>전
전남 보성의 발효 공간, 초루 | 서울 성수동에서 즐기는 취미 생활 | 극장 & 북카페, 서울의 문화 놀이터 | 대전역 원도심 산책



쉬지 않는 손, 바지런한 마음

아티스트 효재의 괴산살이

겨울 정원 꾸미기에 한창인
아티스트 이효재를 만나러
충북 괴산으로 갔다.
자연에 깃들여사는
검박한 삶의 풍경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싶었다.
때마침 역사와 강아지풀이
손을 흔들며 낯선 객을 반겨
주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골몰하는 시대, 우리는 정작 삶의 근간인 살림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한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을 뜻하는 순우리말 '살림'은 옷가지를 정돈해 입거나 음식을 요리해 먹으며 집 안팎과 세간살이를 돌보는 일련의 일상적 행위를 아우른다. 의식주를 수반하는 가사노동이 점차 집 밖으로 밀려나 '외주화'되는 지금, 살림이란 말은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낡아가는 듯하다. 그사이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반듯하게 개켜 놓은 빨랫감, 정성껏 차린 소박한 밥상, 보기 좋게 정리한 물건이 우리에게 안기는 작은 기쁨과 은은한 성취감에 대해 생각하는 요즘이다.

알록달록한 생활 감각, 생생한 살림 풍경

문득 떠오른 이름 하나. 살림을 예술의 경지에 올려놓은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이효재다. 한복집 '효재'의 주인장으로 배우 배용준에게 전통문화를 전수하며 국제적 명성을 얻은 보자기 예술가이자, 가수 나훈아의 무대 의상을 담당한 스타일리스트인 그는 일찍이 남다른 살림 솜씨로 출판계와 방송계에 널리 호명되며 '효재처럼'으로 대표되는 자연주의적 살림법을 설파해 왔다. '1세대 인플루언서'라는 수식어가 그의 시그니처, 향아리 원피스만큼 꼭 어울리는 이유다.

"아름다운은 마음의 창으로 들어온다. 먼지 같은 풀꽃들, 어둑거릴 때의 서늘한 산그림자, 때마침 걸려온 친구의 전화 목소리가 보일 때 나는 늘 부자다." 2009년에 출간해 당대 베스트셀러로 손꼽힌 사진 수필집 <효재처럼 살아요>의 맨 앞 장에 적힌 문장이다. 일상을 누구보다 풍요롭게 채워 나가는 마음 부자 효재.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살림살이에 대해 이렇게 서술한다. "밭부리에 채이는 돌 주워다 상에 올려서 김 누르고, 호두 껍 때 받침들로 쓰고, 깨진 독은 손님맞이용 큰 접시로, 온갖 풀잎 따다가 테이블 세팅하니, 다들 재미있어한다." '재미'는 '효재처럼' 사는 삶을 관통하는 열쇳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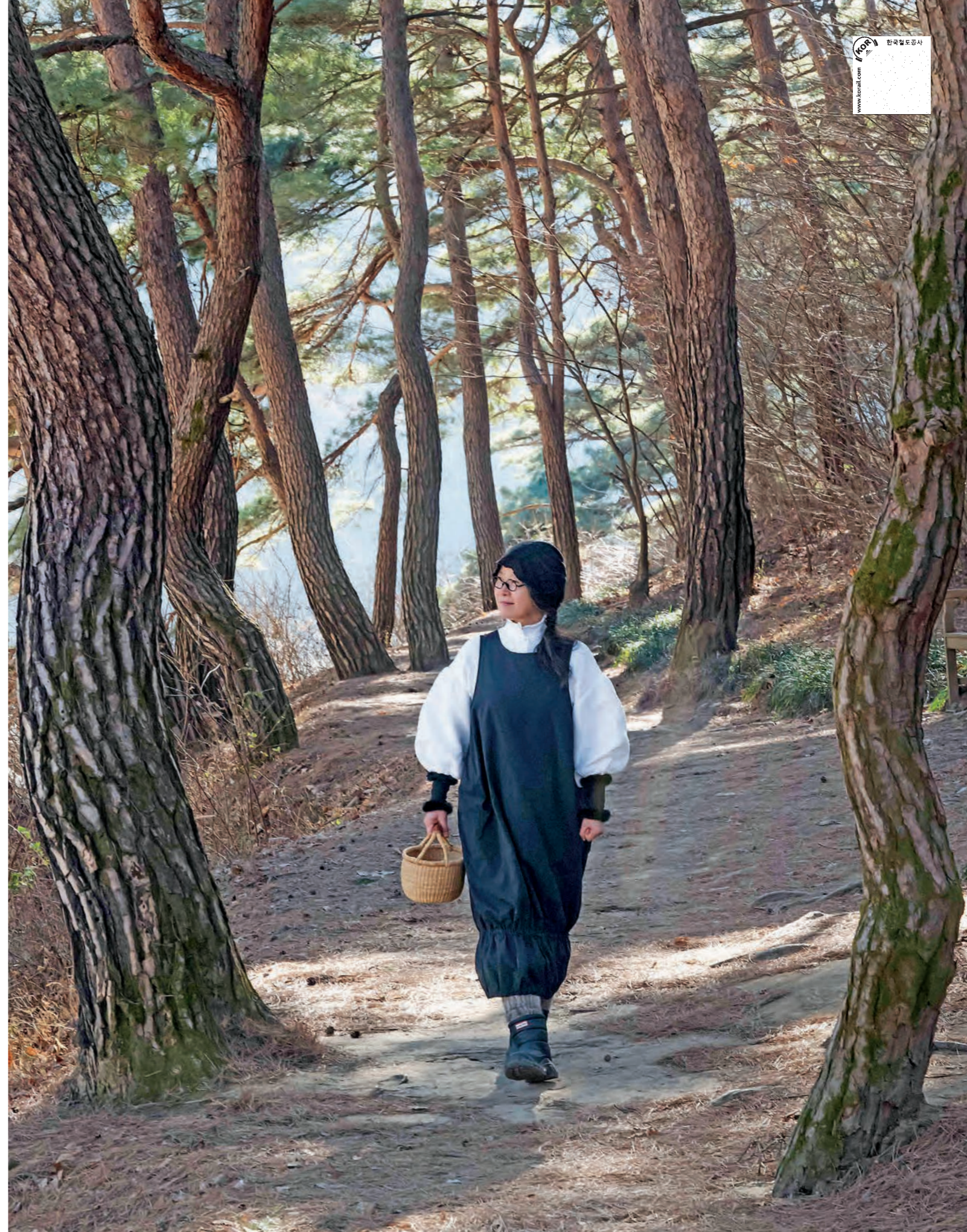
<효재처럼 자연으로 상 차리고, 살림하고>를 시작으로 <효재처럼 보자기 선물> <효재의 살림 연장> <효재의 살림 풍류>에 이르는 살림 지침서를 펴낸 그는 에세이 <효재처럼 풀꽃처럼>, 여행기 <효재, 아름다운 나라에서 천천히>, 우리 생활 문화를 다룬 동화 연작 <효재 이모와 전통 놀이 해요> <효재 이모의 사계절 뜰에서> <효재 이모처럼 지구를 살려요>를 출간해 작가로도 사랑받았다.

보자기를 동원해 온갖 물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아티스트, 돌멩이나 나뭇가지 하나도 그냥 버리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 빗자루에서 장독대까지 취향껏 수집한 살림살이의 내력을 소개하는 '궁담 요정', 풀포기를 반려 삼아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식집사', 손수 기른 푸성귀를 요리해 식탁을 꾸미는 독창적 '떡방라'... 다재다능, 다종다양한 그의 문예 시대를 초월하는 감수성과 지혜가 어른거린다.

자연주의를 넘어 자연이 된 효재, 괴산에 깃들이다

성큼성큼 나아가던 그의 행보는 각별한 우정을 나누는 배우 김수미와 2016년에 함께 쓴 요리 에세이 <음식, 그리고 그리움>을 끝으로 더더졌으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 효재의 살림 풍류는 한층 깊고 은밀해졌다. 충북 괴산 청천면에 홀연히 새 거처를 꾸민 것이다.

최저 기온 영하 10도를 기록한 어느 아침, 역새와 강아지풀로 뒤덮인 아늑한 뜰에 다다랐다. 지난 5월 TV 프로그램 <건축탐구-집>에 등장해 소소한 화제를 모으기도 한 바로 그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의 다정한 인사가 우리를 반긴다. "추운데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우선 밥부터 들고 얘기해요." 먹이고 챙기기를 좋아하는 그가 눈 깜짝할 새 문근하게 끓인 서리태 죽과 향긋한 코코넛 커피를 내왔다. 고운 그릇과 컵, 먹음직스러운 담음새에 눈이 먼저 즐겁다. 젓가락 받침에 꽂아 둔 작은 나뭇가지마저 사랑스럽다. "개복숭아 가지예요. 봄이 오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놓았어요." 봄빛처럼 따뜻한 환대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꿈을 꾸다. 그래서 늘 현실이 못마땅하여 끝없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중략) 종교는 벽이 있지만 문화는 벽이 없다. 치마저고리가 청바지가 되고, 보자기가 종이 백이 된 이 시대에
 우리 것 하나는 놀이로 문화로 즐기자는 것.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 나의 풍류 놀이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효재의살림 풍류〉 중에서



“문자 하라카카오횈하라다들 뭇가에 바쁘니 봄이 훌쩍 오는 줄 알지만,
 나같이 집안통수아날로그는 안다. 봄이 슬로로 서서히 온다는 것을. 축을 올리고, 꽃망울을 맺고,
 꽃을 피워내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 어떤 꽃도 쉽게 피어나는 꽃은 없음을.
 봄눈 속에서부터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를 하는지 찬찬히 지켜보는 나는 알고 있다.”
 -〈효재처럼 풀꽃처럼〉 중에서

언젠가 산속으로 들어가 살겠다고 한 선언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무엇이 괴산살이를 결심하게 했나요.

코로나19 시기에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중 인적이 거의 없는 산골 마을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발견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산봉우리가 하도 빼곡해서 이마에 부딪힐 것 같은 동네잖아요. 덕분에 자연주의를 노래하던 제가 이곳에 와서 '찐' 자연주의자가 됐어요. 실은, 이제 도시에서 궁금한 게 없어요. 무얼 보아도 우리 집 앞 '고릴라바위'보다 예쁘지 않으니깐요. 문 열면 코가 시큰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날마다 다른 석양빛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이 좋아요. 정원에서 풀을 정리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시시각각 달라지는 노을에 마음이 몽클하거든요.

괴산살림의 규모는 비교적 조촐한 편입니다. 집 안팎의 공간과 세간살이를 소개해 주세요.

깍두기처럼 네모난 2층 집에 부엌, 차실, 침실이 있어요. 건너편 트레일러는 그간의 작업물을 진열해 전시실로 활용하고요. 공간이 아담한 편이라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새로운 물건을 들이지 않으려 하죠. 다만 바구니를 좋아해서 벽 한편에 여러 개를 죽 늘어 두었어요. 장독대는 큰 물건을 보관하는 서랍장 대용으로 써요. 지난 크리스마스엔 부엌 창가에 둔 장독에 소금을 눈처럼 뿌려 놓고 미니어처 트리를 꾸미기도 했어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차실 이름은 '운상정'이에요. 구름 위의 정자라는 뜻인데 현판을 나훈아 씨가 손수 써 주었어요. 창틀을 가리는 대나무 파티션은 전시장에 있던 걸 버리지 않고 가져온 거예요. 우리 집 곳곳엔 이렇게 주운 나뭇가지가 많아요. 겨울엔 개복숭아, 생강나무 가지를 화병에 꽂아둬요. 그러면 산이나 들에서 보는 것보다 더 빨리 꽃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일에 아주 극성맞은 편이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산중입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일과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머무는 날엔 새벽 네 시쯤 일어나 이리저리 어슬렁거려요. 괴산 콩이 정말 맛있어서, 서리태를 갈아 먹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죠. 이 집은 제가 계획 중인 지역 문화 살롱 거점 중 하나예요. 말하자면 '괴산 스튜디오'랄까. 일주일 중 하루는 충북 청주 초정행궁에서 보자기 만들기나 전통문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주말엔 전북 완주 대승한지마을에서 머지않아 개관할 보자기 한지 문화관 준비 작업에 참여해요. 나머지 시간엔 괴산에 머물거나 서울을 오가며 지내요. 한반도의 허리인 괴산에 베이스캠프를 뒀서 가능한 일정이예요. 이렇게 옷을 갈아입듯 거처를 바꾸니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저는 낯선 기분을 사랑해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끊임없이 생기거든요. 얻게 되는 지식도 많아요. 괴산은 선비들이 유배 생활하던 지역이예요. 조선 중기의 문신 노수신이 머물던 수월정, 송시열이 사랑한 화양구곡, 이황과 정철이 즐겨 찾은 쌍곡계곡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잘 알죠. 나중에 여기서 '선비 투어를 운영하는 게 작은 꿈이예요. 제가 만든 옷을 손님들에게 입히고 산막이옛길이며 화양구곡을 마냥 걷는 거예요. 그러다 낙엽이 쿠션처럼 쌓인 바위에 드러누워 수다 떨고 차도 마시면서요.

생활반경이 집에서 정원으로, 정원에서 산으로 넓어진 것 같네요. 그래도 여전히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시죠.

이제 속리산국립공원이 우리 집 마당 같아요. 요즘 산막이옛길 절벽에 물이 얼었는데, 그게 반짝반짝하니 꼭 보석 같아요. 스와로브스키가 다 뭐예요. 곧 녹아 없어질 테니까 더 열심히 봐 줘야죠. 멀리 못 나가는 날엔 정원에 앉아 산봉우리가 몇 개인지 헤아리는 게 일이에요. 정원 한편엔 새들이 날아와서 쉬라고 강아지풀이랑 억새를 심어 놓았더니, 정말이지 아침 10시 10분이면 정확히 여기 내려앉더라고요. 가끔 고라니나 새끼 멧돼지처럼 작고 어린 산동물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하고 이 친구들의 안녕을 기도해요.

그리고 보니 산간에서 겨울을 보내는 일이 쉽지 않은 않겠습니까. 괴산의 겨울 생활을 들려주세요.

도시에선 기상예보를 듣고 미리 추위를 걱정하는데, 이 산골짜에선 그저 겨울답게 춥겠거니 생각하고 말아요.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이, 빨래할 때 세탁기가 더 고마울 따름이죠. 상황을 부정하기보다는 즐기려는 편이예요. 요즘엔 겨울만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어요. 부엌에 느지막이 벌이 스미는데, 그때 창 너머 마른 버드나무 가지 그림자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서 차 한잔 마시는 순간이 제겐 큰 행복이예요. 잎을 떨군 앙상한 겨울 나무 덕분에 산세며 계곡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근사해요. 도시에 있을 땐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쓸쓸했지만, 여기선 나무 그늘과 산자락에서 느껴지는 우주적 쓸쓸함을 곱씹어요. 더 치열하게 고독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랑 싸우기도 하죠.



그야말로 자발적 고립이군요. 어떻게 해야 '잘' 외로울 수 있을까요.

가만히 차를 우려 마시면서 물소리를 하염없이 들어 보세요. '하염없다' 같은 단어가 별안간 심연에서 솟아오르거든요. 이곳에선 그야말로 모든 일이 하염없죠. 요즘 빠진 취미가 이런 단어 놀이예요. 그러다 보면 나랑 잘 지내는 법을 배우게 돼요.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요. 최근에 독감을 크게 앓았는데, 덕분에 잠을 마냥 자고 일어나니 '쾌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우리 따라 선생님(스튜디오 따라)의 포토그래퍼 전재호)한테 전화 왔을 때도 그랬고요. 매일 같은 일상인 것 같다가도 환기가 되잖아요.

시골살이를 꿈꾸는 이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떠나세요. 나중에 가서 '그때 떠났어야 했는데, 그때 땅값이 얼마였는데' 하며 후회하지 말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시골에서 살다 보면 이 생활에 맞는 근육이 새로 생겨나요. 이즈음엔 버스만 타면 세상 모르게 깊고 달게 잠들거든요. 그렇게 비축한 에너지를 시골 생활에 사용하고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새로운 내가 만들어져요.

말끝마다 "아, 행복해"라고 외치시는데, 진심으로 느껴져서 마냥 부럽습니다. 어떻게 '효재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제 행복의 원칙 중 하나는 잘 먹는 거예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먹고 나서 일하는 사람, 일하고 나서 먹는 사람. 저는 당연히 먹고 나서 일하는 사람이죠. 우리 집 냉장고엔 삶은 문어가 떨어질 날이 없어요. 맛 좋은 괴산배추, 옥수수, 고추, 콩도 늘 비축해 놓아요. 언제나 맛있게 먹어야 하니까. 안 그러면 삶이 억울하잖아요.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맛있다" 외치고, "예쁘다" 소리 지르면서요.

지금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생명력 넘치는
조형미에 오묘한 푸른빛을 지닌 상형청자의 세계와 조우한다.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전 우리 삶과 자연을 아우르는 푸른빛

나무를 베니 남산이 붉게 물들었고/ 불을 피워 연기가 해를 가렸네/ 청자
잔을 빚어 내고/ 열 가운데 하나, 빼어난 것을 골랐구나/ 선명하게 푸른
옥빛이 반짝이니/ 몇 번이나 매연 속에 문혔던가/ 영롱하기는 수정처럼
맑고/ 단단하기는 바위와 견줄 만하네/ 이제 알겠네 술잔 만든 솜씨는/
하늘의 조화를 빌려 왔나 보구나/ 가늘게 새긴 꽃무늬는/ 묘하게 정성스
러운 그림 같구나-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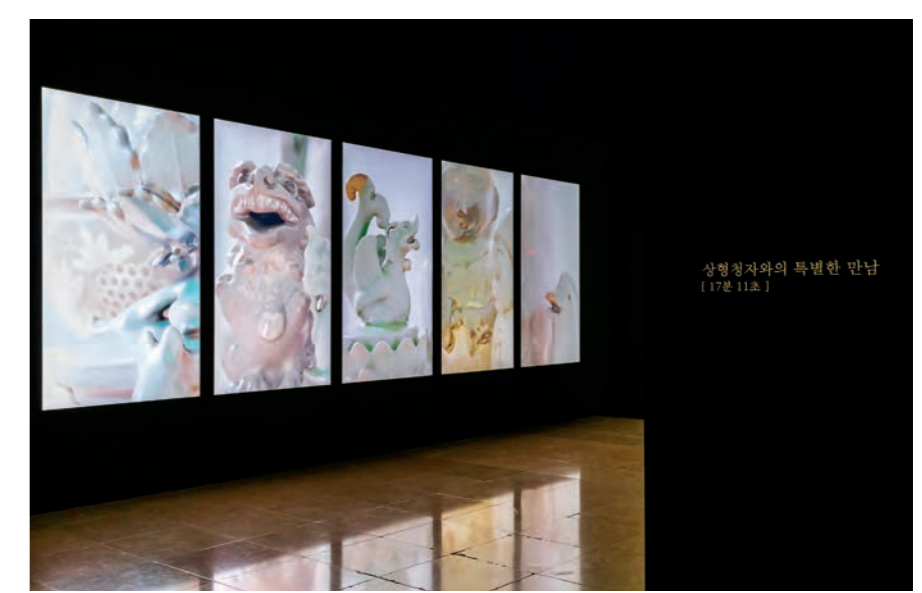
고려 시대의 문인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 제8권에 나오는 시의 일부다. 청자를
묘사한 이 시는 후대에 이르러 ‘청자송’ 혹은 ‘녹자배’라 불리는데, 글귀마다 고려청자
의 고유한 아름다움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와 기쁨이 서려 있다. 작은 술잔이 탄생하
기까지의 고된 여정과 그것을 귀하게 빚었을 장인에 대한 존중도 함께 읽힌다. 술잔에
생명이 깃든 듯 귀히 여긴 태도가 소박하고, 고려청자의 조형성과 오묘한 비색을 자
연의 맑은 빛깔에 비유한 문장은 청아하다.

많은 문인이 노래한 아름다움의 원천은 아마 세심하고도 재치 넘치는 조형미와 고려
청자 특유의 비색에 있을 것이다. 반투명한 막을 여러 겹 덧씌운 듯한 도자 표면의 오
묘한 청색을 비색이라 한다. 유약의 두께가 얇아 비취옥과 같은 녹색이 비치며 유약
안에 미세한 기포가 많아 반실투성(半失透性)으로 태도가 은은하게 드러나 미묘하고
기품 어린 색을 띤다.

상형청자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나다

삶의 가장 가깝고 귀한 사물, 혹은 예술품으로서 소임을 다했던 고려청자는 오늘날에도 과거의 시간을 몸에 아로새긴 채 우리 곁에 머문다. 천 년의 시간을 품은 귀한 청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전시가 지금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는 대상의 형상을 본떠 만든 상형청자의 다양한 면모를 만나는 기회다. 이번 전시에는 국보 11건, 보물 9건, 등록문화유산 1건을 포함한 상형청자의 대표 작품과 국내 25개 기관, 개인 소장자, 중국·미국·일본 3개국 4개 기관의 소장품 총 274건이 출품되었다. 주요 작품이 한자리에 집합한 대규모 전시이니만큼 공개하기까지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다수의 출품작과 오랜 준비기간이 증명하듯, 이번 전시는 단순히 작품의 나열이나 연대기적 혹은 평면적 구성에 그치지 않았다. 수많은 개별 자료를 하나의 덩어리와 흐름 안에서 파악하게 하는 기획과 동선, 시각적으로 집중도 높은 연출과 전시 디자인을 바탕으로 상형청자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조형 기법을 살펴보고 음미하도록 했다. 그래서일까. 국보나 최신표품이 아닌 매우 작은 크기의 작품, 발굴 당시 훼손된 작품에도 마음이 쓰이고 시선이 오래 머무른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청자 어룡 모양 주자'가 독립된 가벽과 조명 안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고려 왕실과 상류층에서 사용했던 것

로, 연꽃 위에 어룡이 고개를 들고 앉아 있는 형태인데 표면을 섬세하고 반복적으로 깎아 내 비늘의 입체감을 살렸다. 눈은 철 안료로, 지느러미 끝에는 백토로 점을 찍어 생동감을 강조했다. 상상의 대상을 그대로 청자에 옮긴 듯한 이 작품은 고려 상형청자의 압도적인 조형미를 다각도에서 보여 주는 대표작으로 전시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시각적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한 조명은 노을이 지는 강가에서 어룡 주자로 술을 따라 마셨을 고려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고려 시대 이전, 삼국시대 상형 토기와 토우를 통해 특정 대상을 본떠 만드는 '상형'의 오랜 전통을 가능할 수 있는 1부 공간을 지나면, 상형청자가 등장한 문화적 배경과 제작, 유통, 소비 양상을 살펴보는 2부 전시실에 진입한다. 고려는 11~12세기 중국 등 주변국과 문화를 교류하며 상형청자라는 고유한 영역을 구축했다. 당대 국제도시인 개경(현재의 개성)의 왕실과 상류층에게 상형청자는 향, 차, 술, 시와 그림, 완상의 취미를 만족시킨 도자기였다. 상형청자는 초기에 경기도 시흥, 용인 서리 등의 가마에서 생산해 서해안 바닷길을 따라 개경으로 옮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배가 침몰해 파손된 도자기도 전시한다. 충남 태안 앞바다와 보령 원산도, 전남 진도 등에서 발견된 이 도자기들엔 당시 운송 상황과 모진 풍파의 시간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



참고문헌
 임현자·이세우. (2013). 고려시대청자와 현대청자의 발색에 관한 비교분석연구. 한국도자학연구. 10(1). 123-136.



물고기 모양 인장부터 개구리 장식 연적까지, 자연물이 노니는 비색 연못이다.

'청자 어룡 모양 주자(靑磁魚龍形注子)', 고려 12세기, 높이 24.4센티미터, 국립중앙박물관



'청자 죽순 모양 주자(靑磁竹筍形注子)', 고려 12세기, 높이 26.8센티미터, 국립중앙박물관



우아한 곡선, 절묘한 비례 감각이 자아낸 청자의 고운 실루엣을 감상하는 시간이다.



'청자 원숭이 석루 모양 연적(靑磁猿石榴形硯滴)', 고려 12세기, 높이 8.0센티미터, 국립중앙박물관



유독 눈길을 끄는 작품은 '청자 원앙 모양 향로 뚜껑'이다. 연밥 위에 앉은 수컷 원앙 모양의 향로 뚜껑으로 깃, 날개, 다리와 발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해 독특하다. 각진 형태의 깃은 수컷 원앙이 겨우내 세우는 번식깃이다. 원앙 생태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관찰해 상형청자에 녹여 낸 선조들의 세심함, 그리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태도가 인상 깊다. 실제 자연물뿐 아니라 용, 기린, 사자 등 상상의 동물 역시 상형청자의 주된 소재였다. '청자 사자 모양 향로'는 그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빼어난 솜씨를 자랑하며, 북송 사신 서공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

재치와 상상력으로 빚어낸 자연의 세계

전시 하이라이트인 3부에서는 권위의 상징인 상상의 동물, 고려 사람들이 친구처럼 여긴 동식물의 형상을 구현한 대표 상형청자를 감상한다. 화려한 작품이 늘어난 가운데 소박하고 다정한 마음이 느껴지는 자그마한 청자들이 시선을 끈다. 도자기의 이모저모를 자세히 뜯어보니 선조들의 재치에 감탄할 만큼 귀여운 동물이 가득하다.

그 예로 '청자 원숭이 모양 목호'와 '청자 원숭이 석류 모양 연적'을 들 수 있다. 원숭이는 고려 공예에서 매우 인기 있는 소재로, 목호·연적·인장 등을 원숭이 모양 청자로 빚었다. 이것들은 모두 문인이 서재에서 벗처럼 가까이 두고 쓰던 물건이다. '청자 원숭이 모양 목호'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숭이들이 먹물을 담는 항아리를 들고 있다. 처진 눈썹에 입을 살짝 벌린 고된 표정이 생생하다. '청자 원숭이 석류 모양 연적'에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힘들게 숨을 몰아쉬는 듯한 원숭이가 등장한다. 원래는 석류보다 몸집이 훨씬 컸을 원숭이가 석류의 몸통을 끌어안고 매달린 모양새가 귀엽다. 자유로운 조형미를 드러내면서도 목호와 연적 고유의 기능을 해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감탄스럽다.

13세기 청자의 대표작이자, 12세기 최항의 무덤에서 출토된 국보 '청자 양각·동화 연꽃무늬 조롱박 모양 주자'는 아마 전시를 통틀어 가장 화려한 조형미를 자랑하는 작품일 것이다. 동화 기법으로 청자의 비색에 붉은색을 입히고 조롱박 형태 표면에 연꽃 문양을 양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자에서도 작은 동물에 대한 고려 사람들의 애정과 재치가 읽힌다. 아래의 큰 조롱박과 위의 작은 조롱박 사이 연꽃 줄기를 품에 안은 동자를 조각했고, 손잡이 위에는 개구리 한 마리가 뚜껑의 벌레와 마주 앉도록 구성했다. 청자의 용도와 의의를 관념적으로만 이해한 관객이라면, 청자를 여러 각도에서 오래 주시하며 표면에 섬세하게 표현한 동식물의 매력에도 빠져보기를 권한다.

전시를 마무리하는 4부는 현실과 일상을 넘어 내세의 영역까지 확장된 상형청자의 쓰임을 보여 준다. 종교를 통합해 개방적 사회를 이룬 고려이 그만큼 도교 의례에 사용한 상형청자, 도교적 도상이 드러나는 문방구, 각종 불상 등을 제작했다. 완상의 대상이었던 상형청자를 종교적 맥락으로 해석한 다채로운 결과물의 면면을 살필 수 있다.

까마득히 먼 시공간의 사람들이 빚고 굽고 칠해 만들어 사용했던 청자를 지금 온전하게 만난다는 것은,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연과 합일하고 풍류를 즐겼던 선조들의 삶에 감응하는 일과 같다. 오랜 시간 귀하게 쓰다가 현재까지 보존해 온 청자들을 맞닥뜨리면서, 현대인의 삶에 범람하는 수많은 일상적 사물의 의미를 새삼 되새긴다. 지나치게 간소화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된 사물은 이제 곁에 두는 벗이 아니라 빠르게 사용하고 폐기하는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오래도록 소중히 사용하는 사물에 대한 애정은 결국 일상을 사랑하는 일일 것이다. 손때 묻은 청자 앞에서, 일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굽고 새겨 함께하던 선조들의 귀하고 진심 어린 삶의 태도를 돌아볼 시간이다.

한 걸음 더

컴퓨터단층촬영, 3차원 형상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조사로 밝힌 상형청자 10점의 제작 기법을 인터랙티브 영상으로 살펴본다. 음각, 양각, 투각, 상감 등 모든 장식 기법을 활용해 고려 상형청자 가운데 가장 독창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의 경우 단층촬영을 통해 몸체에 꽃잎이 붙은 모습이 확인된다. 몸체를 여러 층으로 감싸는 꽃잎은 균일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도범을 활용해 정교하게 찍어낸 결과다. 한편 '청자 귀룽 모양 주자'나 '청자 석류 모양 주자'와 같이 복잡한 모양을 본떠 만든 주자는 안쪽에 상하부를 이은 경계선이 보인다. 대상의 기본 형태를 만든 뒤에 적당한 곳을 잘라 안에 있는 흙을 파내고 다시 이어 마무리했음을 알 수 있다.



'청자 사람 모양 주자(靑磁人物形注子)', 고려 13세기, 높이 28센티미터, 국립중앙박물관



〈허난설헌-수월경화(水月鏡花)〉
강릉의 예술가 허난설헌,
국악과 발레로 다시
태어나다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 〈허난설헌-수월경화(水月鏡花)〉를
허난설헌의 고향 강원도 강릉에서 만난다. 국립발레단과 강릉아트센터가
눈부시고 애달픈 예술가의 삶과 시를 무대로 옮겨 놓았다.





허난설현의 시를 읽는 시간

감우(感遇)

느낀 대로 노래한다

하늘거리는 창가의 난초 가지와 잎
그리도 향그럽더니,
가을바람 잎새에 한번 스치고 가자
슬프게도 찬 서리에 다시들었네.
빼어난 그 모습은 이물어져도
맑은 향기만은 끝내 죽지 않아,
그 모습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져 눈물이
흘러 옷소매를 적시네.

몽유광상산(夢遊廣桑山)

꿈속 광상산에서 노닐다

푸른 바닷물이 구슬 바다에 스며들고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에게 기대었구나.
부용꽃 스물일곱 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해라.

<허난설현-수월경화(水月鏡花)>

음악 황병기, 한진, 김준영,
심영섭, 박우재
안무 강효형
음악감독 김준영
무대 박연주
의상 정윤민
조명·영상 백시원
출연 국립발레단
단장겸 예술감독 강수진
공연시간 70분 (휴식없음)
공연일시 2월 14일 19:30,
15일 14:00, 16일 14:00
문의 www.gn.go.kr/artscenter/



물에 비친 달, 거울에 비친 꽃 춤으로 승화한 허난설현의 시

조선 중기의 천재 시인 허난설현은 여성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한스럽게 살다 갔다. 자신을 평생 외롭게 내버려 둔 남편, 몰락한 친정, 일찍 떠나보낸 두 아이에 대한 슬픔으로 몸이 점차 쇠약해지다 시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세상을 떠났다. 가혹한 삶 속에서 탄생한 허난설현의 문장은 독창성이 돋보이는 눈부시고 아름다운 글이었으나 생전에 빛을 보지 못하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중국 문인들 사이에서 칭송받았다.

작품 제목이기도 한 '수월경화(水月鏡花)'란 '물에 비친 달과 거울에 비친 꽃'을 의미한다. 눈으로 볼 수는 있으나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을 뜻하며, 시적 정취가 빼어남을 비유한 사자성어다. 허난설현의 시 중에서도 손꼽히는 '감우(感遇)'와 '몽유광상산(夢遊廣桑山)'이 <허난설현-수월경화(水月鏡花)>를 통해 무용으로 피어난다. 국립발레단 솔리스트이자 안무가 강효형은 두 작품에 등장하는 잎, 새, 난초, 바다, 부용꽃 등 자연물을 무용수의 움직임으로 형상화해 70분간 강렬하고도 아름다운 세계를 빚어 냈다.



강릉 예술의 수호 기지, 강릉아트센터

여행자가 사랑하는 도시 강릉은 남다른 문화적 저력을 지닌 고장이다. 강릉아트센터는 1993년 강릉문화예술관으로 건립한 이래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강릉 시민은 물론 강릉을 찾은 여행객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양질의 공연과 전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대공연장 사임당홀은 972개 객석, 150여 명이 오를 수 있는 무대, 최대 7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뮤지컬, 오페라, 음악회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소화한다. 훌륭한 콘텐츠에 예술적 영감과 감흥이 흐르는 이곳에서 강릉의 새로운 예술적 면모를 확인할 시간이다.

위대하고 창의로운 몸짓, 국립발레단

한국 발레를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은 1962년에 창단한 이래 다채로운 창작 레퍼토리를 선보여 왔다. <허난설현-수월경화> <왕자호동> <호이 랑>에 이어 2015년에 시작한 'KNB 무브먼트 시리즈'를 통해 신진 안무가를 발굴하고 소품 레퍼토리를 개발하며 창작 발레의 대중화에 힘썼다. '찾아가는 발레 이야기' '찾아가는 발레교실' '해설이 있는 발레'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해외에도 대한민국 발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2023년 5월 독일 비스바덴에서 <해적>을, 2024년 4월 영국 로열발레단 초청으로 <계절, 봄>을 선보이는 등 세계 무대에서 한국 발레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초루, 무르익는 시간의 거쳐

지천이 차밭인 전남 보성에서 온전히 자연의 의지로 검은 식초를 빚어내는 부부의 이야기.



1 건물 내부 어디서든 눈을 돌리면 자연이 보인다. 2 노지의 햇살 아래 넓게 펼쳐진 향아리밭. 3 삼나무 숲 계곡에 낮게 몸을 누인 초루의 건축물.



호숫가 십 리 길을 따라 심원한 남도의 사계가 펼쳐진다. 봄이면 만개한 왕벚꽃나무 아래 유채와 청보리 너울이 흔들리고, 가을에는 흐드러진 단풍 사이로 메밀 꽃이 망울을 연다. 한껏 물든 여름의 초록빛도, 시리도록 투명한 겨울의 아침 별도 저마다 정취가 깊다. 계곡 너머 편백나무 군락으로부터 청량한 바람이 불어 오면 움푹한 노지의 향아리마다 시간이 느릿느릿 무르익는 땅. 해평호와 삼나무 숲의 계곡이 두 팔로 감싸안은 이곳은 전남 보성 특량면의 오봉산 일원, 지난 13년간 천연 발효 식초를 빚어 온 '초루의 본거지'다.

숲과 물, 돌과 흙에 깃든 시간

초루 이야기는 오봉산 자락의 숲길 안쪽, 별과 바람이 모이는 187만 제곱미터(약 57만 평) 규모의 드넓은 터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뭘 만들면 좋을까, 어떤 여정이 이 땅과 가장 잘 어울릴까. 공동대표인 최진섭·한상미 부부의 고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 갔다. 이미 30여년 전부터 부지를 소유해 온 이들에게 눈앞의 자연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가능성의 무대였다. "평상시 발효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된장이나 고추장보

다는 특별히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던 차에 발효 식초를 만나 결심하게 됐죠. 이곳 노지에서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요." 물론 발효 식품이란 게 '해 보자' 마음먹는다고 곧장 뛰어 들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알아야 할 지식도 두텁고, 맞춰야 할 조건도 까다롭다. 특히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적 요소가 엄격해, 조금만 흐트러져도 발효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시중에 출시된 대부분의 양조 식초가 공장의 대형 탱크 안에서 생산되는 이유다. 단, 적절한 야외 환경을 찾아 잘 발효하고 숙성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귀한 자연의 산물도 없다. 노지 식초는 오래 숙성할수록 빛깔이 점점 짙어지는데, 이를 '검을 흑'자를 써 '흑초'라 한다. 햇살과 바람, 비를 맞으며 끝내 자연의 힘으로 완성되는 검은 식초라니, 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멋진 아이템인지. "흑초로 유명한 일본 가고시마현에 가 보니 기온이 여기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돌아와서 바로 시험 발효를 시작했죠." 땅에서 비롯한 아름다운 꿈은 부부의 매일매일을 시험에 들게 했다. 전국의 식초 명인이란 명인은 죄다 찾아다녔고, 향아리란 향아리는 전부 가져다 써봤다. 그야말로 '0'에서 시작한 만큼 익히고 연구할 것이 많았

한 해 한 해
충실히, 흑초와
함께 익어가는
최진섭·한상미
부부의 시간. 현재
초루에는 2500여
개의 향아리가
있는데, 매년
그 수를 조금씩
늘리는 중이다.

지만, 무엇보다 술한 실패를 딛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용기가 절실했을 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갖은 우여곡절을 겪는 사이, 이들을 다독여 준 존재 역시 이 땅이다. 대표 부부는, 오늘날 초루 흑초의 탄생은 이 지역이기에 가능했다고 입을 모은다. 알고 보니 300년 간 대를 이어 온 옹기 명인의 작업장이 지척에 있고, 맥 반석으로 뒤덮인 암반 지대의 물은 초를 발효하기에 더없이 좋았다. 여기에 일교차가 크고 사계절 온화한 득량면 일대의 기후까지 제 몫을 단단히 했다. 2017년 초루의 흑초는 서울발효식문화전의 '전통발효식초 전국 품평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며 품질을 인정 받았다. "그때 자신감을 얻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최진섭 대표의 얼굴에 일순 뿌듯함이 번졌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 간결한 말 한마디가 그간의 노고를 전부 씻어내는 듯했다.

시간을 마신다는 의미에 대하여

초루의 현미 흑초는 오직 세 가지 재료로 빚는다.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유기농 현미와 지하 80미터에서 길어 올린 천연 암반수, 그리고 둘 사이의 중간재 역할을 하는 누룩. 재료는 간단한데 문제는 과정이다. "식초가 발효 식품 중에서도 유독 담그기 어려운 건 서로 다른 발효가 두 번 이뤄지기 때문이죠. 1차 알코올 발효, 2차는 초산 발효예요. 즉 막걸리가 됐다가 그다음에 식초로 바뀌는 거예요." 과정을 간략히 서술하자면 이렇다. 우선 현미를 누룩으로 빚어 섭씨 25도에서 열흘쯤 알코올 발효한다. 이후 원재료가 술로 변하면 약 40~60일간 초산 발효가 다시 시작되는데, 이때 필요한 온도는 섭씨 32도다. "보성은 보통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 기온이 32도예요. 그러니까 2차 발효 시기에 맞추려면 1년에 딱 한 번, 5~6월에 식초를 담가야 하고요. 천연 발효가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비단 온도만이 아니다. 대담하게도 노지에 터를 잡은 흑초 생산자들은 자연의 온갖 불확실성과 끝없는 사투를 벌여야 한다. 특히 2차 발효가 끝나면 식초를 넣은 향아리를 완전히 밀봉하는데,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인내의 시간이다. 비가 쏟아지든 눈보라가 휘몰아 치든 초를 숙성하는 건 오롯이 자연의 몫. 그저 지켜보

며 틈틈이 확인하는 것 외에 인간이 나설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여름에 태풍이 닥치면 언제 향아리 뚜껑이 날아가 다른 향아리를 깰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른다. 어느 해는 강수량이 너무 많아 걱정이고, 또 어느 해는 일조량이 너무 적어 노심초사하고, 그럼에도 이 고단한 여정을 지속하며 나아가려는 건 아마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 때문일 테다. 이를테면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가치.

부부가 전라남도 무형유산 이학수 옹기장의 향아리를 고집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장인이 9대째 이어 온 전통 방식 그대로 빚어낸 향아리는 일교차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거듭하며 스스로 숨을 쉰다. 두께가 얇아 태양 빛을 흡수하거나 땅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기능도 수월하다. 현재 초루 부지 내에서 유독 별이 잘드는 자리에는 무려 2500여 개의 향아리가 넓게 도열해 있다. "흑초는 숙성 기간이 길수록 유기산이나 필수아미노산 같은 영양 성분이 많아지고 맛은 한층 부드러워져요. 특조지 않고 은은하면서 기분 좋은 산미를 내죠. 저희는 적어도 3년 이상 이곳 향아리에서 숙성한 흑초만 출시해요."

발효 식초를 향한 부부의 진심은 전통을 더듬어 끊임 없이 길을 닦고 연구한 생산자로서 사명감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에 주세령으로 한국 전통 식초의 맥이 거의 끊어졌거든요. 1960년대 밀주 단속 여파도 컸고요. 식초를 만들기 위해선 우선 술을 담가야 하니, 술 문화가 멈추면 식초 문화도 자연스럽게 단절되는 셈이죠." 부부가 일본이나 중국의 발달한 식초 문화를 확인할 때마다 느낀 안타까움은 이후 고스란히 초루에 전해졌다. 현재 이곳에서 출시하는 3년산과 5년산 흑초는 현미, 흑미, 녹차 세 종류다. 흑초에 사과, 녹차, 망고를 조합한 세 종류의 발사믹 흑초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발효는 기다림이에요.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하죠.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시간을 마시는 순간'이란 슬로건은 그런 의미예요."

자연과 공존하는 초루의 새 베이스캠프

제조 공간에서 복합 공간으로, 초루의 여정에 2막을 연 건 2023년 삼나무 숲과 계곡 경사면을 끼고 들어선

두 사람은 모든 것이 초루를 품은 자연의 혜택이라 믿는다.

안온한 별과 흙으로, 때로는 거센 비바람으로 이 땅에 계절을 심고 가꿔 온 자연. 그 깊숙한 손길로 묵묵히 내준 시간이 흑초와 함께 천천히 익어 가는 중이다.

모던한 건축물이다. 수평의 건물과 수직의 삼나무가 교차하는 절묘한 미감 사이, 누마루를 연상시키는 낮은 모듈형 공간은 제14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매스터피스 조민석 소장의 작품이다. “소장님을 처음 만날 때 저희가 원하는 건물의 특징을 A4 용지에 적어 갔어요. 건물이 ‘나 여기 있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자연을 덜 훼손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었죠.”

실제로 초루의 건축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히 자연에 조응하도록 설계했다. 이담한 중정을 중심으로 뒷마루처럼 내부 공간을 감싸고, 사방으로 창을 내어 언제 어디서든 눈부신 자연 풍광을 눈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계곡을 따라 난 아랫길과 삼나무로 무성한 윗길을 옥상 브리지로 연결한 것도 굴곡진 지형 속 건축과 자연의 순환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브리지를 따라 쪽 건다 보면 멀리 해평호와 향아리속 흑초, 그리고 계곡물이 서로 연결되어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최진섭 대표의 오랜 열망이 담긴 이 건축물은 현재 초루의 플래그십 스토어 겸 흑초 문화 홍보관 역할을 하고 있다.

최 대표가 부지 안팎을 오가며 이른바 하드웨어적 면에 집중한다면, 한상미 대표의 주무대는 건물 안, 특히 주방이다. 현재 예약제로 선보이는 음료와 브런치, 코스 메뉴 모두 그가 한식, 양식, 차와 디저트 등 각종 분야에 걸쳐 여러 지인의 도움을 받으며 개발한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어떻게 흑초와 이 지역 산물이 잘 어우러지도록 조합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둔 결과물이기도 하다. 실제로 초루의 모든 메뉴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흑초가 쓰인다. 음료에 넣을 유자청을 담글 때도, 다식에 올릴 무화과를 조리거나 코티지 치즈를 만들 때도 빠지는 법이 없다. “식초가 이렇듯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고, 여러 체험거리를 준비한

거죠. ‘식초가 들어간 줄 몰랐는데 너무 맛있다라거나 ‘식초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기쁘고요.”

한 대표는 무엇보다 자연이 지닌 치유의 힘을 굳게 믿는다. “이곳을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사람들이 느끼는 몸과 마음의 상태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의 모토예요. 몸 상태는 초루에서 좋은 발효 식품으로 만든 차와 요리를 맛보며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마음 치유는 자연이 다 알아서 해 줄 거고요. 뒷마루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충분하죠. 저희가 건물 외벽 전체를 유리로 마감한 이유예요.”

초루는 단순히 흑초를 만들고 소개하는 것을 넘어, 발효 식초를 테마로 폭넓은 휴양을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합 산업 단지를 꿈꾼다. 지난 10년이 노지에서 가능성을 찾고 쌓아 온 시간이라면, 앞으로 10년은 이 자리를 베이스캠프 삼아 흑초 문화를 산업적으로 확장하는 여정일 수도 있겠다. 숱한 가능성 중 부부가 현시점에서 고려하는 다음 단계는 일명 ‘초이너리’.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 밸리처럼, 방문객이 흑초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투어 프로그램과 공간을 새롭게 구상 중이다. 덕분에 고민거리는 늘고 준비해야 할 일도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예상외로 걱정이 그리 깊진 않다. “그동안 이 일을 하면서 고마운 분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물론 지칠 때도 있는데, 참 희한하게 그럴 때마다 다가와 힘을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저희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면 결국 좋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합치다 보면 혼자서는 못 할 일도 해내겠죠.” 부부는 모든 것이 초루를 품은 자연의 혜택이라 믿는다. 안온한 별과 흙으로, 꽃과 나무로, 때로는 거센 비바람으로 이 땅에 계절을 심고 가꿔 온 자연. 그 깊숙한 손길로 묵묵히 내준 시간이 흑초와 함께 천천히 익어 가는 중이다.

1 브라우니와 초콜릿 등 작은 디저트 하나에도 흑초가 담겼다.
2 초루의 흑초와 발사믹 흑초 제품.
3 향아리에 담긴 흑초는 햇볕을 거듭할수록 빛깔이 점점 짙어진다.
4 숙성 중인 흑초를 살피는 최진섭 대표.





취향의 탐색, 완성의 기쁨

서울의 다양한 취향이 모이는 동네, 성수동. 나만의 특별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찾았다.

1 페인트로 색칠한 베어브릭에 스케치하는 모습. 2 인쇄된 도안을 채색하고 있다.
3 오일 파스텔, 색연필, 매직 등 다양한 미술용품이 놓여 있다.



| 1 | 누구나 화가가 되는 곳 성수미술관

나만의 미술 작품을 만드는 체험 공간. 성수미술관에서는 누구나 화가가 될 수 있다. 미리 마련된 도안에 원하는 색을 칠하는 쉬운 과정이라 눈 깜짝할 새 근사한 그림을 완성한다. 최근에는 베어브릭에 연필로 스케치하고 페인트로 색칠한 뒤 말리는 베어브릭 페인팅 체험도 인기다. 공간은 벽이 뚫린 곳과 거울이 있는 곳으로 나뉜다. 각 공간에는 두 명이 이용 가능한 의자와 이젤을 두었다. 방문객들의 낙서로 가득한 벽은 마치 그래피티 아트처럼 자유분방한 느낌을 자아내 영감을 샘솟게 한다. 기본 재료로 주어지는 아크릴물감 사용 시 붓은 물기를 충분히 뺀 후 색칠해야 발림성이 좋고, 색이 마른 뒤 덧칠하기를 반복했을 때 더 깔끔하고 선명하게 표현된다. 다만, 아크릴물감은 잘 지워지지 않기에 앞치마와 토시 착용이 필수다. 이 외에도 오일 파스텔, 네임 펜, 색연필, 매직 등 다양한 미술 용품은 다양한 질감을 살린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기에 좋다. 귀여운 뽀모자는 화가가 된 기분을 내기 좋은 소품이니 활용해 보자. 체험은 2시간 간격으로 예약 가능하며, 만석이 아닐 경우 무제한 그릴 수 있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39 문의 0507-1324-1143 비용 1인 입장권 2만 3000원(저작권 있는 도안 추가 비용 2900원)





1 서울숲 딱따구리 성수 내부.
2 키팅 만들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2000가지가 넘는다.
3 다양한 색의 모루가 꽂힌 모습. 4 완성한 모루 인형에 옷을 입고 있다.



2

세상 귀여움은 다 모인 키팅 천국
서울숲 딱따구리 성수

서울숲 딱따구리 성수는 모루 인형 키팅, 뽑기 파우치 키팅, 인형 파우치 키팅, 와펜 키팅 등 세상 모든 키팅이 다 모인 곳이다. 2000가지 이상의 재료를 보유해 취향대로 골라 만드는 재미가 쏠쏠하다. 가장 인기 많은 체험은 모루 인형 키팅 만들기과 뽑기 파우치 키팅 만들기다. 모루는 철사에 털실을 감아 만든 공예 재료를 뜻한다. QR 코드로 연결된 동영상을 보면서 원하는 색의 모루를 접고 당기고 돌리고 꼬기를 반복하며 차례로 귀, 얼굴, 팔, 다리를 만들다 보면 어느새 토끼, 곰, 오리 모양새를 갖춰 간다. 이 인형에 눈과 코를 붙이고 옷과 액세서리까지 장착해 원하는 가방에 달아주면 한층 사랑스러움을 더한다. 파우치에 취향껏 다양한 재료를 가득 채워 완성된 뽑기 파우치 키팅도 아기자기한 즐거움을 준다. 누구나 쉽게 귀여운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남산과 지나가는 기차가 보이는 루프톱에서 완성한 키팅과 함께 인증 사진을 찍어도 좋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6길 22 문의 0507-1459-0689
비용 모루 인형 키팅 만들기 1만 2900원

3

안온함이 머무는 도예 공방
예술로51

별이 잘 드는 2층에 자리한 예술로51은 아늑하고 포근한 온기가 가득한 도자기 공방이다. 도예가 집안에서 자라 어린 시절부터 가마실에서 놀던 서지숙 대표는 이곳에서 낮은 채도와 목직한 색감의 그릇을 빚어내고 있다. 흙의 철분이 그대로 노출된 검은 반점 그릇은 예술로51의 시그니처로, 고아한 멋이 흐르면서도 거친 질감이 살아 있어 인기가 많다. 흙덩이를 두드리고 퍼낸 뒤 원하는 석고 틀에 밀착시켜 모양을 만드는 핸드 빌딩 체험에서 관건은 흙을 조심스레 다루는 것. 흙은 외부 자극을 기억하고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에 조금씩 다루면 가마에서 휘거나 갈라질 수 있다. 컵을 만드는 물레 체험에서는 발판으로 물레를 돌리면서 물을 적신 손으로 기동 모양의 흙을 감싸 살살 어루만지며 형태를 갖춰 간다. 그릇 모양이 완성되면 유약을 발라 색을 입히는데, 황동색과 청자색 등 독특한 색감의 유약을 일곱 가지나 보유해 선택의 폭이 넓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완성한 도자기는 두께가 얇아 휴대성과 실용성이 높다. 요즘에는 이곳의 마스코트인 강아지 예술이를 보러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길 8 문의 0507-1377-0871
비용 핸드 빌딩(접시 2개) 7만 5000원



1 물레 돌리는 모습. 2 예술로51 시그니처 그릇. 검은 반점이 특징이다.
3 초벌을 마치고 재벌을 위해 대기 중인 그릇. 4 서지숙 대표가 빚어낸 그릇들이 예술로51에 차곡차곡 포개져 있다.





1 열을 가하는 기구로 병뚜껑을 녹이고 있다. 2 완성한 키링. 각기 다른 병뚜껑을 녹여 만들어진 알록달록한 색깔이 감각적이다. 3 내열 시트 위에서 병뚜껑이 녹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4

병뚜껑의 알록달록한 변신 위키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하면서 개성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싶다면 위키를 추천한다. '우리는 결국 지구를 지키게 돼 있어(We Eventually Keep Earth)'라는 영어 문장의 앞 글자를 따 이름 지은 위키(WEKE)는 버려지는 병뚜껑을 수거해 키링 만들기 체험을 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먼저 음료 라벨에 'HDPE'라고 적힌 병뚜껑을 준비할 것.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약자인 HDPE는 열을 가할 때 연기나 냄새,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체험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병뚜껑 입구가 위로 향하게 내열 시트 사이에 놓은 뒤 열을 가하는 기구로 천천히 녹인다. 병뚜껑마다 높이가 달라 열이 고루 전달되도록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병뚜껑 안쪽 공기가 빠지면서 나는 '타닥' 하는 마찰음이 마치 장작 타는 소리와 같아 마음이 편안해진다. 병뚜껑이 고무찰흙처럼 되면 접고 녹이기를 반복하는데, 그 횟수가 적을수록 병뚜껑 고유의 색이 살아난다. 일정한 두께가 되면 도장을 찍은 뒤 열이 식기 전에 칼로 다듬고 키링과 어울리는 오링과 군번줄을 끼워 완성한다. 병뚜껑 색 조합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 지기에 이곳에서 만든 키링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8길 4 문의 0507-1319-1378
비용 무제한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2만 1000원



5

유일무이한 색을 창조하는 실험실 모나미스토어 성수점

만년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두 눈이 번쩍 뜨일 체험 공간. 모나미스토어 성수점에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색을 만들어 소장할 수 있는 잉크랩 체험을 운영 중이다. 다양한 문구류가 모인 공간 가운데 화려한 색의 물감을 풀어 놓은 플라스크와 잉크병, 조그마한 유리 비커가 진열되어 있는데, 흡사 실험실을 연상시킨다. 15가지 색 중 최대 5가지를 골라 원하는 비율로 섞으며 색을 제조하는 경험이 특별하다. 어떤 색이 나올까. 잉크를 한 방울씩 떨어뜨릴 때마다 기대감이 증폭된다. 궁금할 때는 유리 막대로 잉크를 섞은 뒤 펜촉에 찍어 종이에 직접 그려 보며 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종이에 닿은 잉크가 마르면서 색이 확연히 변하기 때문.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다!' 하는 색이 나온다. 레시피 종이에 잉크 비율을 기록하면 나만의 색으로 가득 채운 잉크병과 플러스 펜을 건네받는다. 내가 만든 유일한 색이니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잊지 말자. 같은 레시피로 재주문도 가능하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4 문의 02-466-5373
비용 잉크랩(잉크 DIY 체험) 2만 5000원





6

맛과 색감, 건강까지 담은 담금주 공방 유유히 성수

지난해 6월에 오픈한 유유히 성수는 담금주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한다. 공간에 들어서자 유리병에 가지런히 담긴 23가지 오색 빛깔 재료가 눈을 사로잡는다. 무화과, 파파야 같은 과일과 국화, 히비스커스 같은 꽃은 물론 로즈메리, 박하 등 허브와 아란문, 헛개 등 약초까지 다양하다. 모든 재료는 맛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조해 사용한다. 수업은 맛도 매력도 다 다른 유유히 성수의 시그니처 담금주 3종 시음으로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담금주를 만들지 고민하는데 재료마다 다른 의미와 효능, 추천 조합까지 배울 수 있다. 공부를 끝냈다면 먼저 원하는 당도에 맞춰 얼음 설탕을 넣은 뒤 병에 반절 정도 재료를 담는다. 그런 다음 30도 이상의 증류주로 병을 가득 채운다. 증류주는 30도 이상은 돼야 술을 담갔을 때 재료 본연의 맛이 더욱 잘 살아난다. 유유히 성수의 증류주는 국내산 배 농축액을 첨가해 목 넘김이 부드럽다. 끝으로 담금주 이름, 제조 날짜, 오픈 날짜, 재료를 기록한 카드를 묶으면 나만의 담금주가 완성된다. 담금주는 최소 한 달 이상 실온에 보관했다가 음용한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함께 만들거나, 재료의 의미와 효능을 담아 소중한 이에게 선물해도 좋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9길 5 문의 0507-1498-2381 비용 담금주 만들기 500달러리터 3만 5000원(매달 변동, 문의 필요)



1 마이페이보릿팅스에서 제공하는 실. 2 뒷면에 라텍스로 풀질하는 모습. 3 터프팅 건을 이용해 천에 실을 심는 중이다. 4 완성한 트레이와 실.



1 과일, 꽃, 허브, 약초 등 담금주 재료 23가지가 놓여 있다. 2 완성한 유유히 성수 담금주. 3 원하는 재료를 병에 넣는 모습.



7

스트레스는 날리고 포근함은 더하는 터프팅 마이페이보릿팅스

겨울철 일상에 온기를 더하는 복슬복슬한 촉감의 소품을 장만하고 싶다면 마이페이보릿팅스로 향하자. 이곳은 공예 기법 터프팅으로 원하는 디자인의 러그, 거울, 휴대전화 케이스 등 소품을 만드는 공방이다. 터프팅이란 머리카락, 잔디 등이 촘촘하게 난 다발을 뜻하는 영어 '터프트(tuft)'에서 온 명칭으로, 총처럼 생긴 터프팅 건을 이용해 천에 실 다발을 심는 기법을 말한다. 상담을 통해 도안을 결정하면 밑그림과 함께 기본 틀을 제공하며, 체험자는 원하는 색깔의 실을 골라 작업을 시작한다. 터프팅의 매력은 속도감이다. 터프팅 건을 직각으로 들고 천에 총을 쏘듯 앞으로 강하게 밀면 '두두두두' 소리를 내며 빠르게 실이 심어진다. 이때 손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지는데, 내면의 꽉 막힌 에너지를 바깥으로 쏟아내는 듯한 쾌감이 들어 스트레스도 해소된다. 테두리부터 안쪽으로 촘촘히 매운 뒤 실이 풀리지 않도록 라텍스 접착제로 붙이고 메시 원단을 덧대어 밀착력을 높인다. 이후 드라이기로 말린 뒤 틀에서 분리해 트리머와 가위로 세심하게 다듬으면 일상에 포근한 감성을 더해 줄 나만의 소품이 완성된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독성로1가길 24 문의 0507-1318-3652
비용 미니 소품(트레이, 미니 러그 등) 9만 5000원



지금 입장할게요

찬 바람이 불면
자연스레 실내로
발길이 향한다. 아늑한
공간에서 콘텐츠를
즐기고 싶은 사람을
위해 두 가지 선택지를
마련했다.



모든 관객을 반기는 극장 무비랜드

지난해 서울 성수동의 한 골목길에 놀이공원을 표방하는 극장이 들어섰다. 창의적인 시도를 거듭하며 사랑받은 콘텐츠 디자인 브랜드 모베러웍스가 기획부터 설계, 운영까지 도맡았다. 1층은 팝콘과 추로스 등 간식을 판매하는 구역과 기념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꾸렸다. 막 튀겨 내 따뜻한 팝콘을 들고 2층 문을 열면 곧 상영할 영화의 사운드트랙이 흘러나온다. 무비랜드는 매달 큐레이터를 선정해 그의 취향을 반영한 영화를 든다. 크리에이터 문상훈, 뮤지션 김오키, 배우 박정민과 이제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큐레이터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2층 공간은 추천인과 추천 작품에 맞춰 구성을 바꾼다. “꿈이어 <킴은 킴은>이 상영됩니다. 지금 입장해 주세요.” 안내에 따라 3층으로 올라가니 30석 규모의 극장이 나온다. 영화 시작 전 이용 안내 영상에는 영화보다 팝콘이 좋은 ‘스낵 킬러’, 방구석 평론가 ‘헤비스 포일러’ 등 모든 관객을 포용한다는 유쾌한 내용이 담겼다. 졸음을 참지 말라는 당부도 인상적이다. 편안한 의자를 내세울 만한데, 폭신한 착석감뿐 아니라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도 발이 땅에 닿는다는 점이 훌륭하다. 좌석의 앞뒤 간격도 넉넉하게 설계했다.

“예상했던 일들은 안 일어날 거예요. 생각 못 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요.” 작품을 관통하는 이 대사가 무비랜드를 연상시킨다. 영화를 볼 때 하나의 태도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늘 긴장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우리에게 무비랜드는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몸에 힘을 빼고 머무리라 말하는 듯하다. 여러 상점이 빠르게 생기고 사라지는 성수동이지만 부디 이곳만큼은 그대로이길. 진심을 다해 공간을 꾸려 가는 극장주와 관리자가 언제까지고 관객을 환대해 주길 바란다. 모베러웍스의 캐릭터 로고가 박힌 문을 활짝 열면서 말이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5-5 문의 @movieland.archive



권지우 마케터

“유튜브 채널 <모티비(MoTV)>에 이달의 큐레이터를 인터뷰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 ‘무비랜드 라디오’를 올리고 있어요. 영화 시작 전 대기 공간에서 영상을 보며 기다리는 걸 추천합니다. A열 좌석을 택한 경우 팝콘, 콜라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과 자주 방문하는 관객 ‘마스터즈’에게는 브랜드 협업 행사 때 예매 가능한 링크를 미리 공유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만화로 되찾는 유머 그래픽 바이 대신

3년 전 서울 경리단길에 나타난 북 카페 '그래픽'은 오픈과 동시에 많은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독특한 질감의 회색 건물은 물론, 팔이 흘러 나오는 실내 공간에 비치한 감각적인 그래픽 노블과 아트 북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그래픽의 새 지점 '그래픽 바이 대신'이 서울 송파구 대신위례센터에 생겼다는 소식이 걸음을 재촉했다.

자리를 선택하고 QR코드를 스캔하자 입장·퇴장 시간과 좌석 번호가 뜬다. 소지품을 내려놓고 계단을 내려가니 왼쪽에 또 다른 공간 '리딩 룸'이 눈에 들어온다. 마블 코믹스, 역사·시대극, 자연·동물,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무수한 만화책이 책장에 꽂혀 있다. 몰입할 장소가 필요한 이용자를 위해 이태원점과 달리 스피커 대신 노트북 존을 마련했다. 누군가의 취향이 깃든 코너를 놓칠 수 없어 '월간 그래픽' 서가에서 직원이 적은 문구를 훑었다. "어딘가 돌아 있는 책에 진심인 독서광들의 개그 만화" 웹툰으로 조금 보다 말았던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을 품에 안고 자리로 복귀했다.

그래픽 바이 대신의 진가는 책을 읽는 도중에 깨닫는다. 잠시 숨을 돌리려고 의자에 몸을 기댈 때, 정면에 별빛이 반짝이는 스크린이 보이고, 고개를 들면 높은 층고에 눈이 트인다. 2층 곳곳에 놓인 식물도 눈을 편안하게 한다. 모든 좌석이 앞을 향해 있어 모르는 이와 눈 마주칠 걱정 없이 책을 읽는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구조가 영화관 같다.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에 나오는 한 독서 모임 회원이 최승자의 시 '일찍이 나는' 속 문장을 되뇌다.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수많은 정보 사이에서 버둥거리다 나만의 속도로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비로소 살아 있음을 느낀다. 만화가의 유머에 한 번 웃고, 이곳저곳 다니며 개성 가득한 책 표지를 구경하고, 공간을 채우는 재즈 음악에 따라 호흡을 가다듬는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387 문의 @graphic.fan



정다운 매니저

"이태원점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간편하게 먹기 좋은 조각 피자를 판매하고, 라테 선택이 가능한 무료커피머신을 들었습니다. 중정과 '불멍'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은 환기가 필요할 때 유용할 거예요. 독서에 집중하고 싶다면 음악이 나오지 않는 리딩룸을 이용하세요."



대전역 원도심 산책

역사가 담긴 맛부터 새로운 쓰임을 찾은 옛 공간까지, 대전 여행을 마치기 1시간 전 마음을 충만하게 해 줄 곳을 소개한다.

대전 여행의 출발점

대전트래블라운지

주소 대전시 동구
중양로 187-1
문의 042-226-8410



여행 책자 무료 제공, 무료 짐 보관 서비스, 다국어 안내 지원, 교통 약자를 위한 휠체어 대여까지. '대전트래블라운지'에는 여행자를 위한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다. 대전역에서 목적교 방향으로 도보 4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훌륭하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KTX를 타기 전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좋다. 1층에서는 대전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꿈씨패밀리 굿즈를 판매한다. 2층에서는 옛날 교복 체험, 개화기 의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꿈돌이를 색칠하는 드로잉 공간과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문화 콘서트도 열린다. 이곳을 이용한 후 설문 조사에 참여하면 여행 중 찍은 사진 한 장을 즉석에서 인화해 준다. 대전 여행을 마무리하기 전 추억의 한 컷을 만들어 간직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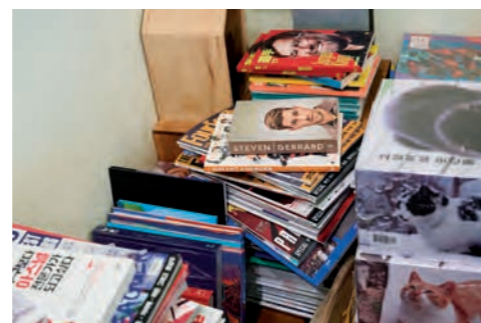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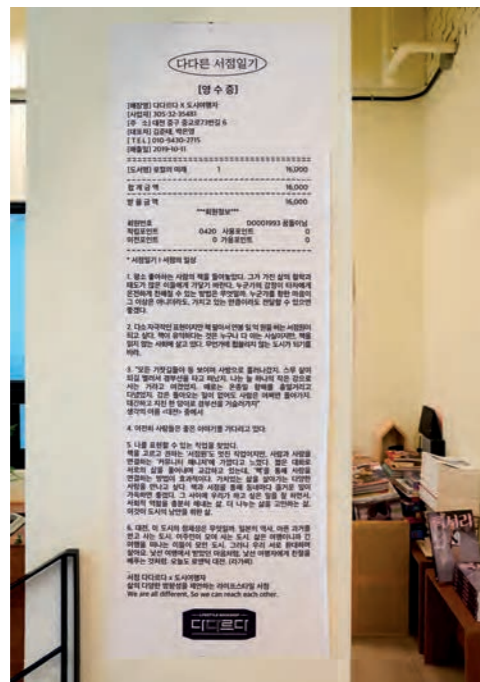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역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영수증의 새로운 쓰임을 찾아낸 서점

다다르다



대전 여행을 추억하기 위한 책을 구매하고 싶다면 독립 서점 '다다르다'를 추천한다. '우리는 다 다르고, 서로에게 다다를 수 있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상호다. 건물 1층은 카페, 2층은 서점으로 운영한다. 2층 서가 옆에는 무성한 아스파라거스가 반겨 주는데, 글과 자연에서 얻는 힘을 중시하는 대표의 마음이 담겼다. 이곳은 독립 출판물은 물론, 지금 지역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를 다룬 작품까지 다양한 책을 소개한다. 책을 구매할 때 직원이 "영수증 드릴까요?"라고 물으면 꼭 받아 둘 것. 다다르다의 영수증은 유난히 길고, 그 안에 적힌 내용도 특별하기 때문이다. 영수증에는 서점의 소소한 일상이나 직원이 좋아하는 책 속 구절 등이 담겨 있다. 쉽게 버려지는 영수증을 독자와 소통하는 매개체로 삼은 점이 독특하다. 책방에서 직접 큐레이션한 대전 아날로그 가이드 투어 지도를 무료로 제공한다.



주소 대전시 중구
중교로73번길 6
문의 @diffreach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근대건축
문화유산

헤레디움



Hercules Model 32, 2010, Markus Lüpertz, Courtesy Michael Werner Gallery / VG Bild-Kunst, Bonn-SACK, Seoul, 2024

라틴어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라는 의미를 지닌 헤레디움. 원래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대표적 수탈 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 지점이었다. 당시 대전을 상징하던 신식 건축물로, 철근 콘크리트와 붉은 벽돌 그리고 경사 지붕으로 이루어진 서양 건축양식이 특징이다. 해방 이후 상업 시설로 이용하다 2004년 9월 근대건축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년여에 걸친 복원 작업을 거쳐 옛 모습을 되찾았고, 지금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 주로 클래식 음악 공연과 현대미술 전시를 선보이는데, 2월 28일까지는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 마르쿠스 뤼페르츠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관람 후 1층에서 전시의 여운을 즐겨도 좋다.

주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35
문의 0507-1422-2075

담백함의 진수
이북식 만듦집

개천식당



70년 전통의 이북식 만듦집. 평안남도 개천에 살던 고 백옥실 대표가 피란길에 대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위치에서 장사를 시작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역 부근 대전중앙시장 입구에 자리해 현지인은 물론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개천식당의 인기 메뉴는 만둣국과 부추튀김만두. 갈비탕처럼 맑은 국물이 특징인 이곳 만둣국에는 큼직한 이북식 만두와 함께 쇠고기, 달걀, 당면이 들어간다. 고기와 채소에 고춧가루를 섞은 만두 소는 씹을수록 고소하다. 부추튀김만두는 굽듯이 튀겨 내 담백하고 기름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 부담 없다. 기본 반찬으로 배추김치와 시원한 물김치가 나와 습습한 만두와 찰떡궁합을 이룬다. 열차 타기 전 시간이 촉박하다면 떡국용 만두를 포장해 가도 좋다.

주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779번길 39-2
문의 042-256-1003

야간열차를 기다리며
분위기에 취하는 곳
**전기줄 위의
참새**



상호만 보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곳의 정체는 놀랍게도 LP 바다. 안으로 들어서면 이름 그대로 나무 전기줄 위에 참새가 앉아 있다. 어린 시절 이런 풍경을 자주 보았다는 최평근 대표는 향수가 깃든 장면을 이곳에 재현했다. 그 시절 추억을 함께 나누는 손님도 있고, 이색적 풍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손님도 많다. 벽면에는 최 대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60년 넘게 모아 온 LP가 뽁뽁하게 들어차 소중한 보물 창고를 엿보는 느낌이다. 신청곡을 건네받은 최 대표는 서가에서 단번에 LP를 골라 노래를 틀어 준다. 음악이 흘러나오면 술과 안주도 찾게 되는 법. 돈가스, 모듬 소시지 등 식사류는 물론 병맥주와 커피 같은 낯알고을 음료도 있으니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부담 없이 음악에 취할 수 있다.

주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811
문의 042-533-6686

100년 역사가
흐르는 로컬 찻집
**소제예찬
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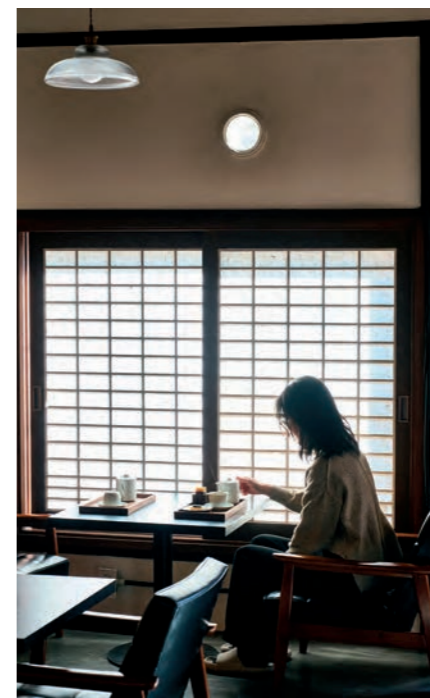
전국에 남은 철도 관사촌 중 형태가 가장 잘 보존된 곳은 대전 소제동의 관사 16호다. 이곳이 10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 로컬 찻집 소제예찬1927로 변모했다. 소제동의 아름다운 호수 소제호를 기억하기 위해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이자 한국 차 문화를 재해석하는 찻집으로, 차분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소제예찬1927에서 지역 차 농장과 협업해 다채로운 한국 차의 면모를 알려 온 브랜드 '티컬렉티브'는 향 중심의 서양 차와 달리 신선한 찻잎을 각각의 차에 맞는 농도로 우려내는 점이 특징이다. 향긋한 썩과 로즈메리를 블렌딩한 시그너처 차 아르테미스는 디카페인이라 가볍게 즐기기도 좋고, 카페인이 들어 있지만 상큼한 유자를 블렌딩한 유자홍차도 인기 메뉴다. 정과 2종, 양갱 등 다식을 함께 제공하는 티 플레이트는 차 맛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이곳에서 맛본 티컬렉티브의 차는 정갈하게 포장돼 선물용으로도 좋다.

대전 최초 독립
예술 영화관
**대전아트
시네마**



2006년 4월에 개관한 대전 최초 독립 예술 영화관인 '대전아트시네마'.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영사기가 돌아간다. 허름한 입구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필름 테두리 모양을 양각한 나무 간판과 영화 포스터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로비에는 긴 테이블과 1000장이 넘는 DVD, 책 등 오래된 영화 자료가 비치돼 있다. 영화 제작에 사용하는 조명 기구와 카메라, 오래된 영화 포스터가 곳곳에 소품처럼 자리해 빈티지한 분위기를 더한다. 영화를 기다리며 주인장의 추천 메뉴인 상큼 달콤한 맛의 애플티도 맛볼 것. 영화관은 한 관만 있고, 자유석이라 원하는 좌석에 앉으면 된다. 내부로 들어가면 옛날 영사기와 앉으면 삐걱거릴 것 같은 투박한 빨간 의자가 관람객을 맞는다. 특정 영화의 경우 이벤트로 포스터나 엽서 같은 굿즈를 증정하기도 하니 미리 대전아트시네마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 좋다. 영화 티켓은 홈페이지나 로비 카운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주소 대전시 동구
중앙로 192
문의 042-472-1138



주소 대전시 동구
수향길 19 관사 16호
문의 0507-1337-3494

고유한 감각의 세계, 한국수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수어는 한국의 공용어가 됐다.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수어의 개념부터 농민화를 담은 창작물까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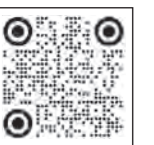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한국수어를 단순한 손짓과 몸짓으로 간주했다. 소통을 돕는 수단 정도로 여겨 수어를 사용하는 농민을 혼자서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했다. 그러다 해외에서 시작된 수어 연구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영향을 주었고, 2002년 충남 천안의 나사렛대학교와 경기도에 위치한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구 한국재활복지대학)에 관련 학과가 개설되면서 한국수어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다. 2016년 2월 3일, 한국수어의 역사에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 법은 '수화' 대신 '수어'라는 용어를 공식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수화언어'를 뜻하는 표현을 사용해 수어가 고유한 어휘와 문법 체계를 지닌 독립적 언어임을 인정한 것이다. 수어가 법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농민 사회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겨났다. 수어를 향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농민 언어권 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을 뿐 아니라 수어 통역 서비스 같은 실질적인 시스템이 도입됐다. 자연스레 수어의 위상 또한 높아졌다. 법 제정 이후 한국수어 사전은 개편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기존 수어 사전은 한국어 단어에 적합한 수어 표현을 일대일 대응하는 방식을 택해 한국수어의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립국어원은 2015년부터 한국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제작한 사전을 올해 한국수어의 날에 공개한다. 한국수어 말뭉치란 농민이 실제 사용하는 수어를 수집해 전산화한 대규모 자료를 가리킨다. 개편한 사전은 수어 단어의 본래 의미와 문맥을 체계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농민과 청인 모두의 이해를 돕는다. 수어 사전을 활용해

농민은 자신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청인은 농민 시각에서 수어를 바라볼 수 있다. 수어에 한 걸음 다가갔다면 다음 목적지는 수어 문학이다. 이미 존재하는 한국 문학을 수어로 번역한 형태라 생각하기 쉽지만, 수어 문학은 농민 문화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수어로 창작한 작품이다. 수어 문학이 탄생하기 전에는 농민 문화와 청인 문화의 혼합물인 수화노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화노래는 가사를 수어로 번역한 것에 불과해 시각적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생생한 이야기가 부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화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2015년 수어 문학을 널리 알리는 단체, 수어민들레가 출범했다. 2018년에 중국 수어 문학 예술가 장평을, 2019년에 이탈리아 수어 문학 예술가 주세페 주란나를 초청해 워크숍과

공연을 열었고, 지난해 8월에는 미국의 수어 문학 예술가 이안 산본과 함께 한국 농민들에게 수어 문학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농민과 청인이 문학을 매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수어 시를 같이 공부하고 각자 개성을 살린 작품을 만들어 그 결과물을 전시했다. 전시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 가능해 수어 시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수어시는 수어문학중 농민의 삶과 심상이 가장 정교하게 드러나는 장르다. 수어민들레의 대표작 손칭의 '희망꽃은 청인 엄마가 농민 아이를 낳으면서 꺾는 내적 갈등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농민의 시각으로 담았다. 아이를 꽃에 비유해 희망의 상징이라 표현한 이 작품은 수어의 감각적 아름다움과 예술적 깊이를 극대화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작품인 이미신의 '육상대회'는 한국·중국·일본 선수가 관객의 응원을 받으며 경기를 펼치는 장면을 생동감 넘치게 풀어냈다. 이처럼 수어 문학은 수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강렬함을 지닌 예술 언어임을 일깨운다. 수어 문학이 뿌리내리려면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농민 창작자를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수어 문학을 알릴 플랫폼을 마련해야 농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동적 주체자로 설 수 있다. 수어 문학의 확장은 예술 장르의 폭을 키우고 더 나아가 농민의 삶을 이해하는 통로를 넓히는 작업이다. 수어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는 민들레처럼 농민의 삶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꽃을 피우며 강인한 생명력을 이어 왔다. 수어가 바람을 타고 더 널리 퍼져 모두의 언어로 환영받길, 언젠가는 수어 문학이 한국 문학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어민들레'의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대표작품 '희망꽃' 육상대회를 감상해 보세요.



무대로 향하는 별들

스타들의 도전으로 뜨겁게 달궀진 연극 무대는 올해도 그 열기를 이어 갈 전망이다. 새롭게 도전하거나 혹은 아주 오랜만에 복귀하는 별들의 무대 소식.

연극 마니아에게 2024년은 황홀한 해였다. 전도연, 황정민, 조승우 등 일명 '톱티어' 배우들을 무대에서 만나다니, 다시 생각해도 꿈이 아닌가 싶었다. 특히 전도연은 1997년 <리타 길들이기> 이후 27년 만에 <벚꽃동산>으로 무대에 올랐고, 뮤지컬 스타로 유명한 조승우는 <햄릿>으로 처음 연극에도 전해 화제를 모았다. 이들의 티켓 파워 또한 어마무시했다. 30회 차 단일 캐스트로 진행된 <벚꽃동산>은 객석 점유율 95퍼센트로 4만 관객을 동원했고, <햄릿>은 시야 제한석까지 전회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무대에 오른 스타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24년 만에 연극 무대를 찾은 박성웅을 비롯해 최원영, 문정희, 박효주가 오랜만에 연극에 도전한 2인극 <랑데부>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5일 막을 내린 <대학살의 신>에는 김상경과 신동미가 10여 년 만에 복귀해 무대의 공기를 만끽했다. 유승호와 손호준이 <엔젤스 인 아메리카>로, 이현우가 <사운드 인사이드>로, 이동휘와 김준한이 <타인의 삶>으로 처음 연극 무대에 올랐고, 안은진은 <사일런트 스카이>로 7년 만에 연극 무대에 복귀하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더 뜨거워지는 2025년 연극 무대

스타들의 무대 진출은 올해에도 이어진다. 먼저 김강우가 포문을 열었다. 2016년 <햄릿-더 플레이> 이후 그가 두 번째로 선택한 연극은 미국 추리 소설의 대가 토머스 쿡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붉은 낙엽>이다. 아들이 이웃집 소녀의 실종 사건에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가정 내에 피어오르는 의심과 내면의 균열, 평범한 가족의 파멸을 그린 작품으로, 김강우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아버지 에릭 무어를 연기한다. 라인업 대부분을 유명 배우로 채운 작품도 눈에 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동명 영화를 각색한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홍은희, 한혜진, 박하선, 유이, 임수향 등을 내세웠다.



공연 일정

- <붉은 낙엽> 1월 8일~3월 1일, 서울 국립극장
- <바닷마을 다이어리> 1월 15일~3월 23일, 서울 예술의전당
- <애나엑스> 1월 28일~3월 16일, LG아트센터 서울
- <꽃의 비밀> 2월 8일~5월 11일, 서울 링크아트센터
- <벚꽃동산> 3월 13일~15일, 부산 시민회관



- 1 부산을 찾는 전도연 출연의 화제작 <벚꽃동산>
- 2 이엘의 7년만의 연극 복귀작 <꽃의 비밀>
- 3 이상엽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연극 <애나엑스>
- 4 유이가 출연하는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

출처: LG아트센터



2023년 초연 당시 이름을 올린 이들이 재연에 다수 캐스팅된 가운데 아이돌 출신 연기자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은 유이가 요시노 역에 도전했다. 아이돌 출신 연기자의 연극 도전은 <애나엑스>에서도 이어지는데, 아이오아이와 위키미키 출신으로 유명한 김도연이 주인공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애나 만들기>를 통해 잘 알려진 실존 인물 애나 소로킨의 충격적인 사기극을 다룬 작품으로, 김도연은 최영우, 한지은과 함께 애나 역에 트리플 캐스팅되었다. 현재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에 출연 중인 한지은 역시 이번이 12년만의 연극 출연. 방송에서 소처럼 일한다고 해서 '소상업'이란 별명이 붙은 이상엽도 이 작품으로 처음 무대에 오른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장진 감독의 연출작 <꽃의 비밀>에도 친숙한 얼굴이 대거 등장한다. 황정민, 정영주, 장영남 등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무대에도 자주 오르는 연륜 있는 배우를 비롯해 이엘, 이연희, 안소희, 공승연, 김슬기 등이 메인 포스터를 꽂 채워 연극에 관심 없는 이라도 한 번쯤 포스터를 들여다볼 법하다. 이엘은 <아마테우스> 이후 7년만의 연극 출연인데, 털털한 애주가 자스민 역을 맡아 애주가로 알려진 평상시 모습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들이 무대로 향하는 이유

올해 전도연, 조승우 같은 대형 스타들도 연극 무대에 설까?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단연 이영애다. 그는 LG아트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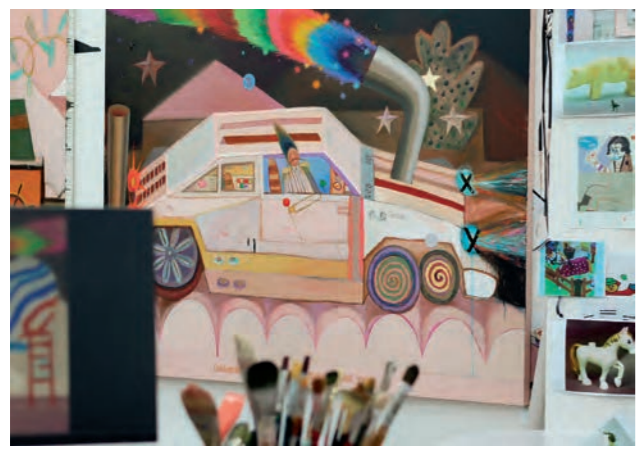
터 서울이 오는 5월에 무대에 올릴 기획 공연 <헤다가블러>를 두고 출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애는 1993년 <짜장면> 이후 연극 무대에 오르지 않았기에 이번 출연이 확정된다면 무려 32년만의 복귀인 셈이다. 재미난 건 국립극단 또한 비슷한 시기에 <헤다가블러>를 무대에 올린다는 점. 압도적 카리스마를 지닌 이혜영이 출연 예정이라 이영애의 헤다와 이혜영의 헤다를 비교하는 진귀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전도연과 박해수가 오는 3월 사흘간 <벚꽃동산>으로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해의 열풍을 먼발치에서 바라봐야 했던 타 지역의 연극 팬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스타들의 무대행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경기 침체와 대작들의 흥행 참패, 글로벌 OTT의 영향으로 치솟은 제작비 등 다양한 이유로 영화와 드라마의 제작 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배우들의 연기 활동 기회가 줄어든 상황. 이런 때에 유명 배우들의 연극 무대 진출과 성공 사례가 이어지니, 여러 배우들이 연극 출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연극계도 스타들의 무대 진출을 환영한다. 스타의 출연 소식만으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신규 관객 유입도 용이해 관객층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스타 캐스팅에 의존하다 보면 작품성이 떨어질 염려도 있고, 스타의 출연으로 티켓값이 상승해 연극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없진 않다. 이는 연극 진출을 고려하는 배우와 연극 제작사 등 공연계 전체가 장기적 안목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HIBITION



<전신과 진경>

겸재정선미술관이 올해 첫 전시로 김현철 작가의 예술 세계를 조명한다. 겸재 정선을 비롯한 여러 작가의 작품을 따라 그리며 동양화의 전통 필법과 조형 원리를 익힌 작가는 한지·비단·리넨·삼베 등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고 표현의 폭을 넓혀왔다. 1부 <전신>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의로운 기운을 담은 '이만응 초상', 무소유 정신을 재현한 '법정 초상' 등을 만난다. 2부 <진경>에서는 현대적으로 해석한 산수화를 선보이는데, 제주도 한라산 오름인 영실을 환상적으로 풀어낸 그림 '영실'을 최초로 공개한다. 기간 <전신> 2월 23일까지, <진경> 2월 28일~4월 12일 문의 02-2659-2206(서울 겸재정선미술관)



<The Lingering Grace>

음하영은 집과 작업실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 자체를 작품 소재로 삼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끊임없이 변하는 삶과 그 안에서 휘몰아치는 감정을 환상성 짙은 회화에 녹여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과 순수 회화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작가처럼 그의 창작물도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문다. 기간 2월 28일까지 문의 02-6203-2015(서울 이길이구 갤러리)

BOOK

<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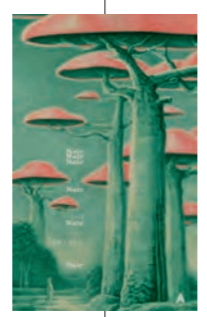
프랑스어로 검은색을 뜻하는 누아. 번역가인 신유진 작가와 회화를 전공한 장종완 작가가 '사라진 어린 왕자는 지금 어떤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까?'라는 질문과 상상을 붙잡고 함께 써낸 창작 희곡이다. 표지는 색을 잃은 흑백의 세계와 모든 색을 품은 빛의 세계, 두 가지 유형으로 출간됐다. 두 작가가 해석한 어린 왕자의 세계를 대조적으로 표현해 상상력을 깨운다. 신유진 지음 장종완 그림 **알마출판사** 펴냄

<목발과 오븐>

태어나면서부터 목발에 능숙해지고 승차 거부에 익숙해진 사람,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대표의 에세이다. 한국 최초 장애인권 동아리 '게르니카'를 결성한 그가 장애인으로 살아가며 겪은 일을 들려준다. '차별과 혐오에 지쳐 갈수록 오븐에 데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한다'라는 그의 생각에서 연대와 포용의 의지가 느껴진다. 김형수 지음 **한뼘책방** 펴냄

<연루됨>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빈곤을 연구해 온 문화인류학자 조문영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비판적으로 세상을 읽는 과정을 지나며 기록한 칼럼을 모았다. 저자는 주로 빈민,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삶에 주목한다. 나와 우리 그리고 세계의 관계를 끊임없이 물으며 공존에 대한 생각을 길러 준다. 조문영 지음 **글항아리** 펴냄



MOVIE

<미키 17>

에드워드 애슈턴의 SF 소설 <미키 7>을 원작으로 한 영화.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기생충> 이후 6년 만에 연출한 신작이다. 자원 채굴을 위해 얼음 행성에 파견된 복제 인간 미키. 죽은 줄 알았던 17번과 그 사이에 탄생한 18번이 만나며 생기는 예측불허의 이야기를 그린다. 2월 개봉. 감독 봉준호 출연 로버트 패틴슨, 나오미 아키에



<퇴마록>

오컬트라는 낯선 장르를 한국에 처음으로 들여온 이우혁 작가의 판타지 소설 <퇴마록>이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왔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퇴마사가 악에 맞서 싸우며 겪는 기이한 일들을 담았다. 원작의 특색을 살린 캐릭터와 한국적 특성을 강하게 녹여 낸 작화가 인상적이다. 2월 개봉. 감독 김동철 목소리 출연 최한, 남도형



SHOW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

독립운동가였던 큰 사장이 떠나고 1947년 대형 제과점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은 군산의 작은 빵집 동백당. 작은 사장 여왕림과 수석 제빵사 공주는 밤낮없이 빵을 만들며 고군분투한다. 해방 이후 직업을 잃으면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마을 사람들은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 관객과 배우가 한 무대에 가까이 둘러앉아 같이 빵을 나눠 먹으며 냄새와 온기를 공유하는 이색적인 경험까지 선사한다. 여왕림 역할은 박윤정, 공주 역할은 황세원이 맡는다. 기간 2월 15일~23일 장소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문의 070-8229-4939



<푸른별과 꼬리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과학 뮤지컬. 우주를 모험하다 우주선 고장으로 표류하게 된 최연소 우주비행사 한별이 새로운 별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우주와 별, 궤도 같은 과학적 개념을 쉽게 풀어내 호기심을 자극한다. 국립부산과학관을 둘러보며 공연을 관람한 뒤 과학 지식을 알차게 쌓는다. 공연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와 3시에 약 20분간 진행된다. 관람료는 무료. 기간 4월 27일까지 장소 국립부산과학관 문의 1422-23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인생 팔십 줄 사는 기와이리 재민노."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들>의 내용을 뮤지컬로 재구성했다. 가난과 성별의 한계로 배울 기회를 놓쳤다가 문해학교에서 읽고 쓰는 기쁨을 만끽하는 칠곡 할머니 네 명의 설렘 가득한 인생을 그린다. 원작에서 느낀 감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극 중 배경은 가상의 마을 팔복리로 바꾸었다. 문해학교 반장 영란 역에 구옥분·김아영, 춘심 역에 박채원, 인순 역에 허순미, 막내 분한 역에 강하나·이예지가 출연한다. 기간 2월 11일~27일 장소 서울 국립극장 문의 02-332-4177



Information.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제10회 철도사진공모전 동상 외 함박눈이 내린다 © 고민정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청량리역~부전역 간 KTX-이음 운행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청량리역과 부산 부전역을 연결하는 중앙선 전 구간이 개통했다. 현재는 KTX-이음 열차가 하루 여섯 번, ITX-마음 열차가 네 번 운행하고 각각 4시간, 5시간 40분가량 걸린다. 올해 말 경북 안동과 영천 구간의 신호 설비 개량 공사를 마치면 소요 시간은 줄고 운행 횟수는 늘어날 예정이다.

KTX와 관광 열차를 연계한 겨울 눈꽃 기차 여행 상품 173개 운영



한국철도공사가 KTX와 관광 열차인 동해산타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를 연계해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대표 눈꽃 명소를 찾아가는 상품 중 하나인 '태백산 눈꽃 기차 여행'을 이용하면 강원도 태백산 설경을 눈에 담고 이글루 카페를 즐길 수 있다. '덕유산 눈꽃 기차 여행'은 전북 무주 덕유산 정상에 올랐다가 머루 와인 동굴에서 와인을 시음하는 코스로 구성했다.

새해 첫날 부전과 강릉 사이 ITX-마음 운행



지난 1월 1일부터 시속 150킬로미터인 ITX-마음이 부산 부전역과 강원도 강릉역 사이를 하루 여덟 번 왕복 운행한다. 연말에는 시속 260킬로미터를 자랑하는 KTX-이음이 투입된다. 동해선 개통으로 부산·울산, 경북, 강원이 연결되고 지역 간 여객과 화물 수송이 원활해지면서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 탄생을 기대를 모은다.

용산 국제 업무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지난해 12월 19일 한국철도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서울 용산 국제 업무 지구의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은 지정권자인 서울시가 개발 사업 시행 능력을 인정하고 사업 주체로 공인하는 행정 절차다. 한국철도공사는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한 후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한다.

한국철도공사 2024 BEST 서비스 국민투표

2024년 가장 사랑 받은 서비스는?



1위 **코레일톡 실시간 열차위치안내 서비스**
국내 최초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열차 위치와 도착시간 확인

2위 **선제조치로 KTX 폭염 지연 ZERO**
고속선 자동살수장치 설치로 고속열차 서행 제로

3위 **더 넓고 더 빨라진 KTX-청룡 운행**
국내 최고 속도(320km/h), 넓어진 좌석! 서울~부산 간 평균 21분 단축

4위 **내가 탈 열차를 미리본다! 코레일톡 VR 시트맵**
열차 설비를 가상현실(VR) 동영상으로 코레일톡에서 미리 확인

5위 **무궁화 객차 화장실 악취 개선**
화장실 설비의 악취원인을 분석하여 배수라인 및 바닥재 전면교체

6위 **임산부 열차운임 할인 확대, 편안한 코레일**
KTX 특실 요금 면제 뿐만 아니라 KTX 일반실과 일반열차 운임도 40% 할인!

참여해주신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도 힘차게 나아가는 한국철도가 되겠습니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p>좌석간격 Seat Space</p>  <p>KTX 930mm</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p>  <p>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p>  <p>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p>
---	---	--	---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p>좌석간격 Seat Space</p>  <p>KTX 1120mm</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식음료 Refreshment</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4·14호차에 있습니다.</p>	<p>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p>  <p>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5호차와 KTX-산천 3·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p>
---	--	--	--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p>화장실 Restroom</p>  <p>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을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p>  <p>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을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p>	<p>수유실 Breast-Feeding Room</p>  <p>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을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p>	<p>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p>  <p>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p>
<p>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p>  <p>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을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p>  <p>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3·4호차, KTX-청룡 2·3·5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을 2·6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p>	<p>의약품 First-Aid Medicine</p>  <p>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p>	<p>금연 No Smoking</p>  <p>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모바일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letskorail.com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간,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간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기한	출발 전		기한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개월~출발 1일 전	무료	400원 (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20분까지	15%
당일~출발 3시간 전	무료	5%	20분 경과 후~60분	40%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5%	10%	60분 경과 후~도착	70%
			도착 시각 이후	환불 불가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Let's KORAIL Website(lets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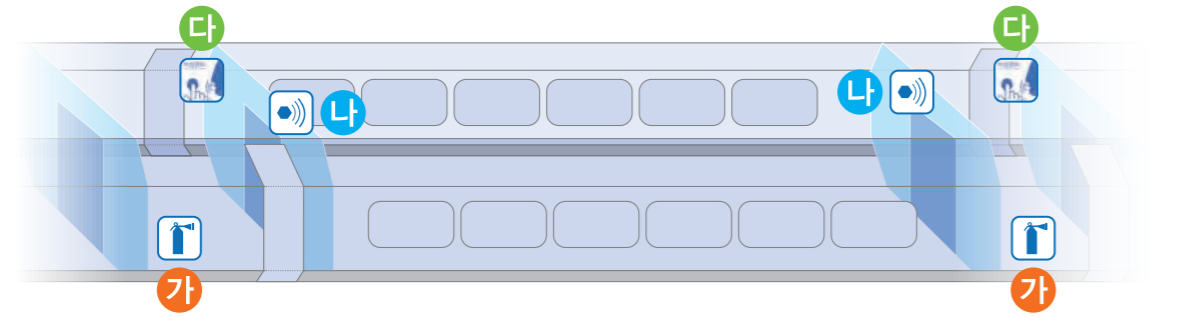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KAKAO T Mobile App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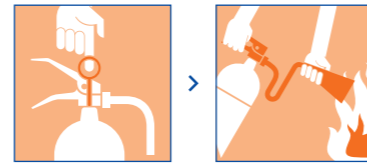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Mon-Thu	Fri-Sun, holidays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Free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Up to 20 minutes	15%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Free	5%	20-60 minutes	40%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5%	10%	60 minutes-arrival time	70%
			After arrival time	No refund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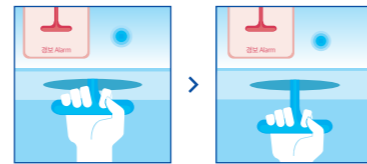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소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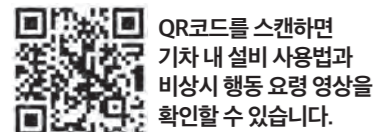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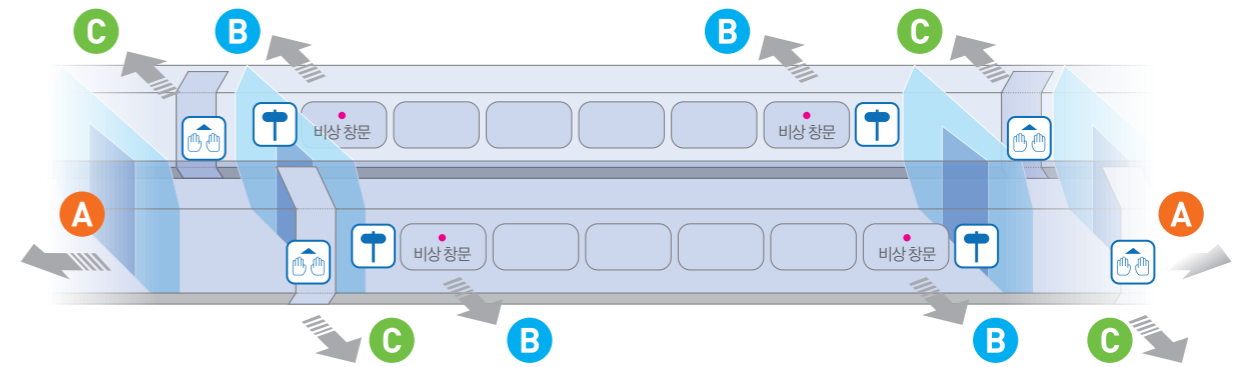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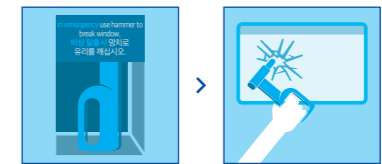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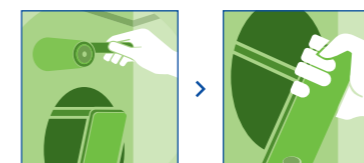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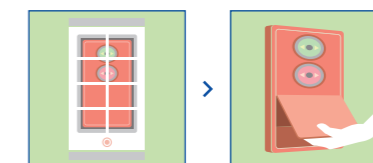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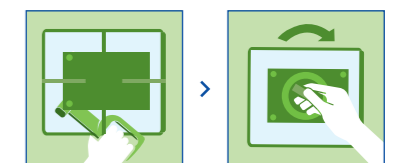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호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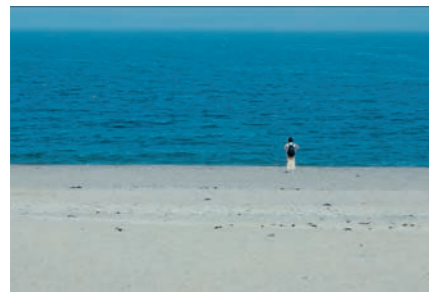


한로로와 떠나는 음악 여행

데뷔곡 '입춘'으로 사랑받은 싱어송라이터 한로로가 봄으로 향하는 기차 여행에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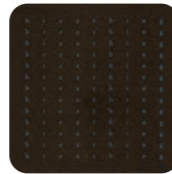
플레이리스트로 이동하기



겨울 끝자락에 사랑을 찾아 나서는 한로로의 플레이리스트



생존법 한로로
뮤직비디오에 KTX를 탄 소녀가 나와요. 생각을 정리하려고 어딘가로 떠나죠. 듣는분의 걱정과 고민은 줄고 그 자리를 사랑이 채우면 좋겠어요.



Breathing in February 전진희
매달 첫날에 들어요. 잔잔한 피아노 음악에 마음이 평온해지고, 앞으로 찾아올 계절의 변화에 어떻게 맞춰나갈지 생각하게 돼요.



I Knew 리지 맥알파인
현악기가 곡을 담담하게 이끌어가요. 차분한 연주와 감미로운 목소리가 여행지에 도착할 때까지 설레는 감정을 증폭시켜요.



Shell (of a Man) 사야 그레이
재미있게 여행하려면 기분 좋은 상태여야 하잖아요. 통통튀는 사운드 덕에 어느새 신나게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을 거예요.



The Story 코난 그레이
풍경을 보면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 꼭 고르는 곡이죠. 특히 햇살이 예쁜 날 잘 어울려요. 코난 그레이의 노래 중 가장 아낀답니다.



사랑으로 웨이브 투 어스
가사가 인상적이니 집중해 들어보세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끝까지 재생하고 나니 사랑이 영원할 것만 같아요.



한로로
2022년 3월 디지털 싱글 '입춘'으로 데뷔한 후 다음 해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과 최우수 모던 록 노래 후보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불안정한 존재이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음악을 만든다. 특히 작사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움을 느낀다. 대표곡으로 '저녁' '정류장' 등이 있다.

©어센틱, 벅스

해양관광도시 1번지 포항

즐거움과 특별함으로 가득한 광광!

각종 촬영지와 힐링 명소로 사랑받는
친환경 녹색도시 '해양관광 1번지' 포항

천혜의 자연 경관 푸른 바다를 품은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포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